

2019 다르마칼리지 에세이경진대회
우수 에세이 선집



동국대학교  2019년 다르마칼리지 에세이경진대회

다르마칼리지 우수 에세이선집 『동국에서 시작한 나의 삶, 나의 글』 제6집을 펴내며

여기에 2019년 다르마칼리지가 개최한 제6회 에세이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학교 내·외적으로 우리 대학 교양과정의 브랜드 강좌로 자리를 잡은 명적세미나인 경제사회, 문화예술, 지혜사비, 존재역사 등 4개 영역과 자기표현글쓰기, 학업기초글쓰기 그리고 실용글쓰기 영역에서 출품된 에세이 중에서 최우수작품들만을 골라 실었습니다. 각 강좌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들이 추천하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에세이 작품들입니다. 수상된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관심을 가져 주신 교양강좌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르마칼리지의 교육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류의 지혜를 반성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집단적 창의력과 생산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이러한 교양교육의 교육목표에도 부합하지만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일반능력으로서 역량 함양의 핵심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세이 경진대회는 이러한 교양교육의 목표와 역량함양을 도모하는 가치 있는 행사입니다. 다행히 해가 거듭될수록 선정된 수상 작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담당강좌 교수님, 교양강좌 수강생 그리고 에세이 경진대회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진대회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다르마칼리지 교학팀의 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2020. 2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학장 조상식



최우수상

경제와 사회 명작세미나_006	초기기업의 시대, 국가의 네 번째 의무를 외치다 정세은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_020	『세일즈맨의 죽음』- 가부장제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맞는 비극 김선희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_030	초기기업의 시대봉준호의 질문과 한국의 대답 - <괴물>과 <기생충>을 중심으로 - 박정현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_040	공간 묘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위대한 개츠비 이수민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_054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권력자에 의한 공간의 통제와 그 속에서의 개인 - 영화 「괴물」을 중심으로 -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세빈
실용 글쓰기_062	따릉이와 함께 하는 서울 여행 경수빈, 권서현, 김소이, 박효주
실용 글쓰기_082	동대신문 활성화 방안 제안 김해인, 안혜지, 이솔아, 이태건
실용 글쓰기_100	대형서점과 지역서점 양립의 필요성 장동화
자기표현 글쓰기_108	달의 노래 고유진
자기표현 글쓰기_114	무취의 살냄새 김서현
존재와 역사 명작세미나_122	칸트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 - 인간 실존과 관련하여 - 한지나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_130	『구운몽』에서 찾는 진정한 '나' 문정현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_138	불교경제학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산업 이해현
학업기초 글쓰기_146	한국 동물원의 종 보전 실태 우상우
학업기초 글쓰기_156	우리나라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 정하연

심사평

글쓰기 부문_168	김운경
명작세미나 부문_170	박진희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경제와 사회 명작세미나

초기업의 시대, 국가의 네 번째 의무를 외치다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정세은

I. 서론

애덤 스미스가 21세기 사람이었다면

II. 본론

1.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2. 국부론에 대한 오해
3. 국가의 네 번째 의무
4. 초기업의 시대

III. 결론

정부는 시장에 정의롭게 개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I. 서론

애덤 스미스가 21세기 사람이었다면

시대는 변해도 고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인간에게 귀감이 되는 책들이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명실상부한 경제학의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부론은 오늘날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한때 그를 오해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스미스가 21세기 사람이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이후 본고에서 스미스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국부론』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왕의 세 가지 책무 이외의 간섭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스미스가 언급한 국왕의 세 가지 의무 이외의 또 다른 의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배경 조성’을 강조하며 21세기 국가의 네 번째 의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초거대 기업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독과점 현상으로 현재 시장이라는 저울이 더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의 저울을 수평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 기술의 발달로 소비 시장의 변혁을 가져온 플랫폼 기반의 대표 주자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21세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사고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임을 밝힌다.

II. 본론

1.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국부론에 대한 오해는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의 상황과 현재와의 차이점을 고려하

지 않고 스미스의 주장을 끝이곧대로 적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선 18세기 영국과 현재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18세기 영국의 상황

사실 18세기 영국에서조차 자율시장경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이기심이 자유롭게 존재했고, 길드에 속하지 않는 공장들 대부분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경쟁적이었다. 가격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가격변동이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자극했다. 스미스 시대는 ‘원자적 경쟁의 세계’로 표현될 정도로 현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공장들이 서로 경쟁을 하였고, 이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힘을 어떤 한 사업체가 갖지는 못했다.¹⁾ 그런데도 당시 유럽 사회에서 스미스의 이론이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쟁을 약화하거나 격화시킴으로써, 자유롭게 경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18세기 영국에서는 제한된 경쟁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방해받아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²⁾

2) 21세기 오늘날의 상황

오늘날의 경우, 18세기 유럽의 실패 요인은 완화되었다. 자본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우며, 인위적으로 국가가 경쟁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비교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스미스의 이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클까? 물론 아니다.

첫 번째로 자본의 이동은 매우 자유롭지만, 노동의 이동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이동’이란 근로자의 지역·산업·기업·직업 간 이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발한 노동이동은 개별 근로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³⁾ 그러나 자본이동과 노동이동의 비대칭성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수직적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기울어진 구조 속에서 자본과 노동이 동등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 이동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이동이 기술 혁명의 시대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의 고

1)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8, p. 75.

2)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07, pp. 155~186.

3) 이은석 외, 『산업간 노동이동성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3.

용 시장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의 변동을 일으킨다. 이때 노동 이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 시장의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과 노동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⁴⁾

두 번째 이유는 규모가 매우 거대해졌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과 강력한 노동조합 등 고용주며 노동자며 할 것 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규모의 성장은 경제의 발전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인 문제점 역시 갖는다. 규모가 너무 거대해져 더는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사회가 침체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원 고갈 문제, 지나친 개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것들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시장에는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 체제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므로 정부로부터 큰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 문제, 사회 불안정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다.⁵⁾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는 스미스 시대보다 국가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증가했다. 시장은 더는 자유경쟁만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미스 시대의 초기 자본주의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국부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스미스가 현대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스미스가 제시한 국왕의 의무 역시 현대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스미스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할 21세기 국가의 네 번째 의무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국부론』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속 정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2. 「국부론」에 대한 오해

1) 첫 번째 오해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스미스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많이 통용되는 것에 비

4) 장인성, 「노동이동성이 기술혁신과 고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7, p. 63.

5) 로버트 하일브로너,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2016, pp. 514-522.

해,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이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손’을 정부가 아예 간섭하지 않는 ‘시장 만능주의’로 이해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스미스가 ‘완전한 자유의 사회’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⁶⁾ 그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정의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공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고 보았다.⁷⁾ 즉,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존재한다면 자유로운 시장 역시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미스의 정의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부론』에서 국왕의 세 가지 의무를 제시하면서 국가가 정의로운 경쟁 상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경제활동이 타인의 신체·생명·재산·명예 등에 피해를 준다면,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부 역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태도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진 않는지,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두 번째 오해 :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특정 산업을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제도는 사회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철폐되면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스스로 확립되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말을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스미스가 정부의 시장 간섭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했던 이유는 당시 영국 정부가 부패한 권력층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영국의 지도층은 독점적 길드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통해 전체적인 국부의 증진이 아니라 정부의 금고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무능력한 정부였다. 따라서 스미스는 영국 정부에 그동안 취했던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태도를 정리하도록 일침을 가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 작동하도록 세 가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강조하자면, 가장 많이 간과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미스의 모든 이론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세 가지 책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 국왕의 세

6)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07, p. 129.

7)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가지 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 행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공공시설을 건설·유지하는 의무이다.⁸⁾ 이처럼 스미스는 국왕의 세 가지 의무를 제시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 자본주의와 정부의 중요성

스미스는 당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왕의 세 가지 책무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결국,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부가 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장 개입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관료제의 비효율성부터 정경유착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사적 영역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권력이 나뉘어 있는 독특한 체제이기 때문이다.⁹⁾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영역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의 자율이 사적 영역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경제 생태계는 혼란과 무질서를 겪게 된다. 결국,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하게는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영역의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가 온 것이다.

3. 국가의 네 번째 의무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시장 전체의 이득을 증진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네 번째 책무’가 필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복지제도의 확립이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국가의 세 가지 의무의 확장판이 필요하다. 강조하자면 스미스 시대와 달리 인권 보장과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큰

8) 애덤 스미스, 『국부론(하)』, 비봉출판사, 2007, p. 848.

9) 로버트 하일브로너,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2016, p. 522.

정부'가 되어야 한다. 개입의 목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 각 기업의 이기심이 시장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확장된 국방·사법 행정·공공사업의 의무를 설명함으로써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확장된 국방의 의무

국왕은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다.¹⁰⁾ 경제적 관점에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에 이르러서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 영역은 국가 단위를 넘나든다.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은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다음 장에서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외국 기업인 아마존을 사례로 든 이유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공룡 기업¹¹⁾의 독주를 막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경제 질서 파괴는 물론 한국 기업의 성장 역사가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간 영향력이 짙어진 지금, 하나의 거대 기업이 문제를 일으켜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를 막론하고 각국의 정부는 현재 자본주의가 맞이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확장된 사법 행정의 의무

앞서 말한 경제적 국방을 실행하는 과정과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은 사법 행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초기업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거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천적 관계에서 상생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 전체의 부의 향상을 방해하는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날카롭게 감시해야 한다. 동시에 격동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누렸던 독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쟁력이 부족한 다른 기업 혹은 개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다면, 더는 시장이 다수의 권익을 위해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 그리고 국가 모두가 21세기 사회에서 정부의 책무가 개인과 사회

10) 이 글에서 국방은 물리적인 공격 이외의 경제적 차원의 공격에서의 보호를 이야기함을 밝힌다.

11) 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기업 규모가 매우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이르는 신조어.

의 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본문 4장에서 초기업의 등장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3) 확장된 공공사업의 의무

보통 공공사업은 도로·항만·철도·학교·병원 등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확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공사업의 특징은 사기업이 관리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가능하다 해도 국가가 관리하는 편이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정보 기술의 발달이 빛을 발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공공사업의 하나로 플랫폼 산업¹²⁾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근 등장한 초거대 기업이 모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선구자이자 수혜자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공룡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의 행동반경을 제한시키고 국가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사업을 통해 기업 간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4. 초기업의 시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크기는 점차 성장했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간 사회는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지식정보 기술의 성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초기업¹³⁾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스미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 역시 ‘규모의 국가’에 걸맞은 의무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초기업의 등장과 그들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를 서술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특히 스미스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21세기 정부의 역할 중 사법 행정의 의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1) 초기업의 등장

아마존을 예로 들어보자. 아마존(Amazon)은 도서, 의류,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 회사이다. 아마존은 인터넷에 상점을 세움으로써 전자상거래 분야의

12) 플랫폼(platform),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하나의 장으로 끌어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13) ‘초기업(超企業)’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기업 규모보다 훨씬 뛰어난 기업 가치를 갖는 기업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다.

문을 열었고, 실물 상점만을 운영하던 이전의 기업들과 비교해 독보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현재 아마존은 미국 전체 온라인 소비의 40%를 장악하며 전자상거래 부문의 단독 선두 주자로 우뚝 서면서 소매유통업의 일인자로 거듭했다.¹⁴⁾

아마존의 성공 요인은 위험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다. 아마존은 경영자들이 흔히들 고민하는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 추구하기’가 아니라 ‘아무나 투자하지 못할 비싼 사업에 투자해서 독보적인 위상 세우기’를 목표로 삼았다. 쉽게 말해서 최저가 공세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고정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시장에 투자했던 아마존은 승자독식 구조를 이루어내면서 경쟁사들을 제거하고 유통업 부문 플랫폼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초기업의 단독질주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부를 이용해 가격을 경쟁사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손님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할인을 진행하여 고정적인 사용자를 유지하는 등의 전략은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과 우월한 기술력을 통해 균계일학을 이뤄낸 능력 있는 집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초기업의 독점 문제 논의는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문제이다.

‘초기업의 사례를 독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은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한다면 독점 자체를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¹⁵⁾ 게다가 만약 이를 독점행위로 결정한다면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의 혁명적인 전략을 견제하고 억제하게 되는데 오히려 기업 수준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독과점 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초기업의 성장 과정이 경쟁사들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의 행보를 합법으로 용인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현재 초기업의 독과점 상황에는 관여할 수 없고 독점 이후 가격 상승과 같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만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독점이 일어난 상태라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에 독점 이후에 이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확실하게 제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미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4) 스킷 갤러웨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p. 34.

15) 김봉규, 『혁신형 독점』 아마존·구글·페이스북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나, 『한국경제』, 2019.03.14.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44552g>

2) 초기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필자는 초기기업의 단독질주를 독과점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초기기업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초기기업의 성장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초기기업이 전체 경제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다룰 것이다.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마존의 경우는 정의의 원칙을 거스른 채 성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마존은 경쟁사들의 숨통을 조이다 못해 끊어놓았기 때문이다. ‘아마존되다¹⁶⁾’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마존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보여줬지만, 미국의 소매유통업 부문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¹⁷⁾ 이는 다른 경쟁사들의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다. 실제로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은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패하여 파산하거나 사업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다. 완구 분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 기업 토이저러스 역시 아마존의 저렴한 제품 가격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밖에도 스포츠 오서리티, 시어스 등 39개에 달하는 매장이 문을 닫았다.¹⁸⁾

이러한 사례는 아마존의 독점 전략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자상거래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아마존의 불친절한 단독 질주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의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폭력적인 전략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 역시 아마존에 대한 과세강화나 반독점법 적용 등을 고려하며 아마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¹⁹⁾ 그 이유는 아마존의 강력한 힘이 시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아마존은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건강한 시장 체제를 방해한다. 경제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해나간다. 그 결과로 경쟁사의 줄 이은 부도, 하청 업체의 임금 하락 등의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16) ‘아마존이 진출한 영역의 기존 사업이 무너지고, 아마존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강일용, 「1년 내로 파산 선고받은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된 비결」, 『IT동아』, 2018.03.23.
<https://it.donga.com/27544/>

17) 스콧 갤러웨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p. 54.

18) 각주 8과 같음.

19) 이해진, 「독점의 폐해를 드러내기 시작한 아마존」, 『머니투데이』, 2018.03.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2914005136940>

그런데도, 미국의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존의 최저가 정책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마존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의 환심을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더 거대하고 유일한 기업이 되어 더는 경쟁할 상대가 없어진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마존의 속내는 2010년 아마존이 기저귀 등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다가 유아용품 전문쇼핑몰 ‘퀴드시’를 인수하여 유력경쟁사를 제거하자 가격을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⁰⁾ 즉,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기업이 된다면 경쟁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빠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아마존의 독점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점에는 일자리 파괴 문제가 있다. 이는 앞에서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아마존으로 인해 대다수의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든 것을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아마존은 일자리 파괴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마존이 일자리 한 개를 만들 때마다 2~3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¹⁾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기업의 전문화와 그로 인한 수확체증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불균형과 불평등이므로,²²⁾ 아마존과 같은 초기업의 독점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같은 자본주의의 약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 문제는 아마존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이다. 초기업의 기술적 성장에 태클을 걸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 수준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마존이 가져오는 일자리 ‘수’의 변화에만 집착하여 일자리의 ‘질’의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아마존의 로봇 및 전자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단순 반복 노동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아마존 때문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전문화된 고급 인력이다. 즉, 일자리 감소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아마존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현실적인 임

20) 각주 12와 같음.

21) 이용성, 「아마존 ‘일자리 창출’ 선언에 美 유통업체 ‘우려’ 새 일자리 하나 만들면 기존 일자리 3개 사라져, 『ECONOMYchosun』, 2017.02.20.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12&t_num=11278

22) 구교준,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정적인(compassionate) 정부로」, 한국행정학회, 2009, p. 1502.

금 체계와 노동법, 제도가 뒷받침되어 새로운 그리고 전문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아마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소기업 종사자, 오프라인 상점 직원 같은 힘 없는 존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18세기와 달리, 현대 시장의 불공정한 상황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결국 시장의 전체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즉, 정부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을 통해 시장에 정의로운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 아마존의 불공정한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흥을 돕는 정책 및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Ⅲ. 결론

정부는 시장에 정의롭게 개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논의된 바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규모의 증대가 가져온 결과를 살펴보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확인했다. 2장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관해 주장했다. 3장에서는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의무에 관해 서술하며 역시 정부의 활동 반경의 확장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초거대 기업,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현대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의무와 역할을 개혁하여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정의로운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이 개입은 사적 영역의 저울과 수평을 이룰 정도까지만 행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경제활동이라는 스포츠에서 정부는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페어 플레이 하는지 지켜보는 심판으로써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대의 정부는 경쟁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초거대 기업의 폭력적인 단독질주에도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은 비판받아야 할 태도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국민에게 ‘정부가 침묵으로써 초기기업의 독점행위에 동의한다’라는 오해를 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

으로 시장은 다수의 권익에 봉사할 수 없고,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끝없는 고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기업·개인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일용, 「1년 내로 파산 선고받은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된 비결」, 『IT동아』, 2018.03.23.
<https://it.donga.com/27544/>
- 구교준,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정적인(compassionate) 정부로」, 『한국행정학회』, 2009.
- 김봉구, 「'혁신형 독점' 아마존·구글·페이스북은 소비자에 피해를 줬나」, 『한국경제』, 2019.03.14.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44552g>
-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8.
- 로버트 하일브로너,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2016.
- 스콧 갤러웨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 이용성, 「아마존 '일자리 창출' 선언에 美 유통업계 '우려' 새 일자리 하나 만들면 기존 일자리 3개 사라져」, 『ECONOMYChosun』, 2017.02.20.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12&t_num=11278
- 이은석 외, 「산업간 노동 이동성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3.
- 이해진, 「독점의 폐해를 드러내기 시작한 아마존」, 『머니투데이』, 2018.03.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2914005136940>
-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07.
- 애덤 스미스, 『국부론(하)』, 비봉출판사, 2007.
-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 장인성, 「노동 이동성이 기술혁신과 고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7.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

『세일즈맨의 죽음』 - 가부장제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맞는 비극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선희

I. 서론

II. 본론

1. 윌리의 성장과정에서의 가부장제
2. 윌리의 가족 내 가부장제
3. 윌리를 죽음으로 몬 가부장제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가부장제’, ‘가부장적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정 내 최상위층에 군림하여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아내와 자식에게 힘을 행사하는 부정적인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세일즈맨의 죽음』 속 주인공 윌리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이다. 경제권을 포함해 집안의 대소사를 통제하는 결정권,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권한까지 윌리가 대부분 쥐고 있으며 아내 린다와 아들 들은 그의 결정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윌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물질적 기반이 아버지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자본주의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윌리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능력 없는 아버지이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고 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윌리는 말년에 치매에 걸리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자살하게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이 윌리의 삶을 비극적이게 만든 주요인을 ‘가부장제’ 사회라고 정의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주인공 윌리가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구시대적 가치를 고집하다가 갈등과 좌절을 겪는 작품으로 설명된다. 『세일즈맨의 죽음』을 다룬 선행연구들 또한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소외, 아메리칸드림, 작품의 무대미학과 페미니즘 등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작품이 자본주의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가부장제’가 낳은 비극이라고 해석했다. 남정애(2000)은 이러한 본고의 방향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었는데, 남정애(2000)은 『세일즈맨의 죽음』을 그의 ‘부권의식’에 주목해 여성이 배제된 그와 아들간의 남성유대적 욕망에 관련된 작품으로 해석했다.¹⁾ 해당 연구는 작품의 서사를 따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윌리의 부권의식을 발견하고 그의 어긋난 ‘아버지’로서의 모습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방식을 포함하되 더 나아가, 가부장제 사회의 ‘아들’로서의 윌리에 주목해 그의 성장과정에서 비극의 뿌리를 찾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이후 윌리가 아버지로서 겪는 비극들도 모두 그 뿌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관점을 포함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세일즈맨의 죽음』 속, 급변하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경쟁에서 패배해 아내가 재생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수단조차 제대로 벌어들이지 못하는 노동자 윌리의 비극적인 삶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려 한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 가부장제가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가해자로 묘사되어왔던 남성 또한 가부장제의 피해자임을 서술하려 한다.

1) 남정애, 『세일즈맨의 죽음: 부권의식에 나타난 남성유대적 욕망』, 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0, 143-148쪽.

II. 본론

본고는 『세일즈맨의 죽음』의 배경인 19세기 말~20세기 초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 가능하다고 보았다. 명작 속의 모든 갈등과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로부터 비롯된다. 본고는 본론 서술에 앞서 이러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이재유(2013)의 주장을 빌리려 한다.

이재유(2013)은 “노동자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력의 교환가치가 전환되는 생활수단의 양’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는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생활수단을 소비하는 ‘소비노동’, 즉 재생산노동은 배제되어있다. 자본은 이것을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고, 노동자들은 이를 ‘가족 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들, 즉 가정의 아내들에게 떠넘기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가정 내 이러한 ‘떠넘기기’는 보다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이후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은 개별 노동자로서 자본과 대면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은 그들 계급 내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갖추기 위해서 자본의 법칙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노동자들이 자신의 내부에 자본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억압과 착취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남성들은 불가피하게 노동자계급의 여성을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착취의 도구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²⁾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부장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노동자계급의 남성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소 불가피하게 ‘가부장제’라고 칭해지는 가족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또한 가정 밖 생산의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은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가부장제 메커니즘은 다소 근본적인 것으로, 작품 속 율리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거쳤다가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대의 남성들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이하의 본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될 것이다.

2) 이재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통일인문학논총 제55집, 2013, 310-311쪽.

1. 윌리의 성장과정에서의 가부장제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 로먼은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배제된 가부장제 사회에서 태어났다. 작품의 배경이 20세기 중반이고 작중 윌리의 나이가 예수살이 넘었음을 감안하면 윌리는 19세기 후반 출생의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19세기 중반 정도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세일즈맨의 죽음』 출판 몇 년 후인 1950년대에도 미국 여자고등학교의 가정 교과서에 ‘저녁식사를 준비하라. 남편이 돌아 오기 직전에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어질러진 물건이 있는지 살펴라. 저녁 시간은 남편의 것이다.’와 같은 ‘결혼생활에 관한 수칙’³⁾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윌리와 그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가부장제가 만연한 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부장으로서 강인하고, 정력적이고, 믿음직한 모습을 갖춘 아버지상이 그들이 살았던 19세기 남성성의 전형이었다.⁴⁾ 윌리의 아버지는 적어도 윌리에게는 강인하고 정력적인 개척자의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 존경할만한 남성상이었다.

윌리와 벤의 가족은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떠나 대륙을 이동하며 플루트를 만들어 팔던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윌리의 어머니가 언급 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다. 그것마저도 이런 내용이다.

벤 어머니는 너와 함께 사시나?

윌리 아뇨, 오래 전 돌아가셨어요.

벤 정말 안됐군. 어머니는 현모양처의 표본이셨는데.⁵⁾

이와 같이 윌리의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현모양처의 표본’이었던 어머니로서만 기억되고 가치를 지닌다. 그에 반해 형제가 어렸을 때 일찍이 집을 떠난 아버지의 가치관은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형 벤은 실제로 아버지의 인생을 따라 알래스카로 향해 개척자의 삶을 살았으며, 윌리 또한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내의 만류로 가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항상 벤을 따라 알래스카로 떠났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의 가치관과 삶을 존경하며 그를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치매상태에 있을 때에도

3) 이진, 『미국에 관한 진실 77가지』, 문예당, 1997, 193-195쪽.

4) 설혜심, 「서구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젠더와 문화 10(2), 2017, 15쪽.

5)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민음사, 2009, 52쪽.

계속해서 환상 속의 형 벤과 대화하는 모습은 그의 무의식에 자리한 개척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보여준다. 직접적인 양육자는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책임하게 가정을 떠난 아버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형제의 모습에서 어머니 또한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랐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들 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와 성 역할 태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제가 이토록 동경하고 따랐던 이러한 아버지의 가치관은 윌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든 근본적이지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윌리의 아버지가 추구했던 19세기 개척시대의 정신은(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윌리가 자신의 아버지가 지냈을 거라고 생각한 개척시대의 정신이긴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에서 구시대적 가치로 전락했다. 윌리는 아버지와 형 벤이 이룬 다소 극적, 신화적인 성공을 생각하며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허황된 꿈만 꾸며 살아간다. 그러나 윌리의 시대인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런 모험심과 남성적 기백으로 이루어낸 신화적 성공은 극히 드물며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게다가 윌리의 직업인 ‘세일즈맨’은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있는 직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형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온 그의 커리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윌리의 세일즈맨으로서의 실패는 곧 윌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짐을 뜻하며 그것이 윌리의 첫 번째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윌리가 말년에 겪는 심리적 우울의 근원을 그가 자란 가족의 분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성역할 태도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성차별적 인식 역시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즉 아버지가 성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가정에서는 어머니, 자녀들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은 남성들에게 남성성에 대한 경직된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성역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성역할에 대해 이분법적이고 성차별적 인식이 강한 남성일수록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한다.⁶⁾ 윌리는 남성성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형이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남성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생겨났을 것이며, 중국에는 그러한 잣대가 자신에게 향해 강박관념과 우울을 겪었을 것이다. 그의 강박관념은 가장으로서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나며 명작 속에서 윌리가 자살 직전에도 씨앗을 심는 행위로 상징된다. 상속할 것이 잘 자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씨앗 밖에 없는 윌리가 느낄 우울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6) 성윤희, 정주리,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아시아 교육연구 20(2), 2019, 549-550쪽.

2. 윌리의 가족 내 가부장제

이번엔 윌리의 일생을 따라 윌리 자신이 아버지로서 꾸린 가정을 보면, 그의 두 아들들은 유년시절부터 아버지를 잘 따랐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윌리의 인생은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운명을 지닌 인생이다. 윌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아들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쳤으며 비프와 해피 또한 아버지의 교육관을 곧이곧대로 들으며 성장하고 그의 인생관을 받아들였다.

벤 아버지는 아주 멋진 분이었지. 아무 데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보스턴에서 출발해 온 가족을 마차에 싣고 전국을 가로질러 횡단하시던 분이었지.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그리고 서부 전체를 관통해서 말이야. 마을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여행 중에 만드신 플루트를 팔았어. (후략)

윌리 제가 아이들을 바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벤 형님. 강건하고 인기 있고 융통성 있게 말이죠.7)

윌리가 아이들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강건하고 인기 있고 융통성 있게’ 키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비프의 미식축구로 대변된다. 윌리가 태어난 19세기 말 시작되던 ‘야성적 남성성’의 강조는 윌리가 비프에게 그러한 대로 스포츠의 열기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당대는 그가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여기는 남성의 공격성, 매력, 호전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시기였으며 따라서 농구나 축구 등 팀을 이루어 경쟁하는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자제심도 있는 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⁸⁾ 윌리는 비프가 미식축구 선수라는 데에 각별한 자부심을 가졌다. 남성적 기백과 인기를 중요시하는 윌리에게 ‘미식축구’는 자신의 아들이 하기에 만족스럽고 이상적인 스포츠였다. 비프도 자신이 미식축구 선수라는 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으며, 미식축구를 하면서도 패스를 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터치다운을 해보이겠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윌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강건하고, 인기 있고, 융통성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프라이드이자 인생의 성공여

7)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민음사, 2009, 55쪽.

8) 아루가 나츠키, 유이 디자인부로,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2008, 208-209쪽.

부가 되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의 실패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와 같이 윌리의 자살에는 자신이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기여했다. 비프는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후로 방황하며 자리를 잡지 못했고, 해피는 걸보기에 비프보다는 자리를 잡은 듯 보이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으며 가볍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해피’라는 이름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아들이 자신의 가치관대로만 산다면 성공을 이룰 것이라 굳게 믿었던 윌리는 특히 비프의 실패로 우울감이 극대화된다. 또한 이것이 윌리의 두 번째 비극이었다.

3. 윌리를 죽음으로 몬 가부장제

작품 후반부, 윌리가 자살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그가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가정에서 자신의 가장의 지위를 지탱해주는 생계유지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돈을 벌리기 위해 친구 찰리를 찾았을 때, 그에게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는다. 이때 윌리는 제안을 거절하고 돈만 빌린 후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윌리가 단순히 해고당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본다면 그가 일자리를 거절한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윌리의 마지막 자존심인 동시에 아들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버나드는 윌리 부자가 어릴 때부터 무시하던 이웃집 친구였다.

(버나드 사라진다. 로먼 부자들 소리 내어 웃는다.)

윌리 버나드는 호감 가는 형이 아니지, 응?

비프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죠.

해피 맞아요, 아빠.

윌리 내 말이 그 말이야. 버나드는 학교에서 최고 우등생일지는 모르지만, 업계에 뛰어들면 너희가 다섯 배쯤 앞설 거다. 우리 아들 둘 어찌나 미끈하게 잘 뺏겼는지 하느님께 감사한다니까. (후략)

찰리는 그런 버나드의 아버지였고, 찰리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버나드 밑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적어도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아버지를 존경

하는 해피에게 자신이 버나드 가족 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것이다. 이는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또 혹자는 찰리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과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을 동일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다 적어놔어. 한 폰도 남김없이 다 갚겠네.”라고 말하며 돈을 빌리는 것은 그의 밑에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돈을 빌리며 모두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곧 언젠가 자신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나이 들고 직장에서도 쫓겨난 윌리가 여태까지 찰리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방법은 없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가 빚을 갚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선택은 찰리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찰리의 밑에서 일하기로 한다면 그의 남은 인생에 그가 평생 꿈꿔오던 아버지와 형과 같은 남성 신화적 성공은 여지조차 없어진다. 윌리의 원래 직업인 세일즈맨 또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점에선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찰리’의 회사라는 점과, 세일즈맨은 적어도 영업실적에 따른 ‘개인적 성공’이 존재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아온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성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윌리의 자살 직전, 말년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가족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안길 수 있는 영웅적 죽음인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그는 자살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남성적이고 신화적이며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이 윌리의 일생에 걸친 비극의 결말이었다.

Ⅲ. 결론

이 글은 ‘가부장제는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 가부장제는 타파되고 있고, 또 이는 옳은 방향이다. 다만 이 글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세일즈맨의 죽음』 속 세일즈맨 윌리는 객관적으로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다. 도덕적이지 못한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가르쳤고, 외도를 했고, 경제적으로 그리 능력이 좋지도 않았으며, 권위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윌리가 왜 그런 아버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그 결과 그의 그러한 성격, 가치관, 상황이 만들어진 데에는 가부장적 사회와 그의 아버지(어쩌면 보다 더 위의 조상일 수도 있다), 형의 영향이 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윌리는 아버지와 벤 모두 남성적인 정신으로 살아갔으며 벤은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까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모두 월리가 젊었을 때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거기서 끝났다. 그들이 말년에 하는 후회를 듣는 일이나 변화한 시대에서 월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일 같은 것들은 없었다. 가부장제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월리는 아버지와 형의 신화만을 듣도록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마치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다.

아버지와 형이 남성 신화의 영웅,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월리에게는 그의 아들에게도 그들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세일즈맨 월리의 이야기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은 그가 단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패했기 때문도, 회사에서 해고당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가 모든 방면에서 실패한 가부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리의 아내 린다가 모종의 이유로 손에 큰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가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때, 그녀가 월리와 같이 자살을 선택했을지는 의문이 든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책임은 각자가 가정 내에서 가진 권력에 비례하므로 아내에게 요구되는 책임보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크기가 크다. 페미니즘 담론이 사회이슈와 문학비평 등 전 영역에 걸쳐 주류가 된 오늘날, 우리는 가부장제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기보다는 가부장이 어떻게 가부장이 되었는지의 과정과 가부장들이 등에 지고 있는 책임 또한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일즈맨 월리의 서사는 죽음의 순간에서 그가 갈망해오던 아버지·형과의 동일성을 회복하고 아들들에게 보험금을 남기며 결말을 맺는다. 월리의 삶은 가부장제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맞는 비극 그 자체로서 완결된다.

[참고문헌]

- 남정애, 『세일즈맨의 죽음: 부권의식에 나타난 남성유대적 욕망』, 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2000.
 야루가 나츠키, 유이 디자인부로,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2008.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민음사, 2009.
 이재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통일인문학논총 제55집, 2013.
 이진, 『미국에 관한 진실 77가지』, 문예당, 1997.
 설혜심, 「서구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젠더와 문화 10(2), 2017.
 성윤희·정주리,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2019.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

초기업의 시대봉준호의 질문과 한국의 대답 - 〈괴물〉과 〈기생충〉을 중심으로-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박정현

1. 누구보다 한국적인, 숙주에서 기생으로
2. 한강변과 반지하의 데칼코마니
3. 한번 가리얏으면 떠오르지 않는 2014년
4. 환상을 팔지 않는 영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영화

[참고문헌]

1. 누구보다 한국적인, 숙주에서 기생으로

2019년 5월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신작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탔다. 한국영화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수상임과 동시에 봉준호 감독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오른 일대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쾌거는 <기생충>이 비단 한국을 넘어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시대정신을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시각을 좁혀서, 봉준호가 한국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정치, 사회학적인 거대한 담론을 소시민의 삶 속에 버무려 훌륭한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 진단하고 있다. 때로는 거기에 자신의 희망을 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소를 날리거나 슬픔을 던지기도 한다. 이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열쇠는 ‘한국’과 ‘가족’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면 결국, 그의 영화들은 가족의 해체와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족의 결합과 해체 역시 가능하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의 영화 속 가족은 온전치 않다. 온전하다 할지라도 결국 온전치 않게 변한다. <괴물>에서의 가족은 엄마가 부재하다. 희봉(변희봉)의 아내가 없고, 강두(송강호)의 아내가 없다. <마더>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하다. <옥자>에서는 부모 양쪽이 모두 부재하다. <기생충>에서는 온전한 가족이 영화 말미에 와서 딸(박소담)의 죽음과 아버지(송강호)의 실종으로 인해 찢기게 된다. <괴물>에서 역시 희봉과 현서의 죽음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국면을 맞이한다. 대신 <괴물>에서 강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 세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 <마더>의 경우 광기에 가까운 모성으로 아들의 죄(살인)를 다시 자신이 저지르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옥자>의 경우 동물인 옥자와 거기서 데려온 새끼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단순히 영화의 초반과 말미의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가족의 구성, 해체, 결합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이다. 그런데 이는 ‘괴물’로 바뀌어 읽어도 무방하다. 한국과 괴물 사이의 간극이 조금은 낮설 것이다. 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설국열차>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이고, 거기서 주인공들은 각자의 괴물을 상대하게 된다. <살인의 추억>의 경우 두만과 태운은 표면적으로 보기에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으려 한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결국 깨닫게 된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살인범이 아니라 80년대 한국사회의 후진성임을. 〈괴물〉의 경우 정말 괴물이 나온다. 그렇지만 그 괴물은 결국 맥거핀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깨닫게 된다. 진짜 괴물은 재난 상황에 소시민들을 가차 없이 버리는 정부,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임을. 〈마더〉의 경우 신성시 취급받던 한국 엄마들의 모성애라는 괴물과 정면 대결한다. 그리고 〈기생충〉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에 처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한 하층민들을 ‘기생충’ 취급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통렬히 보여준다.

이렇듯 다채로운 그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위 두 가지 키워드로 봤을 때 유달리 눈에 띄는 두 가지 작품이 있다. 바로 〈괴물〉과 〈기생충〉이다. 우스갯소리지만, 〈기생충〉에 대한 보도 자료가 부족했을 때 해외의 많은 기자들은 〈기생충〉을 〈괴물〉의 속편으로 착각했다. 〈괴물〉의 영어 원제 ‘host’와 〈기생충〉의 ‘parasite’가 자연스럽게 서로 호응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괴물〉에는 괴물이 나오지만 〈기생충〉에는 기생충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예상은 무의미해졌다. 그렇지만 속주에서 기생으로 시점이 옮겨간 만큼 이 두 영화 사이에는 흥미로운 통찰이 존재한다. 두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개봉한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가감 없이 2006년의 대한민국과 2019년의 대한민국을 잘 그려냈다. 두 영화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비된다. 둘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있다. 그 사이 한국은 뭐가 어떻게 변했을까, 또 왜 변했을까?

문화 예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창작자의 모호한 의도를 나름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용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두 영화 사이의 가장 큰 분기점이 2014년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고 우리 세대를 정의하고 있는 세대 기억이다. 〈기생충〉이야 개인적으로 보기에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작품이지만, 〈괴물〉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8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름끼칠 정도로 영화의 손끝이 세월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신기가 있어서 예측이라도 한 것일까? 슬프지만 현실은 그런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봉준호는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한국’이라면 ‘이런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차갑게 영화로 진단한 것이다. 2006년의 〈괴물〉, 2014년의 세월호를 우리의 기억으로 채우고, 그 다음 2019년의 〈기생충〉을 본다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이다. 아, 한국은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2. 한강변과 반지하의 데칼코마니

두 영화는 모두 공간의 계급적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괴물>은 극단적일 정도로 영화 러닝타임 내내 한강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마도, 가족이 병원을 탈출하는 시퀀스와 남일(박해일)이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시퀀스를 제외하면 이야기 전부가 한강에서 전개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 미디어의 보도 방향과 괴물의 타겟이 되는 인물들을 떠올린다면, 비록 한강이라는 제한된 장소가 배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질서아래 양극화된 공간을 느낄 수 있다. 괴물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영화 내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생성하는 현서와 세주가 납치된 이유와 기저에 깔린 의미를 찾자면, 결국 한강에서 거주하고 있는 하층민이 납치됐음을 알 수 있다. 발표 때 다뤘으므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장력에 밀려난 하층민들이 고이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한강변으로 설정됐음을 알 수 있다. <기생충>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두 공간의 대비를 보여준다. <기생충> 역시 영화의 90프로 이상이 세트장에서 촬영이 됐고, 부유층으로 대변되는 박사장(이선균)네 가족의 집이 하층민으로 대비되는 기택(송강호)네 반지하방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 심지어 가족의 구성조차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동일하다. <기생충>에서 두 가족이 만나기 이전 두 가족의 생활을 상상해보자면, 두 가족의 동선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주, 생활양식 누리는 문화 역시 겹치는 것이 거의 없다. 박사장네 가족은 각각의 방에서 자고 거실에서 식사하며, 독립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이동할 때는 기사가 딸린 자차를 사용한다. 반면에 기택네는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공간에서 함께 피자박스를 접고, 밥을 먹고, 잠도 잔다. 또, <기생충>은 단순히 양분화 된 공간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거기에 지정학적인 특징을 부여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두 가족의 생활동선을 겹치지 않게 세심히 분리한 다음 거기에 높낮이까지 더해 두 가족 사이의 거리를 더더욱 벌리는 것이다. 박사장네 집은 높은 언덕 위에 정원 딸린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기택네 집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하층민들이 한데 모여 낮은 곳에 벽을 맞대고 살고 있다. <괴물>에서 관객에게 괴물이 상징이지만 강두네 가족에게는 실재였듯이, <기생충>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배치 역시 단순한 상류층, 하류층을 뜻하는 상징이 아니라, 기택네 가족이 맞닥뜨리고 살아야 하는 실재이다.

두 번째 특징은 ‘희생’이다. <괴물> 속 강두네 가족과 <기생충> 속 기택네 가족 모두 딸

(각각 현서와 기정)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서 부터는 논의를 조금 비틀어 공통점 속에서 차이점을 찾아야겠다. 두 가족이 공통적으로 지키지 못한 딸의 죽음에서 ‘왜’를 찾는 것이 결국 지난 10여년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서의 죽음은 책임이 비교적 분명하다. 엄밀히 따지자면 현서는 괴물이 죽인 것이 맞다. 그렇지만 현서는 괴물에 의해 익사(추정)하기 전, 여러 차례 죽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이런 가정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서가 한강변에 살지 않았다면 일차적으로 납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이는 앞서도 설명했던 자본에 따른 공간의 양극화를 가리킨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현서가 원효대교 복단 하수구에 갇혀있는 동안, 만약 공권력으로 투입된 수많은 전경과 군인들이 바이러스 방역과 시위 진압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괴물을 화기로 진압하고 현서를 찾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즉, 이 가정은 재난 아래서 소외된 소시민들을 대하는 국가권력의 잘못된 작동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현서 죽음의 책임 소재를 따져보았으니, 현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빌리자면 〈괴물〉의 초기 구상 중 가장 먼저 정해진 것은, ‘딸이 납치를 당하고, 가족은 구하지 못 한다’라는 전제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강두네 가족은 모두가 힘을 합쳐 괴물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는 비단 강두네 가족의 힘뿐만이 아니라 노숙자(윤제문)와 하수구에서 일용할 양식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세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괴물은 다시 한강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비록 현서는 죽었지만 세주는 살아서 강두와 가족이 된다. 아주 많은 디테일에 대해 논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시민의 연대’가 괴물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고, 변형된 가족의 결합으로 볼 때, 현서의 죽음이 마냥 헛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생충〉에서 기정의 경우는 어떻게? 기정의 죽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화 속 후반부에 위치한 가든파티 살육의 기묘한 인과관계와 영화의 중반부 근세의 발견까지 살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정의 죽음은 아주 헛되다. 영화의 한 가운데서 기택네 가족(정확히는 아내인 충숙)은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근세를 발견한다. 근세의 아내인 문광(이정은 배우)은 충숙에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다달이 돈을 바칠 테니 지금처럼 자신의 남편이 지하에 기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충숙이 밀질 거래는 아니다. 문광이 박사장네 집에 재취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세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충숙은 문광의 제안을 거절한다. 지하에서 기생하고 있는 근세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다. 곧바로 기택네 가족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숨어있던

모습을 들키게 되고, 뒤늦게 충숙은 사태를 파악한 문광에게 손을 내민다. 당연히 기분이 상한 문광은 쌍욕을 뱉으며 충숙의 거래를 거절한다. 이 두 거래의 불발 사이에는 자신을 ‘불우하다’고 말하는 문광을 보며 ‘나는 불우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어리석은 충숙의 모습이 있다. 이 장면은 <기생충>안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괴물>과 같이 놓고 보아도 아주 중요하다. 이 두 가족(기택네 가족과 근세네 부부)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아도 양쪽이 손을 잡고 두 가족을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박사장네 가족에 기생하는 것뿐이었고, 먼저 손 내민 문광의 부탁 역시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다. 소시민 사이의 연대 가능성이 소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깨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가든파티 살육 시퀀스를 보자. 근세는 기우(최우식)를 수석으로 내려친다. 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원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근세는 기정을 찌른다. 심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정신없는 가든파티에서 충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야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었고, 또 그녀가 충숙의 딸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충숙은 근세를 찌른다. 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딸을 죽인 남자를 복수하기 위해 찌른 것이기 때문이다. 기택은 박사장을 찌른다. 이 인과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심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글의 결론부에 다시 후술하겠다. 딸의 죽음으로 돌아와서, <기생충>에서 기정의 죽음은 아주 헛되다. 영화 내에서 소모적으로 쓰였다는 뜻이 아니다. 기정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헛되이 죽게끔 설정이 되었다는 말이다. 현서의 죽음은 강두를 각성시켰고, 세주를 남겼다. 냉정하게 보자면 강두와 세주 역시 그저 살아남았다 뿐일지 몰라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붕괴하지 않았음은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기생충>에서 기정의 죽음이 나머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기정은 죽고 기택은 실종된다. 기우는 가로등 불빛도 들지 않는 서늘 퍼린 반지하방 차가운 벽에 등을 댄 채, 학벌이고 자시고 돈부터 벌 어 박사장네 집을 사서 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기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박사장네 집을 사려면 오백년이 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남겨진 충숙과 기우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붕괴한 상태이다.

3. 한번 가라앉으면 떠오르지 않는 2014년

눈 내리는 한강변 매점에서 충구를 한강에 겨누고 있는 강두의 모습과 반지하 방 벽에 등을 대고 이를 갈고 있는 기우의 모습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세월호 사건이 놓여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서해 한 가운데에 커다란 배가 가라앉았고 299명이 죽었다. 그 중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들이었다. 언론은 전원구출이라는 오보를 냈다. 정부는 자식 잃은 부모들을 체육관 안에 몰아넣고 정보를 은폐했다. 언론은 이들의 보상에 대해,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단식 투쟁을 하는 피해자 부모들 앞에서 유가족의 자식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거나 같은 또래인 사람들이 폭식 투쟁을 했다. 아무것도 명확한 게 없는데, 가라앉은 배를 물으로 올리는 비용이 아깝다고 말하고, 이제는 이들의 슬픔이 질린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남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기 티끌에 더 분개하고 분노한다. 자신의 상황이 모든 것을 왜곡한다. 강자는 강자라서 이해 할 수 있다. 강자의 강한 모습은 추구해야 할 이상향처럼 보인다.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 강자처럼 되어서 강자처럼 살고 싶다. 방법은? 잘 모르겠다. 강자만 될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밟아도 상관없다. 정의라는 게 뭔가. 진실이라는 게 뭔가. ‘나’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정의와 진실을 왜곡한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정의이고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이렇게 만든 노인들을 증오하고, 노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을 부정하는 젊은이들을 증오한다.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이 일어난다. 나만 잘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점점 남들을 위해 남겨둔 한 톨의 마음마저 차례차례로 닫힌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이게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쌓이고 쌓여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사회가 더욱 양극화 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사회적인 비극이고, 진상조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모두가 심정적으로는 추모해야 할 의문의 여지없는 사건인데, 사건의 진행이 왜곡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적인 논쟁거리로만 소모되고 있다.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단순히 외면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을 향해 ‘너희만 힘드냐’라고 독한 말을 뱉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견고하고 국가의 복지정책이 소외된 하층민들을 도울 수 있을 때는, 비교적 쉽게 공감의 여지를 늘릴 수 있고 또 남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

렇지만 자신도 경제적으로 내몰리고 한 번의 추락이 영원한 추락일 때는, 남들의 불행이 자신에게는 기회이며,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는 공적 자본의 투입은 낭비라고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다.

〈기생충〉의 후반부 서사 변주는 이렇듯 변해버린 2019년의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기택과 근세는 다했다. 둘 다 대만 카스테라 프렌차이즈를 하다가 망했다. 중요한 것은 둘이 자신의 과오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잘못된 보도로 중산층을 꿈꾸던 두 명의 가장이 가족을 빚더미에 얽힌 것이다. 그 결과 기택은 반지하에 살고, 근세는 더 깊은 지하에 살게 됐다. 기택네 가족이 박사장네 집을 탈출하는 그날 밤, 아주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린다. 빗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치킨 몸으로 돌아온 동네는 온통 물에 잠기고, 가난한 이웃들은 물을 퍼내며 서로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기택과 기우, 그리고 기정은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집안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기택은 망연자실하고, 기우는 여전히 수석을 상징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기정은 똥물이 역류하는 변기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태운다. 벽 너머 수많은 이웃들 역시 기택네 가족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 지르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필자가 직접 경험한 적도 없는 세월호 사건 때의 선내를 떠올려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펐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우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재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재해에 봉괴한 기택은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삶에 대한 포기선언을 아들에게 해버린다. 그의 삶은 그 하룻밤을 기점으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육관에 등을 대고 있는 모두가 그와 같을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되어 체육관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에 반해, 박사장네 집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정원 한 가운데에 아들인 다송이가 미제텐트 안에서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 다음날 점심 늦게까지 달콤한 잠을 이룬다. 그리고 박사장의 아내인 연교는 맑게 갠 하늘을 보며 미세먼지가 없는 화창한 날씨가라며 가든파티를 준비한다.

다시, 남겨두었던 마지막 칼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 해야겠다. 기택은 근세가 자신의 딸을 찢었던 칼을 들고 박사장을 찌른다. 이 장면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볼 때, 기택이 해야 하는 행동은 머리가 깨진 아들과 가슴을 찢린 딸을 데리고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택은 박사장을 찌른다. 이 살인을 유도한 것은 근세의 냄새에 코를 움켜쥔 박사장의 행동이다. 박사장에게는 기택이나 근세나 냄새나는 인간일 뿐이고, 기택에게 근세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자신의 미래였을 뿐이다. 헛되게 죽은 딸을 뒤로 하고

기택은 박사장을 찌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사장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다. 근세가 3년 동안 자기 집 지하에 살았다는 것도 몰랐고, 박사장네 가족이 서로 가족이었다는 것도 몰랐다. 이 장면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해하는 데에 거창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보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박사장이 왜 찔렸는지를 ‘느낀’다. 그렇지만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느낀 사람이 이 장면을 느끼게 해 줄 수는 없다. 이해한 관객과 이해하지 못한 관객, 두 명 사이의 거리가 박사장과 기택의 거리만큼 멀기 때문이다.

〈기생충〉에서 근세, 기정의 죽음과 기택의 실종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한다. 방송사는 가든파티 살육을 그저 ‘문지마 살인’으로 치부하고 그 기저에 깔린 함의를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괴물〉에서 강두는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죽였음에도 티비를 끄고 총구를 한강으로 돌린다. 괴물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음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위 두 영화의 결말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사회 구조적으로 한국은 변한 게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됐음을.

4. 환상을 팔지 않는 영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영화

봉준호 감독은 〈MBC [간은 지금] 영화 ‘기생충’ 일문일답〉에서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뭐를 한다 영화가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대답은 관객을 의아하게 만든다. 이렇게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면서,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니. 필자는 그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아마도 봉준호 감독에게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다. 영화가 현실을 이끌지 못한다. 현실에 대한 문화적, 예술적 리액션, 그 결과물이 영화인 셈이다. 이 말을 오독해선 안된다. 영화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수동적으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질문을 던질 뿐이지, 안에서 답을 제시함으로써 환상을 팔고, 그 안에서 의문을 강제로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다른 훌륭한 영화들이 그렇듯이 극장 안에서 즐겁고, 극장 문을 나서며 그가 던진 질문을 곱씹게 된다. 그는 〈괴물〉을 향한 한국사회의 응답을 세월호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기생충〉으로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몫이다.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좋건 싫건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다.

[참고문헌]

정성일, [FLO 9호(2019.7.8). <기생충>], 2019. 07. 08

허문영 '최종 승리는 괴물이다' (p.33~p.45), <세속적 영화, 세속적 비평>, (주)도서출판 강

정성일, 노골적이고 단호한 정치적 커밍아웃', <씨네21> 2006. 08. 08. 565호.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

공간 묘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위대한 개츠비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이수민

-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I. 서론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읽는 데 있어, 그 관점은 주로 ‘당시 1920년대 미국의 시대상과 연관지어 읽어본 위대한 개츠비’, ‘색채이미지와 등장인물을 결부지어 읽어본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혹은 ‘위대한 개츠비에서 너 캐러웨이는 어떤 인물인가?’와 같은 인물 중심적 관점에서의 해석도 몇몇 보기는 했다. 하지만 더 다른 관점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 있어서 진하게 드러나는 1920년대의 미국의 모습이나 색채이미지 말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러다 이 소설이 유독 공간 묘사, ‘집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상세한 작품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물론 위대한 개츠비는 전체적으로 묘사가 상세한 작품이지만, 장소에 대한 묘사는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다. 이를테면, 1장에서 톰과 테이지의 집에 대해, ‘붉은색과 흰색을 산뜻하게 칠한 조지 왕조 식민지풍의 대저택…4분의 1마일이나 달려와…해시계들과 벽돌로 포장된 산책로…한 줄로 이어진 프랑스 식 창문…반사된 금빛으로 번쩍이는 창들’, ‘이탈리아 식 침상 정원에는…길은 색깔의 장미들…해안에는 앞이 넓적한 모터보트 한 대가…’ 이런 식이다. 소설책이 인물이나, 인물의 감정선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위대한 개츠비가 건축 소설도 아니고 집에 대해 이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이 쓴 책에 ‘위대한 개츠비를 세 번 읽는 사람이라면 나랑 친구가 될 수 있겠군!’라는 대사를 넣었다고 한다. 본인은 ‘위대한 개츠비’ 소설 퀴즈를 준비하기 위해 이 소설을 두 번 정도 읽었는데, 이번 세 번째 독서는 소설에 나오는 공간 묘사 부분에 특히 주목하며 읽어보고 그 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독서를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개츠비의 저택

개츠비의 저택 묘사는 이 소설의 가장 중심 건물인 만큼 생각해 볼 여지도 가장 많은 부분이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만큼 자신의 현실을 거짓으로 포장한 인물이 있을까? 당장 제이 개츠비라는 이름부터가 가명이며, 소설 내에서 개츠비가 자신의 인생을 거짓으로 꾸

며 말하는 부분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다.

개츠비의 저택 묘사는 16페이지 너의 생각에서 처음 드러난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저택이었다.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가느다란 수염 같은 야생 담쟁이덩굴에 둘러싸인,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탑과 대리석 풀장(책에는 대리석 풀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무래도 오타 같다),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 그리고 정원이 딸려 있었다’¹⁾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전부 타고났을 때부터 부유한 삶만 살았던 전통 부자들인 뷰캐넌 부부의 저택 묘사와는 대치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개츠비가 꾸며낸, ‘제임스 개츠’의 삶이 아닌 ‘제이 개츠비’의 삶은 전통 부자인 뷰캐넌 부부에 뒤지지 않는 삶이다. ‘엄청난 대저택’,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이라는 부분은 개츠비가 얼마나 부유한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위대한 개츠비를 한 번 읽은 독자라면 개츠비의 실상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다. 뷰캐넌 부부는 조상 대대로 부자였으며,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였고, 항상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존재다. 그에 비해 개츠비는 실패한 농사꾼의 아들로써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신흥 부자에 속한 존재이다. 이 점을 생각하고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과 뷰캐넌 부부의 저택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대저택’이라는 표현에서는 알 수 없었던 개츠비와 뷰캐넌 부부의 차이와 개츠비의 거짓말과 부유함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뷰캐넌 부부의 ‘조지 왕조 식민지 풍의 대저택’과 개츠비의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저택’ 부분이다. 조지 왕조는 영국의 왕조이고, 미국의 근본되는 나라가 영국임을 생각하면, 이 표현은 뷰캐넌 부부의 ‘전통 부자’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노르망디’는 프랑스의 한 지역으로써 미국과는 영 근본없는 장소이며, ‘그대로 본뜬다’라는 표현은 무언가의 비품마저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 적어도 난 ‘노르망디 시청 풍의 저택’이 아닌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저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츠비가 뷰캐넌 부부와 같은 전통 부자의 모습을 열심히 흉내내는 것을 비꼬려고 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런 표현은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보면 ‘영국산 참나무를 두른 서재는 해외의 무슨 유적을 통째로 옮겨 놓은 듯했다’²⁾라는 대목이 나온다. 개츠비가 자기 현실과 본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노력하며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1)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6

2)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61

개츠비의 저택은 개츠비가 꿈꾸는 모습들을 일기설기 콜라주한 장소임을 시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또한 뷔케넨 부부의 저택의 ‘해변에서 시작된 잔디밭은 현관을 향해 4분의 1마일이나 달려 와, 해시계들과 벽돌로 포장된 산책로, 불타는 정원을 뛰어넘더니 그 끝에 여세를 몰아 밝은 색 덩굴이 되어 저택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뷔케넨 부부의 저택이 오래된, 진짜배기 고풍적인 저택이라는 인상을 준다. 애초에 그 모습이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집을 묘사할 때의 클리셰적인 모습이다. 해변에서 현관, 산책로, 정원을 넘어 저택의 벽까지 이어 진다니 말이다. 그에 비해 개츠비의 저택은 그저 벽 한 쪽만 야생 담쟁이덩굴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고, 결정적으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듯 보이는 탑이라고 서술된다. 대리석 폴장도 신축 건물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이는 개츠비의 저택은 전통 부자의 저택과는 거리가 멀며, 말 그대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급조된 느낌까지 주는 장소라는 이미지까지 연상 시켰다.

이 너의 생각 두 문장은 처음에는 ‘엄청난 대저택’, 끝은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으로 마무리하며 ‘개츠비=엄청난 대부호’(개츠비의 이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속(중간)에는 ‘노르망디 시창을 그대로 본뜬 것’,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탑’이라는 대목을 넣으며 ‘개츠비=결국에는 전통 부자와는 구분되는 신흥 부자’(돈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개츠비의 현실) 그 초반부터 은근히 개츠비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구성한 문장이 아닌가 싶다.

이후 3장의 시작, ‘위대한 개츠비’ 책의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단 3페이지만 읽어보면 개츠비의 저택에서 구현되는 그 고상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방탕함, 넘쳐나는 술과 음악, 그것들을 다 감당해내는 개츠비의 부유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 안 가 ‘이스트에그 사람들은 웨스트에그 사람들에게 짐짓 겸손한 듯 굴면서도, 그들의 휘황한 쾌락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³⁾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휘황한 쾌락’이라는 것이 개츠비의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를 표현하는 단어로 더없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스트에그 사람들은’이라는 대목에서 테이지와 개츠비는 결국에는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넣은 대목이 아닐까 싶었다. 개츠비가 자신의 부유함을 무기로 테이지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인물인데, 개츠비의 부유함이 구현한 그 휘황한 쾌락에 ‘이스트에그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분명 그런 의도에서 넣은 게 아닐까?

개츠비의 저택에 개입하여 변화를 가져다주는 인물은 누구일까? 개츠비의 저택은 애초에

3)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61

데이지를 의식해서 지어진 저택이므로 당연히 데이지라는 답이 나오겠지만, 톰의 고발이 개즈비를 산산조각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이후 개즈비의 저택 묘사의 변화를 생각하면 톰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즈비의 저택이 데이지를 의식한 장소라는 것은 ‘개즈비는 일부러 데이지네가 보이는 반대쪽 집을 산 거니까요’⁴⁾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벽 두시, 반도의 한쪽 모퉁이가 관목숲 위로 쏟아지는 비현실적인 빛과 길가를 따라 늘어선 전선을 따라 흔들리며 반짝이는 눈부신 섬광으로 환히 불타고 있었다. 코너를 돌아 개즈비의 저택이 보였다. 꼭대기부터 지하실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⁵⁾에서는 데이지의 관심을 받기 위한 개즈비의 구애를 엿볼 수 있다. 데이지가 가진 개즈비와 개즈비의 저택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개즈비가 개즈비의 저택에 데이지를 초대하고, 데이지가 개즈비의 휘황찬란한 저택에 황홀경에 빠지는 장면 곳곳에는 신흥 부자인 개즈비가 전통 부자인 데이지에게 닿으려는 애처로운 몸짓이 저택 묘사 곳곳에 드러난다. ‘황홀경에 빠진 데이지는 중세 봉건 영주의 저택을 연상시키는 건물의 실루엣과 정원을 찬미하고’, ‘안으로 들어가 머리 양투아네트 풍의 음악실과 왕정복고 시대의 살롱들을 지나갈 때,’ ‘개즈비가 머튼 칼리지 도서관의 문을 닫는 순간,’⁶⁾ ‘우리는 마지막으로 개즈비 자신의 공간에 도착했다. 침실 하나에 화장실 하나, 애덤 양식의 서재가 딸려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서재에 앉아 벽장에서 꺼낸 카르투지오 술(카르투지오 수도회에서 1605년부터 이어져 오던 제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술)을 함께 마셨다’⁷⁾ 등에서 그를 생각해보자 하다. 이 볼드체 표현들은 전부 전통 부유층들에게 어울리는 표현들로, 신흥 부자인 개즈비를 표현하는 묘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개즈비에게 전통 부자인 데이지에게 닿으려는 열망 없이 신흥 부자가 되어 자신의 저택을 꾸몄다면, 이 묘사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즈비의 저택이 데이지에게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톰과 데이지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할 이후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히 제스처의 세계가 아닌, 감정의 세계였기 때문이었다’⁸⁾라는 대목이 나온 바로 그 다음 장에 바로 ‘손님으로 떠들썩했던 집 전체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내린 것이다. 불

4)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즈비』, 문학동네, 2009, p.100

5)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즈비』, 문학동네, 2009, p.103

6)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즈비』, 문학동네, 2009, p.115

7)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즈비』, 문학동네, 2009, p.116

8)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즈비』, 문학동네, 2009, p.136

만이 담긴 그녀의 눈빛 한 방에⁹⁾라는 대목이 단적인 예다.

다음은 색채 이미지와도 상당히 관련되는 해석인데, 앞서 ‘개츠비가 저택을 불로 휩쓸고 달리는 행위’=‘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구애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애 행위가 너무 나간 해석이라면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관심 받기 위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빛이 꺼진 공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데이지가 완전히 떠난다면 개츠비와 개츠비의 저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스위치를 켜자 잿빛으로 물들어 있던 창들은 일제히 사라지고 온 집 안이 빛의 광휘로 가득 찼다’¹⁰⁾라는 문장이 답을 준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서술될 부분이지만 잿빛은 조지 윌슨과 관련이 깊은 색이고, 빛의 광휘=노란색은 데이지와 관련이 깊은 색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먼저 ‘잿빛’은 데이지가 완전히 떠난 후 남겨질 개츠비의 삶과 저택의 모습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가 조지 윌슨과 연관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후반부에 조지 윌슨이 개츠비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럴 듯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여기서 개츠비의 저택은 금방 스위치를 껐으로써 빛의 광휘로 가득 차게 되지만, 개츠비의 저택이 잿빛 공간으로 표현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제이 개츠비라는 존재가 톰의 도저한 악의로 인해 깨진 유리처럼 박살 나버렸을 때, 개츠비의 집은 사방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도록 환기를 하지 않은 듯 방에서는 곰팡내가 풍겼다. 마침내 처음 보는 테이블 위에서 담뱃값 하나를 발견했는데, 말라비틀어진 담배 두 개비가 들어 있었고, 닉과 개츠비는 응접실의 프랑스 식창문을 열어젖히고 어둠 속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¹¹⁾ 톰으로 인해 개츠비의 꿈은 그야말로 박살나버리며, 그 당시 개츠비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믿었지만 데이지는 개츠비에게서 마음이 떠났으며 개츠비의 저택은 잿빛 공간으로 물든다. 이 암울한 묘사는 데이지와 톰이 그에게 끼친 거대한 영향들의 마지막,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개츠비가 느끼는 절망을 보여주면서도, 윌슨 정비소의 공간 묘사를 연상시킴으로써 개츠비가 조지 윌슨과 함께 그 끔찍한 결말을 맞을 것임을 암시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었다.

2. 뷰캐넌 부부의 저택

뷰캐넌 부부의 저택 묘사는 톰 뷰캐넌과 데이지 뷰캐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9)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43

10)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20

11)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84

톰 뷰캐넌의 이미지와 성격을 보여주며, 앞서 말했듯 개츠비의 저택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뷰캐넌 부부의 저택은 ‘그들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장식적이었다. 붉은색과 흰색으로 산뜻하게 칠한 조지 왕조 식민지풍의 대저택은 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변에서 시작된 잔디밭은 현관을 향해 4분의 1마일이나 달려와, 해시계들과 벽들로 포장된 산책로, 불타는 정원을 뛰어넘더니 그 끝에 여세를 몰아 밝은색 덩굴이 되어 저택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정면은 한 줄로 이어진 프랑스 식 창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반사된 금빛으로 번쩍이는 창들이 오후의 따스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¹²⁾, ‘이탈리아 식 침상 정원에는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짙은 색깔의 장미들이 반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 심어져 있었다. 해안에는 앞이 넓직한 모터보트 한 대가 물결에 코를 들이받고 있었다¹³⁾’ 라고 묘사된다. 먼저, 붉은색은 톰 뷰캐넌의 거칠고 오만한 성격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붉은색은 또한 전통적으로 왕족을 상징하는 색상이기도 하다. 붉은색, 밝은색, 금빛 모두 위풍당당한 왕족을 연상시키는 색상이다. 또한 ‘조지 왕조 식민지풍의 대저택’이라는 대목에서, 조지 왕조 양식은 영국의 조지 왕조 시대의 건축이며, 그밖에 나열되는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한때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국가이다. 뷰캐넌 부부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부유했던 본투비 전통 부자임을 생각했을 때, 이 묘사는 톰과 데이지를 나타냄에 있어 그들을 잘 표현하는 묘사라고 생각했다.

이 뷰캐넌 부부의 저택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는 개츠비다. 단적으로, 다음은 위대한 개츠비 1장 낙만이 뷰캐넌 부부의 저택을 찾았을 때의 묘사다. 방으로 스며든 산들바람 때문에 커튼이 휘날리고 와인색 양탄자도 잔물결을 일으키며 음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꿈쩍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긴 의자 하나뿐이다. 그 위엔 두 여자(데이지와 조던)가 붙잡아맨 열기구예라도 올라탄 듯 등실등실 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톰 뷰캐넌이 황 소리를 내며 창문을 단자 커튼과 양탄자, 그리고 두 여자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는다.¹⁴⁾

7장에서는 닉과 함께 개츠비가 뷰캐넌 부부의 저택을 찾는다. 1장에서 뷰캐넌 부부의 저택은 전체적으로 등실등실 떠오르고, 대부분의 것들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7장에서는 ‘약한 바람이 불며’, ‘어둑하고 시원하며’, 라는 표현 등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12)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8

13)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9

14)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p.19-20

모습을 보여주며, 1장에서 등실등실 떠 있던 데이지와 조던은 7장에서 큼직한 소파에 은제 인형처럼 앉아, 흰 드레스가 선풍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⁵⁾ 등실등실 떠오른 데이지와 조던이 톰의 창문 닫는 행위로 내려앉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톰의 거칠고 오만한 이미지,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톰의 군림적인 모습 등을 생각하면 떠올라 있는 것은 자유, 내려앉은 것은 속박의 이미지를 연결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7장에서는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조던은 닉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1장과 비교해 톰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톰의 무언가의 행위(통제) 없이도 데이지와 조던은 이미 내려앉아 있다는 것은 이 둘이 톰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개츠비와 닉에게 마음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던은 뷰캐넌 부부 저택의 일원이 아님을 생각하면, 이 저택과 저택의 일원(데이지)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개츠비 한 명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월슨 부부의 정비소

월슨 부부의 정비소는 ‘위대한 개츠비’ 소설 내에서 묘사되는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묘사되는 장소다. 이 정비소에 대한 묘사는 순수하게 칙칙함을 담고 있다. 우선 그의 정비소는 잿더미 계곡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그의 자동차 정비소는 황무지 끝에 자리잡은 작고 노란 벽돌 건물 안의 상점으로 위치해 있는데¹⁶⁾, 노란 벽돌이라고 하니 그나마 활력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도 그 앞에 ‘황무지 끝에’라는 수식이 붙으니 죽은 노란색만 떠오르게 된다. 게다가 뒤이어 그 건물 옆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되면서 월슨 부부의 정비소는 ‘활력이라고는 전부 죽어버린, 고립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또한 정비소의 내부 공간 묘사마저도 ‘내부는 장사가 잘 안 되는지 텅 비어 있었다. 자동차라고는 오직 어두운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포드 한 대 뿐이었다. 문득 자동차 정비소의 이런 칙칙한 모습은 눈 속임에 지나지 않고, 머리 위엔 호화롭고 로맨틱한 방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¹⁷⁾고 표현된다. 닉의 호화롭고 로맨틱한 방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마 진짜로 이 정도로 비루한 공간이겠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할 정도로 월슨의 정비소가 죽

15)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45

16)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38

17)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38

은 잿빛 공간임을 시사한다. 게다가 바로 전 장인 1장의 주무대가 뷰캐넌 부부의 저택이었으니 더욱 대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비소의 모습은 조지 윌슨이라는 인물을 보여줌과 동시에 머틀 윌슨의 현실에서의 삶과 절망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조지 윌슨은 그 정비소의 모습에 걸맞게 사교적이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힘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머틀 윌슨은 그런 조지 윌슨과 윌슨 정비소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머틀 윌슨이 활력 넘치는 인물임이 여러 번 묘사된 것을 생각하면, 그녀에게 있어 그런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윌슨 부부의 정비소는 지독히도 변화 없는 곳이다. 윌슨 부부의 정비소는 2장 초반에 잠깐 언급된 이후,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7장쯤 가서야 다시 조명되는데, 여기서 조지 윌슨은 ‘마누라하고 저는 서부로 가려고요. …마누라는 십 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답니다. 이제는 마누라가 원하는 말든 갈 겁니다.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¹⁸⁾ 라고 말한다. 이 대사에서 조지 윌슨이 머틀의 부적절한 행위를 눈치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마누라가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머틀이 10년 동안 변화(주거 장소의 이전)를 원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죽어버린 잿빛 공간처럼 말이다. 조지는 끝내 머틀의 불륜 대상이 톰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머틀의 10년 동안의 호소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머틀과 톰의 불륜으로 인해 변했다는 사실은 톰이 미친 영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잿빛 윌슨 정비소와 같이 정말 웬만한 것에는 변하지 않는 조지의 내면까지 잿빛으로 물든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4. 158번가의 아파트

158번가의 아파트는 본문에서 알아보는 집들 중 가장 독특한 공간이다. 이곳은 누구의 주거공간이라기보다는, 톰과 머틀의 불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58번가의 아파트라는 공간 묘사를 읽을 때 주목할 인물은 톰과 머틀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 맨 꼭대기에 위치한 158번가의 길게 잘라놓은 흰 케이크 같은 아파트에 머틀은 왕궁으로 돌아온 왕족처럼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선다. 하지만 이 장소의 결말은 어떠한가? 데이지의 이름을 몇 번이고 외치는 머틀에게, 톰은 빠르고 능숙하게 손바닥으로 그녀의 코를 후려치고, 화장실 바닥에는 피 묻은 타일들과 여자들의 비난과 고통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으로 가

18)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55

득 차게 된다.¹⁹⁾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다’는 수식은 처음에는 왕족처럼 당당하게 들어선다는 묘사 때문에 머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장을 다 읽고서는 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생각해보면 이 158번가의 아파트에 집을 구한 사람은 가난한 머틀이 아니라 톰일 것이다. 또한 그녀의 코를 후려치는 것이 ‘빠르고 능숙했다’는 것을 보면 톰이 머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때가 처음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맨 꼭대기에서 군림하며 오만하게 모두를 내려다보는 존재는 머틀보다 톰에게 어울리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158번가의 아파트는 머틀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머틀 윌슨은 158번가의 아파트로 가는 길에 신문 가판대에서 <타운 태틀>과 영화 잡지를 하나 산다.²⁰⁾ 그리고 158번가의 아파트 탁자 위에는 <타운 태틀> 과월호 몇 권과 <베드로나 불린 시몬>이라는 책,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스캔들이 실린 싸구려 잡지들이 널려 있었고²¹⁾, 마지막에 톰에게 맞아 꽤 많은 피를 흘리는 머틀은 망연자실해하면서도 베르사유의 풍경이 그려진 태피스트리 장식을 더럽히지 않고자 그 위에 <타운 태틀> 과월호를 펼친다.²²⁾ 158번가의 아파트가 주무대가 되는 2장 내내 머틀은 가난하며 보잘 것 없는 남편인 조지를 비난하며 자신은 그런 비루한 남자와 살아갈 여자가 아님을 연신 피력한다. 그녀에게 있어 그녀와 어울리는 남자는 돈 많고, 자신과 같이 활력 넘치는 톰이며 톰은 테이지와 헤어져 머틀과 맺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타운 태틀>이라는 값싼 월간 잡지가 머틀의 현실의 삶, 그리고 베르사유의 풍경이 그려진 태피스트리 장식이 머틀이 선망하는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을 때, 톰에게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그 피를 <타운 태틀> 과월호에 흘리고자 하는 모습은 그녀의 꿈(베르사유의 풍경이 그려진 태피스트리 장식, 톰과 맺어짐)은 설사 톰이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라고 해도 변치 않을 것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158번가의 아파트는 작은 거실, 작은 주방, 작은 침실과 화장실이 있는 집임에도 거실은 태피스트리를 씌운 가구 한 세트로 문간까지 딱 차 있으며, 거실에 비해 가구가 너무나 큰 장소다.²³⁾ ‘작은 거실, 주방, 침실’은 머틀의 현실의 삶을 상징하지만 그 공간에다 지나치게 큰 가구들을 채워놓는 것은 머틀의 그녀가 선망하는 삶에 대한 선망의 크기와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작은 공간에 너무나 큰 가구들을 들여놓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부

19)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52

20)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40

21)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43

22)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52

23)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43

분이 ‘베르사유 정원에서 그녀를 타는 여자들이 그려진 부분’²⁴⁾이라는 것은, 그녀의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종합하여 158번가의 아파트는 머틀의 장밋빛 꿈이 현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실제 상은 머틀의 장밋빛 꿈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며, 머틀의 장밋빛 꿈은 어설프게만 구현되고, 그녀가 원하는 행복은 공허하기만 하다는 곳을 보여주어 머틀을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주거공간이 톰의 군림과 머틀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158번가의 아파트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인물이 없어도 마지막에 톰이 머틀에게 폭력을 휘두른 모습에서 그 상징들을 이미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158번가의 아파트 이야기를 완결지어도 되겠다는 작가의 생각이 아닐까 싶었다.

5. 데이지의 저택

사실 데이지가 결혼 전에 살았던 루이빌 저택 묘사는 본문에서 다루는 모든 집들 중에서 가장 적었다. 조던과 개츠비의 회상에서만 잠깐 묘사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처음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을 때는 데이지가 결혼 전에는 루이빌이라는 곳의 대저택에 살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꼼꼼히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며 발견한 데이지의 저택은 주거자인 ‘데이지’를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여줬다. 조던은 데이지의 루이빌 저택을 회상하며, ‘그 중에서 제일 큰 배너를 달고, 제일 넓은 잔디밭이 있는 데가 바로 데이지네 집이었답니다’²⁵⁾라고 말한다. 그에 걸맞게 데이지는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며 모든 여자들과 남자들의 선망을 받는 존재이다. ‘제일 크고, 제일 넓은’이라는 수식어답게 데이지는 단순히 부유하고 인기 많은 여자를 넘어 공주님이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집은 현관부터 돈을 주고 산 별빛 같은 사치품들로 눈이 부신 장소이다.²⁶⁾ 현관부터 별빛 같은 사치품들로 차 있다는 건, 공주님 데이지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그에 걸맞게 부유하든, 권력자이든, 대단한 존재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존재는 현관에서부터 데이지를 넘볼 수 없다고 시위하는 모습처럼 느꼈다. 데이지의 주거공간은 이렇듯 저 하늘 꼭대기 위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듯한 데이지를 잘 보여줬다.

24)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43

25)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95

26)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86

그런데 이 데이지의 주거공간에 ‘제이 개츠비’라는 존재가 들어선다. 하지만 제이 개츠비는, 데이지의 주거공간에 들어와 섞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 그의 부모는 가난했고, 그의 집은 형편없는 공간이었으며, 그는 왕자님과과는 어느모로 보아도 먼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 개츠비는 데이지의 루이빌 저택의 그 어떤 모습도 바꾸지 못했다. 데이지의 집이 그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신비롭고 유쾌해 보인 것처럼²⁷⁾, 개츠비에게 데이지의 집은 그의 선망의 대상이자 꿈과 상상과 행복만이 가득한 대상으로써 마음껏 그러지지만 현실에서 데이지의 루이빌 저택은 개츠비를 만나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변화하지 않는다.

Ⅲ. 결론

개츠비의 저택, 뷰캐넌 부부의 저택, 윌슨 부부의 정비소, 158번가의 아파트, 데이지의 저택은 모두 각각 그 주거공간의 주요 인물인 개츠비, 뷰캐넌 부부, 윌슨 부부, 톰과 머틀, 데이지라는 인물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으며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미래를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주거공간들은 다른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예로 개츠비의 저택은 데이지의 존재와 개입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톰의 개입은 개츠비의 회극, 개츠비의 저택을 그야말로 박살내 버렸다. 그런가 하면 데이지의 저택은 개츠비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톰의 영향으로 인해 조지가 정비소를 떠나 서부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처럼, 아예 주거 장소의 이전으로 변화의 방향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158번가의 아파트는 2장에서 그의 모습에 계속 머무르다 머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습 그대로 완결해 사라져버렸다.

종합적으로 위대한 개츠비의 공간 묘사는 충분히 이런저런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많았으며, 어떻게 공간을 묘사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 그 공간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주목해서 위대한 개츠비를 독서해보는 방법도 1920년대 미국과 결부지어 생각하거나 색채 이미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읽어보는 방법들 못지않게 추천할 만한 하나의 독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세상에 읽어볼 책들이 얼마나 많으며, 어지간히 인상 깊었던 책이 아니면 한 권만 여러 번 읽어보느니 그 시간에 다른 책은 한 권 더 읽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와예술명

27)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문학동네, 2009, p.190

작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퀴즈 준비, 발제 준비라는 다소 불순한(?) 목적으로 여러 번 책을 독서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는 눈치 채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는 재미를 알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공간 묘사를 통해 새롭게 알아본 위대한 개츠비’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또다른 특정 목표를 갖고 재독(再讀)하는 것의 즐거움 또한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여러 번 읽어보는 것’과 ‘어떠한 특징에 주목하며 읽어보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었고, 보다 흥미 있는 독서가 가능했다. 만약 누군가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이러한 독서법을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권력자에 의한 공간의 통제와 그 속에서의 개인 -영화 「괴물」을 중심으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세빈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 분리되는 공간과 왜곡되는 개인

[참고문헌]

I. 서론

‘도시는 사회 구조가 공간에 투영된 것이다¹⁾’라는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도시는 역사적 사건, 국가의 운영, 사회의 분위기, 경제와 같은 사회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분리되고 계급화 되어 있듯이 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의 공간으로 분리되고, 분리된 공간들은 서로 상이한 계급적 특징을 갖게 된다. 특히 경제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전 지구화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글로벌시티’라 불리는 도시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로 인해 도시 안에서의 공간과 계급의 분리는 더욱 대두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시티 중에 하나인 서울에서의 한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강은 한국 사회에서 부유함을 상징하는 강남지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강북을 가지적으로 분리해주는 기준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한강은 ‘한강뷰(view)’로써 한강 주변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를 다른 거주지와 차별화되고 분리되게 해주며 한강 그 자체가 부유함을 상징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는 도쿄에서도 스미다가와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고급 주택지인 아마노테와 서민들의 공간인 동쪽의 시타마치를 통해 서울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도시의 공간과 계급의 분리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시티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과 계급의 분리는 현실을 반영한 여러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담은 영화 「괴물」이 그 중 하나다. 「괴물」은 도시의 공간과 계급의 분리와 함께 그 분리된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이 받고 있는 영향까지도 보여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화 「괴물」을 통해 작품내의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과 계급의 분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론1에서는 공간과 계급의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권력자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며 이를 「괴물」에 적용해볼 때 나타나는 영화 내에서의 계급에 따라 분리된 공간과 그 속에서의 개인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론2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분리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공간의 분리와 함께 자행되는 계급의 고착화와 계급 간 격차의 심화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통해 영화의 결말에서 강도가 한강을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이 계급적 편견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하시모토 겐지, 「계급도시」, 킹콩북, 2019, p41, 재인용

II. 본론

1. 권력자의 통제에 의한 공간의 분리 - 한강이 괴물의 서식지가 된 이유

1) 직업 구조를 중심으로한 공간의 분리

공간의 분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본주의에 따른 경제로, 경제의 흐름 속에 놓인 현대의 대도시는 직업 구조에 따른 계급별로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도시의 양극화에 대해 사스키아 사센과 마누엘 카스텔이 글로벌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서의 직업 구조는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그리고 이들의 업무와 생활을 보조하는 노동자 계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종사하는 중간 계급의 경우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 대도시에서 제조업이 빠져나온 자리는 글로벌시에서 핵심 노동을 담당하는 고소득층, 즉 상류층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바뀐 공간의 가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의 하류층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직업 구조에서 관리자 계급을 차지하는 상류층이 경제 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이용해 특정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다양한 직업 구조로 구성되어있던 그 공간은 획일화된 계급 구조를 갖게 되며 하류층이 이주하게 되는 공간과는 분리되는 것이다.

상류층 차지하게 된 공간은 이제 그들의 자산으로 권력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상류층들은 교육, 정책, 교통, 편의시설과 같이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를 재생산해낸다. 반면에 하위계급에 속한 개인들은 권력자들의 통제 아래에서 재개발에 의해 공간을 상실당하거나 계속해서 대도시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2) 괴물에서 나타나는 한강의 분리

이러한 하위계급의 특징을 「괴물」에서의 강도가족에게 적용하여 볼 때 이들은 서울의 중심인 한강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강은 물리적으로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성은 거주지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공간이다. 강도와 현서, 희봉이 지내던 곳이 컨테이너 매점이라는 점과 보통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점을 보아 이들의 공간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들이 제대로 된 거주지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

2) 하시모토 겐지, 「계급도시」, 킹콩북, 2019, p69, 재인용

적으로 가장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임을 나타낸다. 또한 영화 내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자살을 선택하는 자가 도달하는 곳은 한강다리였으며, 강두가족 이외에 한강에 거주하는 존재들이 노숙자, 고아, 괴물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물들이라는 것 또한 이를 증명한다. 즉 강두 가족도 결국 상류층의 통제에 의해 분리된 공간에 거주하는 하위계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이 존재하는 한강은 사회적 보호 밖에 존재하는 취약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이 한강이 괴물의 서식지가 된 이유다. 소외계층들에게는 거주지로서 생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상류층들에게 한강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혹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뿐 생존과는 무관한 공간이다. 따라서 미군 장교 맥팔랜드가 한강으로의 포름알데히드의 방류를 지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강이 권력자인 상류층의 이익과는 무관한, 관심 밖 공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괴물을 잡기 위해 생명에 치명적인 에이전트엘로우를 한강에 살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이유를 갖는다. 다시 말해 한강은 권력과 분리되어있는, 소외된 하위계급의 공간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통제에 의해 조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권력자의 공간에서의 개인들

공간에 대한 권력자들의 통제는 「괴물」의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괴물에 의한 피해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이루어지던 장소 또한 권력자들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권력자들이 직접 구성한 공간으로써 그들에 의한 조작이 가장 용이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의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개인들은 권력자들의 사회적 명예를 위한 기삿거리 취급을 받으며 자세한 설명 없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된다. 이렇게 강제로 이동당하는 개인들의 모습은 상류층의 통제에 의해 도시에서 공간을 이동 당하게 되는 개인들의 모습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상류층의 이익을 위해 공간이 상품이 되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게 되는 현대 사회의 개인들이 그러하듯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이송된 병원 또한 또 다른 권력자의 공간이다. 병원 내에서 지시에 따라 병실을 배정받고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모습 또한 도시에 서의 피지배 계급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2. 공간의 통제가 초래하는 문제점

1) 권력의 재생산

도시에서 공간의 소유는 경제적 지위이자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다.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은 자신의 권력의 범위가 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거주지만으로도 경제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과, 부동산 투자의 성행, 월세 이용한 건물주의 행패 등과 같이 흔히 발생하는 현상들에 의해 증명된다. 따라서 상류층은 공간의 소유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간의 통제를 시도한다. 그 결과 상류층 거주지의 경우 그들의 권력에 의해 양질의 교육과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대물림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형성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하류층이 불만을 갖고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가 이용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는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학교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도록 작용한다.³⁾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강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한강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이윤창출 혹은 권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상류층의 공간과는 달리 거주민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 속에서 강도가족은 한강에 나타난 괴물로 인해 가족 구성원과 유일한 이윤 창출의 수단이던 매점의 상실을 겪으며 희봉의 전 재산까지 잃게 된다. 또한 영화내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묘사되진 않았지만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였던 남주는 지명수배자가 됨과 동시에 그 명예와 함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던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즉 그들에게 어떠한 보호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하고 취약한 공간으로 인해 강도가족은 직접 현서를 구하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경제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이 지위를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계층의 하향 이동성이 차단된 상류층과는 달리 취약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강도 가족과 같은 하류층에게는 하향이동의 위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류층에게 계층 상승을 막는 유리천장이 상류층에게는 유리바닥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의 분리된 사회에서 상류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더 커지고 하류층의 몫은 적게 만들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은 더 부유해지며 하류층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결국 생존 자체를 위협받

3) 하시모토 겐지, 「계급도시」, 킹콩북, 2019, p79 재인용

게 만든다.

한편 이러한 하류층의 최저 생활을 보호해줘야 하는 국가 권력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상류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류층은 위협에 놓여있다. 강두 가족의 경우에도 괴물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고, 현서의 구출을 위해 경찰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등 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보균자로서의 낙인과 무시였다. 결국 국가권력이 인정하는 합법의 수단은 강두가족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강두가족은 병원에서의 탈출, 하청업체의 위장을 통한 한강 침입, 지인을 통한 현서의 위치추적 시도 등과 같이 불법적 수단을 행해야 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용인하는 합법의 범위가 권력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류층 권력에 의한 통제와 억압에 의해 강두가족은 하류층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하위 계층을 재생산하게 된다. 영화 결말에서 강두는 눈 내리는 한강에 위치한 매점에서 세주와 저녁을 먹는다. 강두와 세주에게 한강은 괴물을 마주하고 가족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공포의 경험이 발생했던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거주지를 벗어나는 대신 공간의 취약성을 경험한 강두는 총을 소지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강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그에게 취약한 공간을 벗어나는 능력이 없는 사실에 기인한다.

글로벌 시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은 앞서 본론1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본래 거주하던 이들은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등 교통비를 부담해서라도 도심에서 떠나 더 좋은 주거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주할 능력이 없는 상대적으로 더 하위의 거주자들은 판자촌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야 되거나 혹은 아예 공간의 상실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본래 하류층에 속했으며 심지어 전 재산을 상실한 강두 가족은 공간을 이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두 가족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상실의 고통과 위협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공간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강에서의 거주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들이 하위 계급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권력의 재생산되는 모습을 암시한다.

2) 계급 간 소통의 단절과 하류층의 소외

도시의 공간이 분리되고 사람들 또한 계급에 따라 각각의 공간으로 분리되면서 각 공간의 거주자들과 이에 기인하는 여러 공간의 특성들은 획일화된다. 즉 각 공간에 거주하는 계층의

속성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며 내 이웃과 나의 동일성이 더 커지게 되고 다양성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한편 현대 사회의 상류층은 사회 내에서 부를 얻는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경쟁의 기회조차 독식하고 있다. 결국 도시에서의 계층 간의 격차는 계층 간의 경쟁까지 차단함으로써 서로 간의 소통이 끊어지게 만든다.

상류층은 하류층을 자신들로부터 분리하고 그들과 경쟁까지 차단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은 결국 상위 계층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학부모들이 자신들보다 낮은 계급을 암시하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배정받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은 상위 계층에 의한 단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서울 이외에 기타 신도시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 사이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계층 간의 단절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하류층 사람들을 이질적이고 하등한 존재로 타자화하며 사회에서 하류층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괴물」에서도 이러한 소통의 단절이 나타난다. 현서의 전화를 받은 강두와 이를 전해들은 나머지 가족은 이 사실에 대해 경찰에게 설명하며 위치추적을 요청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믿지 않고 조롱한다. 또한 경찰뿐만이 아니라 의사 또한 강두의 말과 행동에 대해 정신적 비정상적 상태라고 말하며 무시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강두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하위 계급에 위치한 이들의 사회적 무력함에 대해 인지하고서 그들을 무시함과 동시에 신뢰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즉 강두 가족의 생각과 말,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자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화의 전반적인 전개에서 강두 가족이 보균자로 진단이 내려지는 과정은 모두 권력자에 의해 진행되며 강두 가족은 일방적으로 보균자로 정의 내려지고 배척당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외국인 의사에 의해 강두는 자신에게 어떤 진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인지조차도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하류층인 강두가족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단당하는 현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 분리되는 공간과 왜곡되는 개인

도시에서의 공간과 계층의 분리는 과거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사대문 안과 밖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하지만 선천적인 계급의 중요성이 가시적으로 명백하게 존재하던 과거의 신분제 사회와 달리, 길으로는 현대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

면서도 그 이면에는 공간에 기반하는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계급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폐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은 결국 사회의 개인에 대한 시선과 평가를 왜곡시킨다. 영화 초반에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 한가롭던 한강에 소동이 발생하고 모두가 괴물로부터 도망칠 때, 강두는 도널드 하사와 함께 괴물에 의해 사람들이 죽고 있는 컨테이너를 향해 달려가 사람들을 구출한다. 또한 도널드 하사와 함께 괴물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며 괴물에게 잡힌 도널드 하사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그리고 그는 잠을 자다가도 누군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현서를 외치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구해야한다는 집념으로 마취 주사의 효과까지도 극복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용감하고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강두지만 사회적 시선은 그의 어리숙함과 빈곤에 집중하여 그를 정의 내린다. 이로 인해 강두는 격리를 거부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기적인 인간, 딸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부모,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들이라는 부정적 존재가 된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인물이다. 어린 시절 남의 밭에서 작물을 서리해 먹던 그는 한강의 매점을 서리하던 세주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에 의해 세주는 집 없이 떠돌던 과거와는 달리 공간을 얻게 되고, 비록 공간에 의한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경계 어린 시선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강두의 보호를 받게 된다. 즉 강두는 자신보다 더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있던 세주를 조금이나마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당긴다는 점에서 하류층을 자신과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권력자들과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두의 딸 현서도 강두와 마찬가지로 권력자들과 상반되는 공간을 공유하는 태도를 지닌다. 괴물에게 잡혀온 하수구에서 현서는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인 세주와 상생하며 더 나아가 세주를 보호하고 희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괴물」은 계층 간의 분리와 그의 고착화, 그리고 이로 인한 하류층의 일방적 소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강두와 현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평가하기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써 함께 상생하려는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우리도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주변과 함께 상생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실용 글쓰기

[외국인 대상 서울시 따릉이 관광 로드맵 기능 추가 방안] 따릉이와 함께 하는 서울 여행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경수빈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권서현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소이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효주

I. 프롤로그

II. 현황과 진단

- ① 문제 현황
- ② 문제 인식
- ③ 아이디어 제안

III. 해결방안

- ① 앱 사용방법 및 핵심 기술
- ② 테마별 로드맵 가이드라인
- ③ 로드맵 업데이트 방안
- ④ 따릉이 관광 로드맵 홍보방안
- ⑤ 비용

IV. 기대효과

- ① 개인적 측면
- ② 사회적 측면

I. 프롤로그



“어른들은 회사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왜 제 바퀴
는 돌아가지 않나요..?”

서울 곳곳에서 초록빛을 띠고 서 있는 제 이름은 마롱이입니다.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예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기 위해 뛰어와 주거든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끝나고 평일 오후가 되면 다시 외롭게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해요.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은 정말이지 지루하답니다. 두 바퀴로 사람들과 서울 곳곳을 쉬지 않고 누비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옛것의 고즈넉함과 현대의
편리함이 어우러져 있다는 대한
민국 서울, 저도 함께 보고 즐
기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처음 와 본 제 이름은 다이애나입니다. 설레고 들뜬 마음을 가득 안고 도착한 한국에서 본 자연환경과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면 목적지로 가지 않는 버스를 탈 수도 있다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저를 덮쳐옵니다. 모처럼 놀러 온 한국에서 더 많은 곳을 가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여행이 더욱더 뜻깊어질 수 있을까요?



따릉이의 외로운 마음과 다이에나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외국인들이 더 쉽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관광하고, 따릉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따릉이 관광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II. 현황과 진단

1 문제 현황

〈서울 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탄소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다. 따릉이는 주변 생활 시설 접근 및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인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1540곳에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의 대여와 반납이 무인으로 이루어져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여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¹⁾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인 따릉이는 올해 누적 대여 건수 3,000만을 넘고, 총회원 수는 166만 명이 가깝다. 또 2019년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5만 2천 명이 따릉이를 이용해 전년 대비 이용자가 88% 증가했고, 57만 명이 따릉이에 신규 가입했다.²⁾ 어느새 따릉이는 서울시의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릉이의 이용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8시~9시, 오후 6시~7시에 4km 이내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따릉이 대여가 5,000건에 가까운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것은 서울의 많은 사람이 따릉이를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근 시간 외 평일 오후 시간대에는 2,000건 안팎으로 따릉이가 이용되고 있다.³⁾



2018년 서울시가 서울 관광재단과 함께 실시한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

1) 서울자전거 따릉이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ikeseoul.com/main.do#bike_info

2)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계자료, 2019.11.03.

3)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계자료, 2019.11.03.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리나라 17개 시도 중 외국인이 한국 여행 중 방문하는 지역 1위는 바로 서울이다. 18년 기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79.4%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은 59.1%로 지하철이 1위, 27.2%로 택시가 2위, 9.25%로 버스가 3위를 차지해 순위권 내에서 자전거는 찾아보기 힘들다.⁴⁾ 실제로 따릉이를 사용하는 외국인 수는 하루 평균 118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의 0.1%에 그쳤다.

② 문제 인식

1. 따릉이 문제점

1) 치중된 이용 목적과 시간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자전거가 이용되게 하려는 따릉이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따릉이가 서울시에 정착된 지 4년이 되면서 따릉이의 사용률도 증가하고, 출퇴근 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따릉이의 사용 시간과 목적이 이른 아침과 저녁, 출퇴근에만 집중되어 평일 오후 시간에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이용자 중 10%로 찾아보기 힘들다. 여가생활, 운동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따릉이가 사용될 수 있음에도 출퇴근 목적의 단거리 이동에 집중된 것은 따릉이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부재

따릉이 이용객 중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의 0.1%이다. 외국인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외국인에게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따릉이를 알 수 있게 홍보하는 인터넷 내 게시물, 포스터, 팸플릿은 매우 적고, 찾기도 힘들다. 외국인에게 따릉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용 방법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한국으로 관광을 와도 보편적인 교통수단만 선택한 것이다. 외국인 중 따릉이를 이용해 본 외

4) 서울시, 서울 관광재단,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2019.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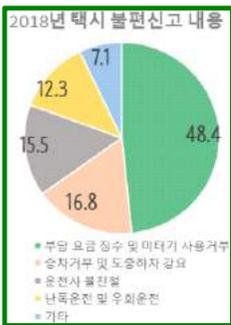
국민은 평균적으로 따릉이를 72.6분 동안 명동, 광화문 등 관광 명소를 둘러보기 위해 사용한다. 이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2.7배 정도 더 오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내국인이 따릉이를 적게 사용하는 평일 오후 시간대에 따릉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3) 루트 파악의 어려움

따릉이를 처음 타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바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갖춰져 있는지, 어디에 따릉이를 보관해놔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릉이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따릉이를 이용하는 곳이 회사 근처, 한강 근처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따릉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트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따릉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외국인들이 따릉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관광할 수는 없을까?**

2. 외국인 문제점 - 서울 관광 시 어려웠던 점을 중심으로



1) 택시 이용의 불편함

앞서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는 택시가 높은 순위에 있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택시 이용에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접수되었던 택시 불편 신고 내용을 분류해보면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거부”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주행 거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다.⁵⁾ 지리를 잘

5)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2019.02

모르는 외국인들은 택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외국인들에게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택시 요금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택시 요금 부당 징수에 대해 걱정하며 친구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여행 상품에 대한 불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거나 서울 지리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서울을 여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을 완전히 잃어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1,000여 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2018년에 접수되었던 여행사 불편신고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안내 서비스 불량”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았다. 이는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관광 일정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가이드가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나타낸다. 기타의견으로 ‘주로 여행지에서는 단시간 체류에 그쳤지만, 쇼핑점에서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체류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으로 보아,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사는 다소 평범한 일정보다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하는 외국이 관광객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⁷⁾

=> 외국인에게 믿음직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관광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6)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15회, 박성하 연출, MBC every1, 서울, 2017.07.27. ~ 방영중.
7)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2019.02

③ 아이디어 제안 - 네덜란드 사례 중심으로

인구수 보다 자전거의 수가 더 많은 나라가 있다. 바로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의 인구는 1,700만 명이지만, 자전거는 무려 2,500만대에 달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의 경우 일찍이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은 1990년대부터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웠으며, 현재는 자전거가 도시계획을 위한 중요 전제조건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⁸⁾

네덜란드 정부는 2016년에 ‘Bicycle Agenda’를 발표하였다. 이의 목적은 자전거당 전용도로 길이 20% 확대, 자전거 거치 공간 확장, 자전거 사고 건수 줄이기의 시행이었다. 또한, LF라는 농지, 도시, 해안 등의 테마를 갖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정해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전폭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런 정부의 지원 아래 네덜란드인들은 자전거 여행에 매년 5억 1300만 유로를 지출할 정도로 여가활동에 자전거를 애용하고, 1인당 연간 880km를 달리는 정도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⁹⁾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제안자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 아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테마별 자전거전용도로인 ‘LF’를 서울시의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에 벤치마킹하여, 이를 서울시를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따릉이라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 용도로 따릉이를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따릉이라는 공유자전거 시스템과 서울시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로드맵 설정을 기획한다면 관광 용도의 따릉이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 로드맵이 아닌, 역사, 휴식 등등의 테마별 로드맵과 관광 가이드처럼 그 명소들을 설명해주는 시스템은 한국에 단기간 머무르고,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들은 스스로 원하는 테마의 로드맵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효율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마별 로드맵을 설정한다면 앞서 밝힌 외국인 측면의 문제점, 따릉이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미현, 「자전거 천국 네덜란드와 국내 공공자전거의 시초 창원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통권590호, 2018, pp. 46-49

9) 이소정, 「네덜란드의 탄탄한 자전거 인프라」,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

으로써 한국의 명소들에 담긴 의미에 대한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모든 설명을 본 후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길 안내가 시작된다.

2. 앱 핵심 기술

로드맵 배너 추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음성안내 서비스와 GPS 내비게이션이다. 두 기능 모두 카카오맵, 구글맵, 네이버 지도 등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기능이다. GPS기능과 음성안내 서비스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 앱에서 두 가지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따릉이 로드맵에도 적용해보고자 한다.

1) 음성안내 서비스

카카오맵, 구글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길 안내가 시작되면 음성안내가 함께 시작된다. 길 안내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가까워지면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해 미술관 도슨트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음성안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4개 국어로 제공된다. 국내 거주자들의 목소리 기부로 음성안내가 진행된다. 서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관광지를 소개해줌으로써 함께 서울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음성안내 서비스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전거 주행 중 이어폰 착용은 위법이 아니므로 도로 주행 중 이어폰을 사용해 구체적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소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 없거나, 자전거 주행 중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안내 기능을 종료할 수도 있다.

2) GPS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존 따릉이 앱에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가 이미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GPS 기능을 활용해 길 안내 기능을 활성화하면 다른 내비게이션 앱처럼 따릉이 앱에서 로드맵대로 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다.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이 그렇듯, 따릉이 길 안내도 실시간 교통 정보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용자가 경로 이탈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가는 위치, 가야 할 방향을 앱 지도로 안내해줌으로써 사용자가 길을 찾는 데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따릉이를 보관할 따릉이 보관소도 함께

안내해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 혼잡함이 없게 한다.

② 테마별 로드맵 가이드라인

1. 서울숲 일대 힐링 여행 “서울 도심 숲 속에서 피톤치드 향에 빠지다.”

소요시간 : 45분 내외
 루트 : 광나루역 → 한강 → 독섬유원지 → 서울숲 → 곤충 박물관, 생태숲 →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서울의 많은 자전거 도로 중 한강 중심으로 북 쪽과 남쪽에 총연장 300km의 국내 최장 자전거 도로망이 조성되어있다. 특히, 한강 자전거 도로망은 강변 둔치를 이용하여 경지도 좋고, 길이 평탄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긴 한강 자전거도로 중 북쪽 도로의 광진교에서 서울숲까지 이동하며 관광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보았다. 대여소 576. 광나루역 3번 출구에서 따릉이 대여하면서 힐링 여행이 시작된다. 아차산로를 따라 이동하면 한강이 보인다. 이때부터는 한강과 경치를 감상하며 자전거 길을 따라 독섬유원지까지 간다. 잠시 자전거를 세워두고 한강을 보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외국인들에게겐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휴식을 취했다면, 서울숲으로 이동한다. 서울숲에서는 곤충식물원, 생태숲 순으로 구경을 하며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을 즐겨본다. 서울숲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면 서울숲 일대 힐링 여행을 마무리한다.

2. 광화문 일대 역사 여행 “서울의 중심에서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소요시간 : 25분~30분
 루트 : 청계광장, 청계천 → 서울광장 → 남대문시장 → 덕수궁 돌담길 → 제일교회, 경동극장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 북촌한옥마을



자전거를 타고 광화문 주변의 명소를 지나가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명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것이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들도 많기에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적합하다. 볼거리와 더불어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으므로 한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도 이 로드맵을 추천한다.

자전거를 타고 광화문 주변의 명소를 지나가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명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것이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들도 많기에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적합하다. 볼거리와 더불어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으므로 한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도 이 로드맵을 추천한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는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이 자전거 로드맵에서는 광화문역 5번 출구 앞 대여소를 추천한다.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 전, 청계광장 앞에서 ‘스프링’이라는 거대한 조각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청계광장을 지나 광교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청계광장으로 되돌아온다. 다음으로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이 위치한 서울광장 쪽으로 향한다. 서울도서관의 건물은 서울 옛 청사의 건물로, 자전거를 타며 이를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 후 SK텔레콤 남산사옥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를 정거하고 한국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대문시장을 구경하고 식사를 해결한다. 다시 자전거를 대여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덕수궁 돌담길로 빠진다. 덕수궁 돌담길을 거쳐 정동극장과 한국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건축물인 정동제일 교회를 둘러본 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간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안내 음성을 들으며 한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복궁 오른쪽 길로 빠져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동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를 정거하고, 감성적인 카페들로 유명한 삼청동과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북촌한옥마을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자전거 여행을 마무리한다.

③ 로드맵 업데이트 방안

1. 관광 로드맵 공모전 실시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관광 로드맵을 제공해야 하므로 새로운 관광 로드맵 개발과 앱 안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새로운 관광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이벤트성 로드맵 공모전을 실시해 국민이 추천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두 달에 한 번 한가지 로드맵 테마를 정해 공모전을 실시해 테마와 관련된 루트를 신청받는다. 자전거 루트, 소요 시간, 추천 루트의 장점을 공모 내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후 관계자가 루트의 안전성, 소요 시간, 주제 적합성 등을 고려해 5가지 추천 루트를 선정한다. 5개의 로드맵에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따릉이 이용권(180일 2시간)을 상품으로 지급한다.

이후 관계자들이 인근 지역의 명소를 더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완해 최종 로드맵을 완성한다. 한 가지 주제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루트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선택지를 넓혀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내국인이 직접 경험한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에 대한 흥미가 높을 것이며, 서울 곳곳을 자세하게 관광할 수 있다. 단, 앱에 보이는 전체 로드맵 수는 60개로 제한한다. 2년이 지난 로드맵 중 조회 수가 낮은 것은 삭제하며 따릉이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루트를 트렌드에 맞게 제공해 로드맵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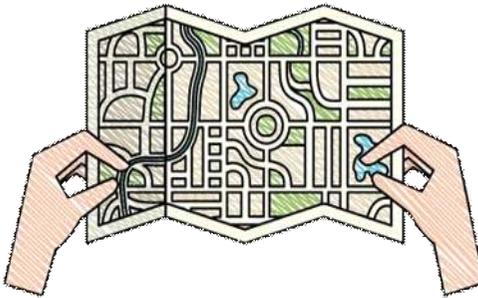




따릉이 로드맵 공모전은 SNS와 따릉이 공식 사이트, 앱에서 홍보한다. 홍보할 때는 주의사항, 제출기한, 로드맵 테마 주제를 공지한다. SNS는 공모전을 홍보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공식 사이트나 앱에서만 공모전 참가가 가능하다.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루트를 받아 새로운 루트들이 추가되면 따릉이 관광 로드맵 이용자들이 더 새롭고 다양한 서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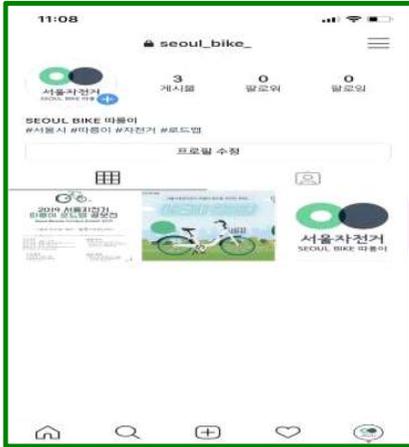
4 따릉이 관광 로드맵 홍보방안

1. 종이지도



외국인들에게 따릉이와 관광 로드맵 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종이 지도를 제작해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배치한다. 제작된 종이 지도는 B5 용지 크기로 휴대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종이 지도에는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대표적인 따릉이 로드맵, 따릉이 사용 방법 등을 제시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끈다. 또 외국인들이 쉽게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앱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해 편리성을 높인다. 제작된 종이 지도를 인천 공항, 서울역, 명동역 등 외국인 방문 빈도가 높은 곳에 비치해 외국인들이 따릉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종이 지도 내용을 서울시 공식 사이트, 공식 블로그, SNS에도 올려 인터넷으로도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2. SNS



두 번째는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다. Track Maven의 연구 결과¹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년까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수는 24.4억 명에 달하거나 전 세계 인구의 33.3%를 차지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미 2015년에 처음으로 주요 5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 핀터레스트)는 월 실제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부터 국가별 SNS 기자단을 운영하며 한국의 관광 매력을 13개 SNS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개해왔다. 기자단은 2018년 3만1,000여 건의 관광 정보를 올렸으며 댓글, 공감 수는 모두 합쳐 2,700만 건에 달했다.¹¹⁾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SNS를 통해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SNS 홍보는 필연적이다. 앞서 언급한 5개의 주요 SNS에 파릉이 전용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고, 서울시 공식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파릉이 로드맵 관광'을 설명하면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릉이의 현황, 로드맵 미리 보기, 로드맵 공모전 등을 기재해 파릉이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외국인 이용자들에게는 파릉이를 홍보한다.

5 비용

제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서울시 공용 자전거 파릉이에는 핸드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본 제안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로드맵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사용자들이 자전거 주행 중에 로드맵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 거치대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전체에 사용 가능한 파릉이는 20,000대이므로 20,000대 전체에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로드맵 실행자뿐만 아니라

10) TrackMaven | Marketing Analytics Software, <https://trackmaven.com/>

11)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시선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생한 관광정보를 알린다!, 2019.4.18.

따릉이를 사용하는 내국인이 지도를 실행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효율적일 것이다.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종이 지도와 따릉이 공모전 홍보 배너를 제작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 음성안내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한 로드맵을 추가하고, 매달 공모전에서 선정된 로드맵을 추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앱 하나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5,000,000원이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에 당선된 국민에게 따릉이 2시간 이용권(30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2시간 이용권(30일)은 7,000원이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매해야 하지는 않지만, 지급된 이용권 금액은 벌어들일 수 없으므로 지출에 포함해 예산 계획에 넣었다.

품목	개수	단가	금액
종이지도 제작비 (B5 2단 리플렛)	10,000장	65.99원	659,900원
핸드폰 거치대 설치비	20,000개	990원	19,800,000원
로드맵 공모전 홍보비 (배너)	100개	16,900원	1,690,000원
앱 유지관리비	X	5,000,000원	5,000,000원
공모전 상품 구매비 (180일 2시간권 1년)	30매	20,000원	600,000원
총	금	액	27,749,900원

IV. 기대효과

① 개인적 측면

1. 교통비 절약 및 시간 제약 없음



외국인들의 주된 교통수단 중에는 택시와 버스가 있다.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이며 운행 거리 2km 이후에 132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또한,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용할 경우, 운행요금에 할증이 붙기 때문에 늦게까지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택시 이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요금은 1,200원이며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10km 이상부터는 5km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다. 첫차와 막차 시간이 버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따릉이는 기본요금이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365일 24시간 동안 어느 시간대이나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② 사회적 측면

1.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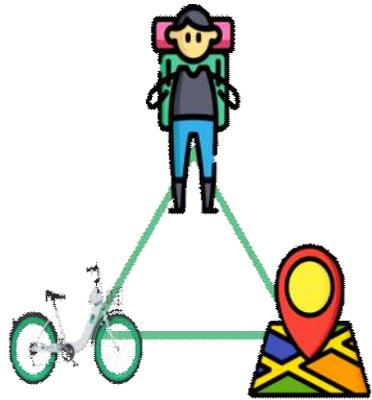
따릉이를 이용한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어 이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로 대만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만은 사계절 내내 온난한 기후를 갖고 있으며 넓고 평평한 공원과 자전거도로가 많아 자전거를 타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만 르웨탄 자전거 도로]

산, 하늘, 바다, 강, 연못, 시내 등 여섯 가지 경관을 모두 볼 수 있는 노선을 제공하는 화롄슈양탄 자전거 도로, 2012년 미국 CNN 여행 사이트의 '세계 10대 아름다운 자전거도로'로 선정된 르웨탄(일월담) 순환 자전거도로 등이 대표적인 자전거도로로, 힐링하고자 찾아온 여러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위의 같이 한국도 자전거를 단순히 출퇴근할 때에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 사업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면 따릉이가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9년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국내외 거주 글로벌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9 서울시 우수 정책 투표'에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순위권에 올랐다.¹²⁾ 외국인들이 따릉이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진 이 시점에서 따릉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앱에 관광 로드맵을 추가하여 외국인들의 서울 관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 성장한다면 서울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서울로 여행을 오는 내국인들의 유입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골목의 상권이 올라가고 경제적 이익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박미영,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 정책 1위, '무료 공공 와이파이」, 보안뉴스, 2019

2. 환경 보전과 서울시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1) 환경보전

서울 환경연합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환경 보전의 효과가 상당하다. 서울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5.4%를 차지한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과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 표는 1km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유형별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이동거리	자동차 유형	이산화탄소 배출량
1Km	소형차	0.168Kg
	중형차	0.211Kg
	대형차	0.294Kg

하지만 소형차 이용자가 자전거로 이동하면 0.168kg, 중형차 이용자가 자전거로 이동하면 0.211kg, 대형차 이용자가 자전거로 이동하면 0.294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발생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온실가스의 주범을 줄여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¹³⁾

2)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코펜하겐아이스 인덱스란 2년에 한 번씩 세계 115개 도시의 자전거 환경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공개하는 리포트이다. 자전거 인프라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안전 정책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하여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 친화 도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한국의 어느 도시도 20위 안에 선정되지 못했다.¹⁴⁾ 하지만 ‘따릉이 관광 로드맵’을 추가함으로써 따릉이가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서울시가 자전거 인프라와 그와 관련 정책들을 마련함으로써 훗날 서울도 순위권에 들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순위권 안에 들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친환경적 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세계적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13) 서울 환경 연합, <http://ecoseoul.or.kr/>.

14) 론리플래닛 코리아, <https://lonelyplanet.co.kr/main>.

[참고문헌]

[사이트]

서울 자전거 따릉이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ikeseoul.com/main.do#bike_info.

비즈하우스 <http://www.bizhows.com/>.

TrackMaven | Marketing Analytics Software, <https://trackmaven.com/>.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www.stj.or.kr/

서울 환경 연합, <http://ecoseoul.or.kr/>.

론리플래닛 코리아, <https://lonelyplanet.co.kr/main>.

[통계자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계자료, 2019.11.03.

서울시, 서울 관광재단,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2019.04.24.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시선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생한 관광정보를 알린다!, 2019.04.18.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2019.02

[방송]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15회, 박성하 연출, MBC every1, 서울, 2017.07.27.~방영 중.

[국내학술기사]

이미현, 「자전거 천국 네덜란드와 국내 공공자전거의 시초 창원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통권590호, 2018.

[인터넷 기사]

이소정, 「네덜란드의 탄탄한 자전거 인프라」,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

박미영,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 정책 1위,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보안뉴스, 2019.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실용 글쓰기

동대신문 활성화 방안 제안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해인

법과대학 법학과 안혜지

경영대학 회계학과 이슬아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이태건

I. 제안 목적

II. 제안 이유

III. 해결 방안

1. 찾아가는 동대신문,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2. 온라인 단신 배포
3. 종이 신문 배포 범위 확대 및 개선
 - (1) 동대신문 배부대 배치 장소 탐색과 분석
 - (2) 배부대 배치 장소 변경
 - (3) 교수연구실 (기존) + 단과대/학과 학생회실 (추가)

IV. 제언하기

V. 기대효과

[참고문헌]

프롤로그



“코끼리 없어지나요?”

지난달 동국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끼리 동상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코끼리 동상이 보이지 않게 주위를 막아놓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주변에는 이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정확한 공사 방향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코끼리 동상이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이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지요. 하지만 이후 코끼리 동상은 철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코끼리 사건은 우리에게 학교와 학생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와 학생의 연결선을 더 단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동대신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학교와 학생 간의 정보 매개체인 동대신문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I. 제안 목적

전자기기 단 몇 번의 터치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1,975만 가구 중 1,965만 가구, 약 99.5%의 가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만 3세 이상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약 91.5%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수치가 나왔다.¹⁾ 이렇듯 많은 사람이 일상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실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신문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신문은 타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문은 현 정부가 하려는 정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신문은 국가기관 또는 진실한 정보와 사람들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흔히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동국대 내에서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동대신문,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중 본 조에서는 동대신문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로 하였다. 학교와 학생들의 매개적 역할 중 동대신문이 가장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신문은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동국대 학교 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7.1%인 13명만이 동대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비하여 동대신문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조에서는 동대신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20005호, 2019, p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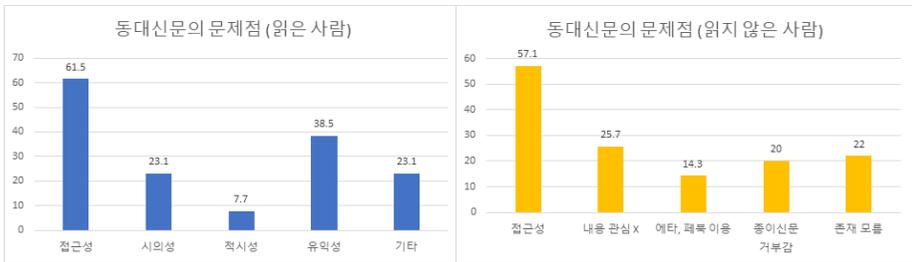
II. 제안 이유

동국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교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에브리타임과 대나무숲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정사실로 되는 일이 발생하고 왜곡된 정보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팔정도 코끼리 동상과 같은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공신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동대신문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먼저 동대신문은 내부적으로 인력난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대신문에서 일을 하는 기자는 총 10명이다. 이 인원만을 가지고 정기적인 신문 출간, 동대신문 페이스북 기사 탑재 등의 일을 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를 작성하는 데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또한 동대신문 기자들 사이 분명한 역할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동대신문은 정기자, 수습기자, 편집장으로 역할이 나누어진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신문 출판 시, 출판 과정 전반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는 편집장이 기자 대신 기사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기사 하나에 배당되는 원고료는 단 2만 원이다. 열심히 기사를 써도 기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대신문이 학교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동대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동국대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동대신문이 어디에 비치되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문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신문 내용 안에서 찾기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48명의 동국대 재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동대신문을 읽은 13명의 사람 중 61.5%의 사람들이 신문의 접근성이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신문의 위치를 모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의 유익성, 담겨있는 기사의 시의성, 정보의 적시성 순으로 동대신문의 문제점으로 선정되었다. 마찬가지로 동대신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을 골랐으며 35명 중 약 57.1%에 달하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신문에 담겨있는 내용에 관심이 없다.',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가 더 유익하다.'라는 답변이 각각 25.7%, 14.3%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22%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대신문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현재 동대신문의 문제는 접근

성·공연성, 시의성·유익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동국대 내 동대신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에 비례해서 현 상황에서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화될 것이다. 이는 다시 동대신문이 교내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악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결론적으로 본 조에서는 동대신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1]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동대신문의 문제점

Ⅲ. 해결 방안

1. 찾아가는 동대신문,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대부분의 소식을 에브리타임과 대나무 숲에서 얻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려 하지만 공지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지에서 학교 내 소식에 대해 재학생이 공통으로 서술한 답변이다. 학생들 사이, 일종의 ‘카더라’로 통용되는 동국대학교 대나무숲(페이스북)과 에브리타임은 학생 사회의 관심을 이끄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곧 재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를 객관적인 사실들로 견인해줄 동대신문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동대신문사가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페이스북 페이지, 에브리타임, 공식사이트 총

세 곳이지만 모두 재학생에게 있어 그 존재가 많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림2] 동대신문사가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에브리타임

현재 활용 중인 플랫폼들을 재학생들에게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는 이슈들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웹부를 모니터링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3] 동국대학교 대나무숲 대숲 검색기

동국대학교 대나무숲은 대숲 검색기를 제공한다. 주제별로 올라온 일화들을 분류할 수도 있으며 날짜별, 제보번호별 조회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사제도, 교내시설 등과 같이 일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보번호와 함께 분리하는 일을 웹부가 담당한다. ‘니모를 찾아서’와 분실물을 제외한 대숲 게시글은 하루 평균 15개~25개이며 간단한 내용 요약과 함께 제보번호를 기록해두는 방식을 사용하여 신문사 정기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존보다 학생들의 정보 수요를 많이 담아낸 동대신문이 발간되고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페이스북 페이지와 사이트로 업로드한 뒤, 웹부는 대나무숲의 제보 기능과 페이스북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찾아기는 동대신문’이라는 이미지를 재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동국대학교 대나무숲

2019년 12월 14일 오후 19:20

#999888번이재우우 2019.12.14 오후 3:18:07

최근에 학사개편안이 공개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드립니다.
내가 판단하고 싶은데 뭘 모르니까 자꾸 휩쓸리고 막연합니다.
신문이나 학교 오피셜 없나요...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동대신문

2020 동국대학교 학사개편안에 대한 기사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dongguk.writing.com>

함께 **좋아요** **답글 달기**

[그림4] 동국대 대나무숲 제보 기능과 페이스북 댓글 기능

페이스북은 팔로우한 페이지 또는 친구의 댓글이 존재할 시 예전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피드가 상단으로 올라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보와 기사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웹부가 만들어냄으로써 동대신문에 관한 팔로잉을 높일 수 있으며, 높아진 팔로잉 수는 기존보다 많은 학부생에게 기사를 노출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2. 온라인 단신 배포2)

찾아기는 동대신문은 접근성을 높이지만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정기신문의 기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시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기사 내용의 구체성과 깊이는 더 늘릴 수 있으나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단점을 온라인 단신은 막아낼 수 있다.

2) 단신(短信) : 짧막하게 전하는 뉴스

또한, 온라인 단신은 정기신문의 8면에 실리지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전달해줄 수 있는 게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의 보고와 함께 주 1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장학금과 교내 이슈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 확인 내용, 공모전 개최 알림 등의 단신 기사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정기발간에 맞춘 기사, 모니터링단, 그에 맞춘 단신 기사 보도와 찾아가는 동대신문으로 업무가 확장된 웹부의 인원 충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시업무는 모니터링과 단신 업로더이므로 현재 1명에서 1명 더 충원된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단신과 찾아가는 동대신문으로 재학생들의 유입을 늘린 플랫폼은 곧장 기사의 클릭수로 이어지고 이는 CPC(cost per click) 광고의 도입으로 새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5] 단신 기사

2017-2019년 동대신문 총원 인원 (운영위원진 임명 제외)	
2019.04.	수습기자 7명 임명
2019.03.	정기자 6명, 수습기자 1명 임명
2018.10.	수습기자 7명 임명
2018.04.	정기자 3명, 수습기자 10명 임명
2017.10.	정기자 1명, 수습기자 5명 임명

[표1] 동대신문 총원 인원

수습기자에서 정기자로 전환되었을 때 월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 투자 비용은 1매당 2,000원가량인 원고료 정도가 고려된다. 매 사령을 참고해보았을 때 그 인원이 일정치 않으며 수습기자 모집에 관하여 추가모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1~2명의 증원 가능

3) 동대신문 홈페이지, <https://www.dgupress.com/>

성은 수습기자 지원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를 거의 노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표는 전체 산업에서의 CPM 광고와 CPC 광고의 평균 이익을 정리한 표이다.⁴⁾

광고방식 구분	표본수	평균 클릭율	평균 클릭당 비용
CPM 광고방식	32,835	0.917	196.137
CPC 광고방식	32,867	1.033	137.790

[표2] CPM 광고와 CPC 광고의 평균 이익

리를 잡는다면 온라인 플랫폼의 개선에도 쓰일 수 있는 동대신문만의 자본이 될 수 있다.

실제 플랫폼에 접속하는 빈도나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은 평균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 광고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 없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증원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광고가 자

3. 종이 신문 배포 범위 확대 및 개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 3,000부의 종이 신문 역시 더 많은 학생 독자가 읽을 수 있게끔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배부일(2019.11.11)로부터 7일간 비치된 종이 신문의 변화량을 조사한 결과표이다.

배부 장소	비치량 (교수실 배부 후 실제 비치량)		7일 후 상황
▼ 배부대 장소 변경이 불필요			
사회과학경영관	400	200 1층(140)	81 (49▼)
		200 3층(180)	0 (180▼)
학생회관 정문	100		40 (60▼)
민해관 쪽문	100(60)		0 (60▼)
정보문화관 후문	100(73)		38 (35▼)
신공학관 엘리베이터	300	150 1층	30 (120▼)
		150 9층	58 (92▼)

4) 김도연·임규건·이대철, 「키워드 검색 광고 운영 DB데이터 분석을 통한 CPM와 CPC방식의 광고효과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4), 한국전자거래학회, 2011, p.148.

배부 장소	비치량 (교수실 배부 후 실제 비치량)	7일 후 상황
혜화관 엘리베이터	200	0 (200▼)
경영관 엘리베이터	100	0 (100▼)
이외 신문사 보관부 800부 (약대 200 바시대 200, 경주 20 병원 200 보관 180)		
▼ 배부대 장소 변경이 필요		
학림관 정문	100	71 (29▼)
상록원 정문	100	93 (7▼)
과학관 정문	100	76 (24▼)
명진관 정문	100	68 (32▼)
법학관 정문	100(60)	48 (12▼)
학술관	100(74)	49 (25▼)
문화관	100(63)	52 (11▼)
이해방 예술극장	100	77 (23▼)
원흥관 정문	100(55)	40 (15▼)

[표3] 2019.11.11.부터 7일간 비치된 종이신문의 변화량

결과표를 보면, 비치량이 확연히 줄어든 장소와 그렇지 못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비치량이 줄어든 장소와 그렇지 못한 장소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여 배부대 장소 변경 시 참고하고자 한다.

(1) 동대신문 배부대 배치 장소 탐색과 분석

1) 집적 이익을 통한 비치량 감소

동종업종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개개인의 사업이 분산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효과를 ‘집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집적 이익 효과는 동대신문 배부 장소에서도 나타났다.

다른 장소에 비하여 많은 비치량 감소를 한 사회과학관과 학생회관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대신문 배부대 외에도 ‘대학내일’, ‘해커스 매거진’, ‘job joy’ 등 여러 잡지사들의 배부대를 확



[그림6] 사회과학관 배부대

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잡지사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은 별다른 홍보 없이도 배부대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런 집적 이익의 장점을 살려 배부대의 위치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멈출 수 있는 장소

기존 배부대 장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정문과 같이 유동력이 높은 장소였다. 하지만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문에 비치해둔 종이 신문의 감소량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는 유동력이 높은 만큼이나 사람들이 빨리 지나치는 장소이며, 그만큼 다른 곳에 시선을 돌 여유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배부대의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신공학관 1층과 9층, 경영관 엘리베이터에 배치한 배부대에서는 높은 감소량을 보인다.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장소에 배부대를 둬으로써, 학생들이 배부대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배부대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장소도 고안하여야 한다.

3) 눈에 잘 띄는 장소



[그림7] 인문관 쪽문 배부대

이상의 1), 2)를 모두 참고하더라도 결국 학생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역으로, 시야에 잘 들어오는 배부 장소에 배부대를 비치하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 명진관과 학술관 정문의 배부대는 1), 2)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사회과학관과 학생회관보다 종이신문 감소량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배부대의 장소가 지나치게 구석에 있고, 형광등이 잘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으며, 이동 경로에서 이탈된 장소에 배부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만해관 쪽문과 정보문화관 후문에 비치해둔 배부대에서는 1), 2)의 특징이 보이지 않

는 장소에 있다. 하지만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보문화관 후문과 만해관 쪽문의 배부대는 문을 여는 순간 배부대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곳의 배부대는 명진관과 학술관 정문의 배부대보다 더 많은 감소량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2) 배부대 배치 장소 변경

앞에서 살펴본 ‘동대신문 배부대 배치 장소 탐색과 분석’을 토대로 배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배부대를 재배치하고자 한다.

1) 엘리베이터 대기 장소

학림관 정문, 원흥관 정문, 학술관 정문

① 학림관 4층 엘리베이터

학림관 정문은 다른 배부대 장소보다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정문이 이동 경로와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점, 밤이 되면 조명이 비추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비치량 감소가 적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림관 정문의 배부대를 정문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위치로 옮기고자 한다. 아래 사진의 빨간 원이 그려진 곳이 배치 예정 장소이다.



[그림8] 학림관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

② 원흥관 2층 엘리베이터

원흥관 정문 역시 학림관과 같은 이유로 비치량 감소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흥관은 위치상 혈떡고개와 중앙도서관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원흥관 엘리베이터는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특점을



[그림9] 원흥관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

살려 원흥관 엘리베이터 대기실 앞으로 배부대 장소를 변경한다면 더 많은 비치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경영관 엘리베이터 배부대 추가



[그림10] 경영관 엘리베이터 앞 배부대(왼쪽)와 학술관 정문 배부대(오른쪽)

경영관 엘리베이터 위치는 매번 등교 시간이나 강의가 끝나는 시간마다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 이런 접근성 덕분에 매번 배부대의 종이 신문은 많은 비치량에도 불구하고 고갈된다. 하지만 학술관의 배부대 상황은 다르다.

사진 속 파란색 원이 비치되어 있는 배부대이다. 비록 눈에 잘 띄는 학술관 정문에 놓인 배부대이지만 비치량 감소는 저조하다. 무엇보다 신문을 가져가기 위해서 허리까지 굽혀야 한다는 수고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국대 위치상 학술관은 문화관을 지나서 오는 경로가 많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학술관 정문에 신문 배부대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학술관에 배치한 배부대를 경영관 엘리베이터 대기실로 옮겨 추가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특성상 학술관을 쓰는 학부생들도 경영관이나 다른 학과 건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학술관 학생들의 신문 접근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문의 정면을 향해 있는 장소

명진관과 이해랑 예술극장, 법학관 정문에 있는 배부대는 모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 건물 정문마다 시야에 잘 들어오는 곳을 분석하여 배부대를 기존 장소에서 옮겨 보고자 한다.

① 명진관 정문



[그림11] 명진관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

명진관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곳은 계단이다. 2층과 3층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야 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을뿐더러 이동 경로도 이탈되지 않아 손쉽게 신문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위치이다. 다만, 지나치게 계단 중앙에 놓여 있어 학생회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과대 학생회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법학관 정문

많은 문과대와 법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법학관임에도 신문 비치량 감소가 12매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기존 배부대 장소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법학관 정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중문 사이 구석에 배부대가 존재한다. 위 사진은 기존 배부대 사진이다. 따라서 정문을 지나 바로 보이는 아래 사진의 위치에 배부대를 놓고자 한다.



[그림12] 법학관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

③ 이해랑 예술극장



[그림13] 이해랑 예술극장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

이해랑 예술극장은 외부인 출입이 많은 곳인 만큼 동대신문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도 정문 구석에 배부대가 놓여 있어 외부인이 쉽게 가져갈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배부대를 옮겨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명진관과 마찬가지로 배부대 위치

상 학교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프린터기나 키오스크가 있는 장소

정보문화관 후문, 문화관 정문, 상록원 정문, 과학관 정문

① 문화관 정문과 과학관 정문 프린터기



[그림14] 문화관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왼쪽)와 과학관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오른쪽)

문화관과 과학관 정문 주변에는 프린터기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린터기인 만큼 대기 줄도 길게 늘어설 때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배부대를 프린터기 주변으로 옮긴다면 앞서 언급했던 엘리베이터 대기실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상록원 정문 키오스크

[표1]을 통해 상록원 배부대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록원 키오스크 옆으로 배부대를 옮길 필요가 있다. 키오스크 역시 프린터기와 엘리베이터 대기실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5] 상록원 배부대 배치 예상 장소

(3) 교수연구실 (기존) + 단과대/학과 학생회실 (추가)

현재 동대신문은 배부일 당일마다 교수연구실 문 앞으로 신문을 직접 배부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과대와 학과 학생회실에도 추가 배부한다면 더욱더 많은 학생에게 동대신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과대 학생회실이 주로 한 곳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며, 대부분 교수연구실과 멀지 않은 곳에 학회실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 역시 요구하지 않는다.

IV. 제언하기

이에 동대신문 편집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웹부 소속의 기자 수를 2명~3명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대신문 기자는 총 10명으로, 그중 웹부 소속은 1명입니다. 동대신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습기자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배부에서도 수습기자 충원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수습기자 기간 내에는 기자 월급이 없고, 수습기자가 정기자가 된 이후에도 월급이 20~30만 원이라는 점에서 ‘동대신문 활성화’라는 기대효과에 비해 적은 투자 비용을 요구합니다.

V. 기대효과

위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시의성, 유의성, 속보성, 접근성, 공연성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방안이 수용된다면 재학생들은 유익한 정보들을 어디서나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동대 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더 열릴 것이며 동대 신문의 영향력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1. 교내 입지 상승

재학생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내에서 동대신문이 차지하는 입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롭게 못했던 이전과는 달리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기사의 내용을 다양한 방향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재학생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문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역할의 재정립

학보사 내 역할의 재정립이 일어나면서 구성원들이 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습기자, 정기자, 편집장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을 다시 분명하게 그어내고 각자의 직책에

해당하는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동대신문은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3. 성취감의 방정식

신문의 영향력 상승에 따라 기자들은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얻으며 동시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낄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기사 하나를 맡더라도 신중한 태도로 임하며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하게 한다. 즉 성취감과 책임감 상승에 비례하여 완성도 높은 신문이 발행되는 것이다.

4. 성공적인 선례

온라인 활성화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동대신문에서 시작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아직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다면 여러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며 다른 학보사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연·임규건·이대철, 「키워드 검색 광고 운영 DB데이터 분석을 통한 CPM과 CPC방식의 광고효과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4), 한국전자거래학회, 2011.
- 장석명·박용치, 「서울 산업클러스터의 집적효과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집 3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20005호, 2019.
- 동대신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gupress.dongguk>
- 동대신문 홈페이지, <https://www.dgupress.com/>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실용 글쓰기

대형서점과 지역서점 양립의 필요성

경영대학 경영학부 장동화

- I. 서론
- II. 지역서점의 경쟁력 약화 원인
 1. 자본력의 한계
 2. 공급물 차등문제
 3. 제도적 기반의 미흡
- III. 해결방안
 1. 이색적인 공간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연희동 '밤의 서점'을 중심으로
 2. 지역서점 간의 네트워크망 조성 및 활성화
 - 프랑스 'Paris Libraris', '서점관측소'를 중심으로
 3. 도서정가제 개선
 - 프랑스의 도서정가제 선례를 중심으로
-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책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어?” 동네 지역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말이라고 한다. 출판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종이책 시장 역시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박치완에 따르면, IT 발전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종합엔터테인먼트 기기화가 원료됨에 따라, 종이책의 물리적 대체재일 뿐만 아니라 독서행위의 경험적 대체재로서 자리매김하여 더욱 본질적인 출판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한다.¹⁾ 특히, 자본력의 한계가 큰 지역 중소형 서점들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서점 운영의 큰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간한 2018 한국서점편람(2017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서점 수는 2,050개로 10년 전 대비 36.9% 감소하였으나 100평 이상 서점은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²⁾ 이는 대형서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적은 공간 규모를 가진 지역의 중소형 서점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시장독점을 유발하고, 이는 곧 수익성이 보장된 서적만이 선택되고, 세분화된 분야의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상실의 우려를 가져오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형서점과 지역 중소형 서점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현재 지역 서점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해외의 선례를 통해 앞으로 지역 서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II. 지역 서점의 경쟁력 약화 원인

1. 자본력의 한계

지역 서점은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서점을 분류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매장의 유무에 따라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서점은 매장의 규모에 따라 대형서점과 지역 서점으로 구분된다. 대형서점은 시내 중심가에서 200평 이상 대형규모의 매장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곳을 말하며, 지역 서점은 지역 중심가에서 200

1) 박치완 외. 「선진국 지역 서점 활성화 활용 사례 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45쪽.

2)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8 한국서점편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6반기).

평 미만 중소형 규모로 운영하는 곳이다.³⁾ 분류의 기준을 통해 지역 서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소규모의 자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자본은 공간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매장 보유 도서량의 제약을 동반한다. 그만큼 대형서점과의 다양성 확보 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또한 매장의 입지 선정에서도 불리함을 가진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곳은 대형자본들이 선점하여 지역 서점들은 주요 상권이 아닌 골목에 자리한 경우가 많다. 지역 서점의 방문객들이 매장의 자연스러운 노출로 인한 방문이 아닌 직접적인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2. 공급률 차등 문제

지역 서점이 대형 및 온라인 서점에 비해 높은 ‘공급률 차등 문제’를 겪는 것은 많은 지역 서점들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도서 시장에서의 공급률을 의미하는 ‘도서공급률’은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책값을 정가 대비로 표시한 비율을 의미한다.⁴⁾ 이렇듯 출판사나 총판에서 책을 공급하는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 사이의 비율, 즉 공급률 차등이 발생하는데, 정가 10,000원인 도서를 출판사가 서점에 7,000원에 공급하면 공급률은 70%가 되는 것이다. 지역서점이 대형서점보다 더 높은 공급률을 적용받는 이유는 출판사나 총판에 주문하는 도서의 수량 차이 때문이다. 큰 운영규모와 서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절대적인 수가 많은 대형서점의 경우 그만큼 단일 도서의 주문량이 많고, 많은 양의 도서를 주문하는 만큼 가격의 할인을 적용받지만 이와 반대인 지역서점의 경우 할인율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로 지역 서점의 경우 대형 및 인터넷서점보다 10% 이상 높은 공급률을 적용받기에 같은 도서를 매입해 팔아도 판매마진의 차이로 인해 지역서점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 외에도 운영상 도매상에게 공급받는 지역 서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도매상에게 주는 약 10%의 중간수수료까지 고려하면 도서 판매로 인한 순수익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급률 차등 문제의 경우 구간별 표준공급률 제정 및 정부의 공급률 직접 조정 등이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제도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3) 김효선, 「지역서점의 분화 특성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쪽.

4) 권영미, 「공급률이 뭐길래. 또 서점계와 출판사 공급률 마찰」, 『news1뉴스』, 2018.

3. 제도적 기반 미흡

외부적 환경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 서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미흡함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우선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로,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질 높은 서적의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⁵⁾ 2014년 개정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를 종류와 관계없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 및 온라인 서점의 제휴 카드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사용을 생각해보면 가격 경쟁 측면에서 지역 서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급물 차등 문제와 함께 생각해보면 제도적 보완이 더욱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로 지역 서점이 감소하여도 대형 및 온라인서점이 존재해 소비자들의 독서환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더욱이 대형 및 지역 서점의 양립 필요성에 대해 큰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서점이 점차 쇠퇴할 경우 도서 및 출판시장이 소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유명 작가들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를 받아 책을 출간한 후 곧바로 대형서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신인 작가들의 경우에는 출판사에 투고⁶⁾ 과정을 통해 책을 출간하고 적은 판매량을 예상하기에 소규모의 양만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출간된 책들은 비교적 낮은 수익성이 예측되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보다는 특색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일부 지역서점이 우선하여 입고한다. 이를 고려해볼 때 신인 작가들의 작품이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곳인 지역서점이 부재한다면 새로운 작품의 등장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도서시장이 소수에 의해 획일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익성이 보장된 도서만이 주로 출판의 기회를 얻고, 이는 작가와 서적이 성장할 기회 상실, 문화의 다양성 및 발전 가능성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책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해주는 매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책을 파는 서점 역시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수집단이 과점한 환경 속에서 지속해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5) 도서정가제. 두산백과.

6) 의뢰를 받지 않은 작가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신고자 혹은 책을 출간하기 위한 요청을 위해 출판사에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Ⅲ. 해결방안

1. 이색적인 공간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연희동 ‘밤의 서점’을 중심으로

지역 서점의 자본한계를 ‘체험 마케팅’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 공간 자체의 특색을 살리거나, 이색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책과 소비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한다. 여기서 체험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고객에게 잊지 못할 체험이나 감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⁷⁾ 체험을 통한 경험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행으로 인한 수익보다,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서점시장에서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험 마케팅기법을 통해 긍정적인 선례가 되는 곳이 ‘밤의 서점’이다. 국내 연희동에 있는 ‘밤의 서점’은 공간과 콘텐츠의 활용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했던 서점주가 운영하는 곳으로, 책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기획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우선, 서점 내부의 인테리어 및 컨셉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공간 운영에 특색을 더했다.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지트 느낌을 주기 위해 어두운 톤의 조명과 가구를 배치하여 공간을 기획했다. 밤의 서점의 서점주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높은 장소와 배치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책은 공간에 이야기를 심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공간의 성격에 맞게 책을 배치하는 북 큐레이션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⁸⁾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책과 소비자와의 접근성 향상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색적인 콘텐츠 활용으로는 ‘Blind Date’가 있다. 책의 제목과 작가, 표지 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포장지로 쓴 후, 겉면에 책 속의 한 구절이나 추천 이유와 같이 책을 암시하는 글만 보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책 한 권을 여러 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필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흥미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밤의 서점은 책을 직접적인 매개로 하여, 사람들이 책을 고르고 읽는 그 과정 자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의 구매를 유도해 지속해서 책과 사람들 간의 교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형서점보다 비교적 권

7) 체험마케팅. 두산백과.

8) 송화선. 『개성강한 동네서점 과제는 살아남기』. 『주간동아』, 2017.

한과 자율성이 높은 지역 서점주는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속해서 다양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높아지는 갈증을 충족한다는 점과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발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2. 지역 서점 간의 네트워크망 조성 및 활성화 - 프랑스 ‘Paris Libraris’, ‘서점관측소’를 중심으로

공급물 차등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 서점 간의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입고 및 재고 현황, 이익률이나 회전율과 같은 정보를 각 서점 POS⁹⁾의 연계구축을 통해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POS 연계구축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성 교육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된 프랑스의 선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프랑스에서 창설된 ‘파리리브래리 (Paris Librairies)’는 100개의 파리 소재 독립서점과 협회에서 인증한 500개의 서점이 모여 150만 권의 책을 공동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¹⁰⁾ 또한 프랑스 서점협회에서는 2015년 릴에서 열린 서점인 회의에서 창립한 ‘서점관측소’를 운영하여 ‘협약한 서점끼리’ 입고, 판매, 반품, 재고, 이익률, 회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서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¹¹⁾ POS의 연계구축을 통해 서점 측에는 운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 소비자에게는 이전보다 높은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는 ‘퍼니플랜’, ‘서점ON’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 지역 서점의 위치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위의 선례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정보들은 서점의 내부정보이자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기에 정보공유시스템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서적 선호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어 지역 인구분포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최대수요를 창출하는지를 파악해 그 분야 서적의 다양성을 보유하면 이전보다 높은 소비자의 관심을 유

9) POS란 ‘Point Of Sales’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장금액을 정산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매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처리해 주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다. POS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자사제품의 판매 흐름을 단위품목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신제품과 판촉제품의 판매경향과 시간대, 매출부진 상품, 유사 품이나 경쟁제품과의 판매경향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판매가격과 판매량과의 상관관계, 주요고객 대상, 광고계획 등의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POS’. 첨단산업기술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10) 강민정. 「독립서점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6쪽.

11) 박치완 외. 「선진국 지역서점 활성화 활용 사례 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184쪽.

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비교를 통해 지역 내 서점 수요의 종합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좁게는 지역별이지만 넓게는 서점시장 전체의 현황을 수치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도출에 큰 도움이 된다.

3. 도서정가제 개선 - 프랑스의 도서정가제 선례를 중심으로

국내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문제는 프랑스의 도서정가제 선례의 선택적 수용 및 적용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도서정가제의 개념을 법제화한 나라이며, 1981년 자크랑 문화부 장관이 만들어 ‘랑법’이라고 불리는 도서정가제 법이 있다. ‘랑법’에 의해 프랑스의 모든 도서는 출판사가 정한 정가에 팔리고, 서점은 정가의 5%까지만 할인이 허용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할인율이 최대 5%라는 점은 책의 종류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¹²⁾ 이를 통해 프랑스에서는 도서가격에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국내 도서정가제의 허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선례라고 본다. 모든 할인 폭을 5% 이내로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카드 제휴 할인 및 포인트 사용으로 인한 실효성 상실을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각 개인의 정보격차로 인해 같은 도서를 제각각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을 막은 것이며, 단발성 이익 추구에 잠식되어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장한 예시로 국내 도서정가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해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도서의 판매가격 제한은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실제 2019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기존 ‘지역서점 살리기’라는 도서정가제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영세점포는 문을 닫고 대형점포로 자본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도서 가격제공이라는 부정적 인식만 제공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절차에 있어 세분화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그동안의 할인가격으로 인해 도서 가격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이 프랑스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국내 출판계의 유통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지역 서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의욕을 저하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 폭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정부의 지원제도 및 혜택의 정도 차이를

12) 김디모데, 「프랑스와 독일의 도서정가제에서 무얼 배울까」, 『BUSINESS POST』, 2014.

제공해 단계적 시행을 하며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지역 서점의 경쟁력 약화 원인과 그에 상응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본력의 한계, 공급물의 차등,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서점이 운영난을 겪고 있고, 이는 이색적인 공간운영과 콘텐츠의 개발, 지역 서점 간 네트워크망 조성, 해외 선례를 통한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결방안에서 국가별로 더 다양한 선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용하지 못하고, 프랑스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한 계로 지적할 수 있다.

서점시장이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서점의 역할이 단순히 소비자들과 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점차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하기 위해서 대형서점은 다양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지역 서점은 자율성과 공간의 활용으로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서점시장과 지역사회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치완 외. 「선진국 지역서점 활성화 활용 사례 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 김효선. 「지역서점의 분화 특성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강민정. 「독립서점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8한국서점편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하반기).
- 편집부.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솔직히 정말 책이 팔릴 거라 생각했나?)』. 브로드컬리. 2018.
- 편집부.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브로드컬리. 2018.
- 김소영. 『진작 할 걸 그랬어(책에서 결국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위즈덤하우스. 2018.
- 백창하 외.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시다!』. 남해의 봄날. 2015.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자기표현 글쓰기

<달의 노래>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고유진

“다녀왔습니다!” 탁, 탁, 탁, 탁... 어린시절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엄마가 나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소리였다. 엄마는 나를 위해 매일 다른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하루는 브라우니, 하루는 떡피자, 또 어떤 날은 김치 부침개를 만들었다. 현관에서 주방까지, 아주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며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지 예상해보곤 했다. ‘오늘의 간식’을 다 먹으면 엄마는 나를 차에 태우고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학원에 데려다주었다. 그리고 내 학원이 끝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차에서 나를 기다렸다. 밤 10시, 학원이 끝나면 엄마는 또 나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의 하루 일과는 항상 이랬다.

엄마는 내게 헌신적이었다. 지구를 공전하는 달처럼 엄마는 늘 나를 바라보았고 엄마의 삶, 그 중심에는 늘 내가 있었다. 엄마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친구의 엄마들이었고, 갖는 모임도 보통 나로 인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주변에서 엄마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우스갯소리로 ‘유진이 매니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엄마의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엄마의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처음부터 내게 ‘엄마’였으니까. 엄마가 버릇처럼 하던 내가 엄마의 삶의 전부라는 말이 그저 진심인 줄만 알았다. 엄마의 헌신은 달이 매일 지구를 도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다.

중학생이 되고, 나는 엄마의 이런 헌신이 당연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엄마의 그러한 헌신적인 애정이 나에게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를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 없이 나만 바라보며 사는 엄마를 한심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 이기적이게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는 그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잘난 맛에 도취되어 그저 내 삶을 즐기기에 비뻤다. 그렇게 엄마의 희생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 일궈낸 내 인생을 절대 내 자식을 위해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가 되면서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고, 내 공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 지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갔을 때, 현관에서 거실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엄마, 나 왔어.”

엄마의 휴대폰에서 처음 듣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니, 노래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엄마는 이 노래가 ‘한 오백년’이라는 민요라고 했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엄마는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원래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그 날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엄마도 무언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딸에게 헌신하는 삶이 엄마가 생각한 삶의 전부인줄만 알았는데, 엄마도 엄마 나름의 원하는 삶이 있었다. 그것도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었다. 나는 엄마의 행복을 야금야금 갈아먹으며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 스스로가 너무 죄스러웠다. 애써 무시해왔던 엄마의 희생에 엄마의 수많은 포기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마주해보니,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그제서야 잊고 있던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열 아홉, 십대의 막바지를 달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넣을 어린 시절 사진을 가져오라는 말에 내 어린 시절 사진을 찾기 위해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앨범을 펼쳤다. 추억여행에 빠져 앨범을 한참 구경하던 중 한 무더기의 흑백사진을 발견했다. 통이 큰 청바지를 입고, 잠자리 안경을 쓴 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빠의 청년시절 사진, 연애하던 시절 북한산에서 찍은 엄마, 아빠의 사진. 많은 사진들 중 가장 눈에 띈 사진은 검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한윤희’라는 명찰을 단 옛된 단발머리 소녀의 사진이었다. 노래를 좋아하는 명랑한 소녀는 까르르 웃으며 친구들과 즐거운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될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할 그 시절 ‘윤희’의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며 엄마의 원래 꿈이 가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그 꿈을 포기했다고 했다. 엄마는 나만은 본인처럼 지원이 부족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게 된 것이었다고 했다. 엄마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멍했다. 내 만유인력이 엄마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난 늦게나마 엄마가 엄마의 삶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다.

작년 이맘 때쯤, 엄마가 나에게 티켓 한 장을 건넸다. 엄마가 다니는 민요 학원의 공연 티켓이었다. “올 수 있으면 와라. 못 오면 안 와도 돼.” 무심한 듯 던지는 말이었지만, 엄마의 기대가 한껏 느껴져 친구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공연을 보러 갔다. 300석 규모의 소극장 무대를 가리고 있던 빨간 커튼이 걷히자 공연이 시작되었다. 따뜻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었고

그 사이로 엄마가 걸어 나왔다. 노란 저고리에 새파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노래가 시작되고 썩과리, 징, 장구, 북 등의 악기들이 어우러지며 내는 불협한 듯 조화로운 소리들의 향연이 이어졌다. 휘몰아치는 장단과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엄마의 목소리는 내 귀에 또렷이 들려왔다. 엄마의 노랫소리는 커다란 공연장 전체를 채웠다.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민요소리는 세상 그 어떤 선율보다 아름다웠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놀라웠다. 치맛자락을 잡고 사랑살랑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모습은 보름달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엄마는 무대 중앙에서 힘찬 폭포처럼 소리를 토해냈다. 그 목소리는 그동안 엄마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호통을 치는 것 같았다. 엄마도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무대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노래는 점점 정적으로 사그라들었고, 엄마의 음성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나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엄마가 나를 용서해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듯했다.

언젠가 엄마가 학교에서 학부모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엄마는 종이에 쓰여 있는 글을 보고 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날은 달랐다. 목소리에서는 작은 떨림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당당했으며, 강인했다. 나는 엄마의 공연을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드디어 엄마의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내가 빼앗은 인생을 화려하게 되찾은 엄마의 공연은 내게 어떤 공연보다도 감동적이었다. 그동안 내가 느끼던 일종의 죄책감도 모두 그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무대 위 엄마의 모습은 내가 봤던 엄마의 모습들 중 단연 가장 행복해 보였다.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을 흔히 ‘소리를 한다’고 표현한다. 그날 들은 엄마의 소리는 엄마의 인생을 담고 있는 듯했다. 친진난만했던 소녀시절부터 나라는 그림자에 가려 매일이 월식과 같았던 나날들까지, 엄마는 본인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은 소리를 나에게 ‘해주었다.’ 이렇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 자신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내기 때문에 민요를 부르는 것을 ‘소리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집에 내려갈 때마다 나는 새로운 민요소리를 듣는다. 이제 엄마는 그 소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자신도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요즘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도 톡톡 받아온다. 그럴 때마다 어린 소녀처럼 자랑도 하곤 한다. 최근에는 장구도 배우고, 한국무용도 배운다.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께 민요를 가르쳐드리고 작은 공연도 하는 것이 엄마의 꿈이라고 한다. 이러한 엄마를 보면서 나에게도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 엄마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 새로운 꿈이 되었다.

꽃답던 내 청춘 절로 늙어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뜻 붙일꼬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엄마가 부른 ‘한 오백년’은 참 슬픈 가사를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어쩌면 민요를 통해 엄마의 감정을 토해내고, 엄마의 인생을 위로 받고자 했을 지도 모른다. 엄마에게 소리란 인생을 뒤바꿔 놓은 전환점이다. 내가 무궁무진한 꿈을 꾸는 동안 나를 위해 당신의 꿈은 애써 외면해왔던 엄마에게 민요는 한줄기의 빛이 되었다. 그 빛이 엄마를 환히 밝혀, 이제 내가 보는 엄마는 나만을 공전하는 슬픈 달이 아닌,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엄마의 소리를 응원한다. 달의 노래를 응원한다.

자기표현 글쓰기

무취의 살냄새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서현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Dharma
College

쿵쿵.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쿵쿵. 사고가 더딘 짐승 새끼마냥 공중에 코를 박으니 그제야 말라붙은 살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냄새는 아니었다. 거의 무취에 가까운 듯한, 말라붙은 그 살이 살아 움직였을 적에는 조금 더 역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서, 이제야 무취가 된 그것이 생경하기도 했다. 내가 기억했던 냄새는 뭐더라. 그것은 냄새였던가 장면이었던가. 언니가 사온 치즈볼. 뚜껑을 열어놓자 방안을 눅눅하게 채우던 치즈 냄새. 온종일을 누워만 있었던 이불 안의 불룩한 것. 채운을 유지시키던 깔개는 하얀색. 누른 욕창에서 진득하게 올라오는 역한 냄새. 그 위에 덮은 이불은 노란색. 소파 위에 무거운 것이 조금 누른 자국.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살냄새를 몇 번이나 맡아보았던가. 맡아본 적은 있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냄새의 근원지로 시신을 돌렸다. 더 이전에 그것이 풍겼던 냄새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솔직히 내 인생에서 냄새는 딱히 없다. 아니,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냄새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특정 타인을 보면 어떤 향기, 혹은 냄새가 날 것 같다는 생각.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역한 것의 냄새를 맡았을 때 느껴지는 구토감. 딱 그 정도. 모든 타인이 느낄 수 있는 선에서의 냄새만 느끼고 살아온 삶이다. 스스로 그렇게 체취가 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물론 글을 쓸 때 이 심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요긴하게 쓰긴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냄새라는 것 하나에 인생을 관통할 수도 있을 만큼 인상 깊은 냄새가 있었던가. 음. 고향에 대한 향수라던가. 그런데 내 고향은 서울인데. 서울에 향수를 느낄 만큼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딱 들었던 생각 하나. 아무런 질감도 없는 냄새. 생각보다 의아했던 냄새였다.

우리 집에는 현재 네 명이 살고 있다. 처음부터 네 명이 살았던 것은 아니다. 내가 8살 때 아빠가 처음으로 내 손 말고 다른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머니 손이었다. 물론 돌아가시기 6년 전이었지만 연배가 있으신 건 매한가지였기에 거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다. 그저 지팡이 대신 아빠 손을 짚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워낙 생경해서,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행동을 지켜보았던 기억만 난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할아버지가 뒤이어 뒷짐을 지고 들어왔고, 새로 쓰기로 한 방으로 거동을 옮겼다. 그 방에만 침대가 있었고, 자그마한 텔레비전도 있었다. 주름이 많은 것. 난 그 주름이 무서웠다. 어렸을 때 동화에서는 악역의 모습을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고 추레한 형태로 표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동화들이 한뫼하지 않았나 싶다. 내가 늙으면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 된다

는 사실을 몰랐었지 아마.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감은 잘 안 온다. 그냥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거의 타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과 같은 공간을 쓰게 되면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 고민하던 모습이 어색했고, 둘만 침대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그 뒤로 집에서는 여섯 명이 살았다. 방 안에서 물을 마시러 나오시거나 그럴 때 내 곁을 스쳐 갈 때면 공기가 부드럽게 일었다. 살냄새 비슷한 게 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사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침대를 쓰지 않는 대신 제일 넓고 햇빛이 잘 드는 방에서 생활하셨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동도 잘하시더니 나중에는 걷는 걸 귀찮아하시더라. 아무리 좋은 기계나 악기를 소유하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고장 날 게 뻔한걸. 몇십 년, 길면 백 년까지도 버틸 수 있게 설계 되어있던 튼튼한 관철이 약해지고 닳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조금 더 걷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년을 소파에만 앉아계셨다. 그때부터 냄새가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했다. 서 있는 게 힘드니 앉아있고, 앉아있는 게 힘드니 누워있고, 조금씩 나빠진 건강과 더불어 앉아있는 것조차 힘드니 할머니는 온종일을 누워계셨고, 때문에 살이 짓눌리니 욕창이 생겼다. 난 그때 욕창을 처음 봤는데, 보통 살이 까지고 진물이 나는 것보다 더 끓어있는 색깔에다가 심한 악취를 풍겼다. 거동조차 힘드니 화장실 같은 편의 시설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그때부터 기저귀를 차셨고, 엄마는 끝나지 않는 시집살이를 계속했다. 누구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시집살이라니. 끔찍하지 않은가. 기저귀를 찬 할머니나, 그걸 갈아주는 어머니. 그 수치심은 누가 감당해야 했을까.

아무튼 당시에는 냄새가 꽤 심했다. 한 번은 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간식을 사드린다고 치즈볼을 사온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치매가 있어서인지 자꾸 뚜껑 닫는 것을 잊어먹는 것이었다. 때문에 방 안에 치즈볼 특유의 꾸덕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욕창 냄새랑 덧대어져 하루에 몇 시간은 환기를 꼭 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당시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침에 준비하고 나가서 학교에 가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간신히 할머니의 얼굴을 볼까 말까였다. 어떤 날은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다. 그렇게 반년 간을 지냈다. 거동하실 때는 그나마 같이 산책도 나가고 했는데, 방 안에만 계시니 자꾸 할머니와 있던 시간을 까먹었다. 같은 집 안에 있었는데도 그랬다. 방문을 열지 않으면 볼 일 없는 사이. 할머니와 나는 딱 그 정도가 되었다. 그날도 똑같았고, 집을 나서 학교에 갔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그렇듯 핸드폰을 냈고, 집에 갈 때쯤 핸드폰을 받았다.

언니에게 전화가 다섯 통이 와있었다. 언니 왜? 그 말에 언니가 잠시 말을 아꼈다. 돌아가셨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5분 남짓한 거리였던가. 우리 반은 3층에 있었는데, 3층에서 집까지 가는 그 5분 동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냥 갑자기 울었고, 7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 말에 목이 턱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집에 가니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당시 엄마 아빠는 당연히 지금보다 젊었는데, 주근깨가 자리 잡은 피부 위로 녹녹한 자국 몇 개가 덧대어져 있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짐을 챙겼고, 바로 근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가본 장례식장이었다. 일곱 명이나 되는 고모들이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들어왔으며, 똑같이 할머니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으며, 그것을 보고 나도 또 한 번 울음을 참고, 여러 사람이 왔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편육과 전 등을 날랐다. 몇몇 사람들은 술을 마셨고, 몇몇 사람들은 울었고, 몇몇 사람들은 서로 떠들며 웃었고, 몇몇 사람들은 태연하게 기계에서 돈을 뽑았다. 당시 내가 그러던 장례식장 풍경과는 많이 달랐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똑같은 감정을 토해낼 줄 알았고, 그 감정은 슬픔 내지 분노여야 했다.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고,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와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가까운 사람들은 술을 먹으며 기억을 회상하며 억지로 웃었고, 먼 사람들은 그냥 웃었다. 나는 삼 일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그들을 관찰했다. 이상하다. 이상해. 왜 웃지. 나만큼 할머니와 가깝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애초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만큼 할머니와 가깝긴 했었다. 난 왜 마지막에 방문을 열지 않았지?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나 지났지. 이틀이었나 삼일이었나. 엄마가 내 손을 끌고 장례식장 지하로 향했다.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고, 고모들도 있었다. 녹녹한 냄새가 나는 지하로 들어가, 유난히 녹녹해 보이는 문을 열었다. 수술대가 있었고,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방이 하나가 더 있는 듯한 문 너머에 커다란 쿠키를 꺼내먹는 듯한 여러 개의 칸이 있었다. 수술대 가운데에는 할머니가 있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다른 집은 충격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보여주지도 않는다던데. 상황이 어찌 됐든 나는 할머니를 마주했다. 죽기 전과 다른없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덧대어 피부가 조금 창백해졌을 뿐이다. 거기서 그대로 눈을 떠도 이질감이 들지 않을 듯한. 죽은 사람은 몸속에 있었던 음식물, 노폐물 등 모든 찌꺼기를 빼낸다는데 할머니도 그랬을까. 그걸 장의사가 치웠을까.

할머니가 기저귀를 찾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 죽었는데도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그러면 저 장의사는 엄마 역할인 건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뇌가 주머니 속 이어폰처럼 잔뜩 꼬여버린 기분이었다. 그 와중에도 가족과 고모들은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사람이 죽을 때 입는다던 삼베 옷을 처음 보았다. 누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방 안에서 나던 역한 냄새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분명 저 삼베 옷으로 가려진 부위에 욕창이 그대로 있을 텐데 냄새가 나지 않다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갔을까. 분명히 아침까지 살아있었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방은 남향이니 햇빛은 잘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따뜻하게 갔으려나. 방 안에 치즈볼 냄새와, 욕창 냄새는 햇빛 때문에 가려졌다. 마지막에 눈을 어떻게 감았다. 눈을 감고 있었을까. 확실한 건 할머니는 지금 눈을 감고 있고, 나는 할머니의 살 대신 삼베 옷을 만지고 있고,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부대끼면서 나는 살냄새. 그게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집으로 왔다. 할아버지와 같이 왔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뒷정리를 해야 한다고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할머니와 서먹했던 만큼 할아버지와도 서먹한지라 자리가 영 편치 않았다.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할아버지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급한 나머지 할머니가 누워 계셨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다.

영영.

하는 소리가 났다. 정확히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우는 소리였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할머니의 자리를 바라보더니, 네 할머니가 죽었다며. 그 소리를 세 번인가 반복하더니 그냥 울었다. 당시 할아버지도 차매를 앓고 계셔서 그런가, 우는 소리가 어린아이 같았다. 한 일곱 살짜리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 부러졌을 때 목이 터져라 우는 듯한, 그런 소리. 당시에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허공으로 어색하게 휘젓다가, 결국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토닥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어색하게 어깨를 잡고만 있었다. 괜찮다. 괜찮다. 그냥 그렇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한 시간가량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렇게 울었다.

우리는 할머니가 없는 집 안에 빠르게 적응해갔고, 할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각자의 방이 있었기에 할아버지도 당연히 전에 쓰시던 방에 들어가라 했는데, 어쩐지 그것을 거부하셨다.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때를 쓰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소파 한구석에 아예 자리를 잡으셨다. 우리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그 뒤로는 소파에 요를 깔고, 식탁을 깔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편식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중에 그나마 잘 먹던 음식이 냉면이었다. 냉면 이외에는 무엇을 해드려도 먹지 않으니 가족 모두가 미칠 지경이었

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다. 오죽하면 가족 모두가 냉면 끓이는 법을 배워서, 돌아가며 냉면을 해드렸을 정도일까.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견지 못하였다. 대신 93세의 나이에도 나름대로 기력은 있으셔서 혼자 기어 다닐 수는 있으셨고,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 필요한 시설은 다 이용하셨다. 매일 낮에서 저녁 사이의 시간대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바람을 쐬려고 하시길래 현관에 의자도 놓아드렸다. 할아버지 나름의 시간 죽이기이자,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옛날에 장용을 갔다 오셨는데, 그때 트라우마도 이겨내시고 자식들을 멋지게 키워내셨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가족들 모두 은연중에 생각했다. 그 외의 모든 시간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냈고, 창문에 보온용으로 붙여놓은 뽁뽁이를 매일 하나씩 터트리셨다. 안에 뭐가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툭, 툭, 하고, 마루에서는 할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는 그 뒤로 일 년을 더 버티셨다. 할머니를 보내고 무려 사 계절이 지난 셈이다. 그냥 무서워서 계속 미웠던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거진 일 년 만에 소고기를 드셨고, 가족 모두가 기뻐했고, 기력이 쇠해서 입원했다. 병원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빠는 그때 그 소고기가 할아버지 판에 마지막 만찬이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또 한 번의 장례식을 치렀고, 또 한 번 국회를 들었고, 또 한 번 편육을 날랐고, 또 한 번 지하로 들어갔다. 두 번째로 본 사체는 별다를 거 없었다. 할머니와 다른 걸 찾자면,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할머니와 많이 닮았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다. 그 외에는 할머니와 다 똑 같았다.

쿵쿵.

냄새를 맡았다. 정확히는 맡으려고 노력했다.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티가 안 날 정도로 숨을 조금 들이마셨다. 쇠 냄새, 눈물에 조금 섞여 있는 염분 냄새,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몸에 남은 노폐물이 전부 빠져나간다고 했다. 할머니도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냄새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고작 이런 냄새와 한 줌을 뺏가루만을 남기려고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고작 방 안에 욕창 냄새와 치즈볼 냄새를 남기려고 할머니가 태어났다. 나도 똑같이 죽을까. 수치심이 밀려 들어왔다.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기저귀를 차야 했던 할머니. 그걸 갈아주는 엄마의 손.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 몸. 그 냄새를 맡는 나. 어느 부분에서 수치심을 느낀 걸까. 모두의 수치심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똑같은 냄새가 계속 감돌았고,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쿵쿵댔다.

사람이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몇 안 된다. 기껏해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기부해 어느 단체에 자그마하게 이름을 남기던가,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 되어 책으로 남던가. 삼 대쯤 지나면 아마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나만 해도 고조할머니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니, 내 후세대는 뻥할 것이다. 내 이름도 대충 백 년 정도 지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살아생전에 어떤 냄새를 풍겼건, 죽은 뒤에는 무취, 무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할아버지를 보내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소파 한구석이 조금 패여있는 것을 보았다. 폭신한 질감이어서 손으로 몇 번 만지면 사라질 듯한 자국이었다. 고작 그거였다. 그것밖에 흔적이 남지 않았다. 모든 냄새는 어느 순간 생겨나고, 어느 순간 사라진다.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는 한 사라져도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냄새가 있고, 순간이 지나 가면 다시는 말지 못할 냄새가 있다. 그냥, 당장 팔에 코를 처박고 냄새를 맡아도 이 살냄새가 얼마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생경한 것이고, 별다른 의미는 없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끼적거린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두 사람을 떠나보낸 이야기일 뿐이고, 죽어서 그 사람들이 남긴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는 이따금 아니 계속 살아내야 하고, 이따금 가만히 있다가도 공중에 코를 처박는다. 어디선가 익숙한 살냄새가 풍겨오다가, 이내 무취로 사라진다.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존재와 역사 명작세미나

칸트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 -인간 실존과 관련하여-

문과대학 철학과 한지나

I. 서론

II. 본론

1. 자연관과 목적론
2. 목적론에 대한 의문
3. 실존주의적 목적론
4. 반항의 자유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칸트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을 통해 인류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립하였다. 그는 인간의 목적을 인간의 근본인 자연에서 찾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자연의 목적에 따라 이성을 계발시킨다고 보았다. 각각의 인간은 자연적 소질을 타고났으며, 이는 인간들 상호 간의 항쟁을 통해 계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항쟁’, 심지어 ‘전쟁’이라는 반사회적 사회성으로 서로를 계발하고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합목적성의 끝에는 ‘시민 사회의 건설’이 있다. 그는 제6 명제에서 “시민 사회의 건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에 의해 가장 나중에 해결될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인류의 최종 목적지를 설정하였다.¹⁾

칸트의 이러한 역사철학은 그 구조가 탄탄하고 합리적이다. 실제로 그의 주장처럼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목적론에 의문을 가졌다. 첫째는 정해져 있는 자연법칙에 따르는 인간의 행위를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그는 “자연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으며 이성에 기초하는 의지의 자유를 주었다.”²⁾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성이 선형적으로 주어졌다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는 최후의 목표를 위해 인간 개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그는 인간 개인보다 유(類)를 우선하고 중시하였다. 목적을 향해가는 개인의 삶을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의 희생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

본고는, 칸트의 목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우선, 칸트의 자연관과 목적론을 살펴보고 그의 목적론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겠다. 이어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칸트의 목적론을 재검토하며 인간의 실존 문제를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카뮈의 ‘반항’이라는 개념으로 진정한 자유론을 음미하며 인간적 삶의 자세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실존에 집중하고 인간 존재 이유에 대해 사유하게 함으로써 있고 있던 삶의 본질을 일깨워줄 것이다.

1) I. Kant, 이한구 편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pp.29-32.

2) Ibid, p.27.

II. 본론

1. 자연관과 목적론

칸트 철학에서 목적론은 철학의 틀과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인류 역사를 설계하며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적용한다. 그는 역사의 탐구에서 합목적성이라는 선형적 원리를 사용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연은 목적 없는 행위를 자행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연적 목적에 맞게 계발된다는 것이다. 그가 자연을 상정하여 선형적 원리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인과론이 감성적 세계와 초감성적 세계를 연결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합목적성이야말로 무질서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라고 보았다.³⁾

칸트의 목적론은 『판단력 비판』에서 더 확고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외적 합목적성과 내적 합목적성을 구분하였다. 외적 합목적성은 대상의 유익함과 이익의 원리이다. 반면에 내적 합목적성은 대상 자체의 완전성을 의미한다.⁴⁾ 칸트는 외적 합목적성은 상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기에 내적 합목적성을 자연의 원리로 내세웠다. 내적 합목적성을 지닌 유기체는 스스로가 원인이자 결과이며 자연의 목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스스로가 수단이자 목적이기에 목적 없고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이러한 원리 아래에 칸트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목적에 맞는 소질을 부여받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자연 안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 목적에 맞추어 작동한다는 것이다.⁵⁾

칸트는 이러한 목적론을 토대로 삼아 인간이 자연의 최후 목적임을 밝혔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성과 이에 기초한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이성과 자유를 부여한 것은 도덕성과 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전쟁으로 대표되는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한 항쟁으로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발은 인간 개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 즉 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계발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여러 세대를 거쳐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의 목적론에서 ‘역사의 목적’이란 개인적인 성장이나 완성이 아닌 인류 전체의 도덕적 완성을 뜻한다.⁶⁾

3) Ibid, pp.158-159.

4) 박필배, 「칸트의 목적론에서 합목적성 개념 -유기체와 자연 전체의 체계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제58집, 2015, p.255.

5) Ibid, p.259.

6) I. Kant, 이한구 편역, 앞의 책, pp.187-189.

2. 목적론에 대한 의문

칸트의 목적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의 목적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항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을 통해 마지막 세대만이 목표에 이르게 된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인간을 진정 자유로운 존재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형적인 법칙에 따라 규정된 삶을 사는 것이 자유인가? 칸트의 목적론은 선형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세움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격하시킨다. 정해진 자연법칙과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개인은 전체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가 모두 같은 목적을 띠고 있다면 자유는 주체성을 상실한다. 정해진 하나의 길로 향해가는 인간에게 자유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 인간의 역사는 보편성이 아닌 개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모든 시대와 인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칙이라는 기계적 질서 안에 인간을 가두게 한다.⁷⁾

또한, 칸트의 목적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개인의 수단화를 야기한다. 그의 목적론은 개인의 계발이 아닌 유적 차원의 계발이다. 인류를 인간 개인보다 상위에 두는 것은 개인의 특수성을 상실하게 한다. 그 목적이 인간 개인의 행복이 아닌 도덕성의 실현이라면 더욱 그렇다. 칸트는 스스로가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내적 목적론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역사철학 속에서 목적의 끝에 다다르기 전까지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된다. 모든 순간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목적론은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킨다. 역사가 빛을 발하는 때는 마지막 목적 달성의 순간만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와 개인의 순간이다. 서로 다른 개인은 시대 속에서 그들만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만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정의할 수가 없다.⁸⁾

칸트는 목적론을 통해 인간을 설명하고 인류의 최종 목적지를 정립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목적론이라는 틀 아래에 인간을 고립시켰다. 하나로 설정된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해낼 결정권을 앗아가고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만든다. 또한, 절대적인 법칙 아래의 자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법칙의 본질에는 규범적 성질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목적을 최우선시하는 선형적 원리가 인간의 수단화를 야기한다. 즉 칸트의 목적론은 유(類)를 위한 이성의 발휘에 몰두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목적과 자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였다.

7) 윤태원, 「헤르더의 역사철학의 인간성 개념을 통한 역사발전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82집, 2018, pp. 312-314.

8) Ibid, p.323.

3. 실존주의적 목적론

실존주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에서의 실존주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임을 밝힌다. 실존주의는 칸트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악이라 여겼던 전쟁 이후에 생겨난 철학 사상이다. 실존주의의 뿌리는 세계대전 이후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에 있다. 세계대전 속에서 인간은 대량학살, 원자폭탄 등 비합리적이고 잔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들이 일으킨 전쟁은 필요악이라기엔 너무 큰 손실을 일으킨 것이다. 이 손실은 비단 물리적 손실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황폐화도 포함한다. 20세기의 두 전쟁은 인간에게 실존적 불안을 야기하고 세계의 부조리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⁹⁾

실존주의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출발해 인간에게 있어 이성이나 합리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애썼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¹⁰⁾는 명제는 실존주의의 사상을 한 줄로 함축한 것이다. 여기서 본질이란 어떤 존재의 존재 이유나 그것을 그것이게 만드는 성질을 뜻하고, 실존이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연필은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연필과 같은 사물들은 존재하기 이전에 인간에 의해 목적과 의도 같은 본질이 먼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경우는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 인간은 갑작스럽게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 어떤 목적이나 기능도 부여받지 않았다. 인간은 실존한 이후에 자신의 삶과 마주하고 자신의 본질을 찾아 나선다. 즉 인간은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존재인 것이다. 그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닌 개인의 실존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¹¹⁾

따라서 실존주의는 칸트의 목적론과 달리 인간을 정해진 틀이나 규칙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존재로 보았다. 즉 인간에게는 자연이나 신에게서 부여받은 목적이나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말한다. 인간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선택과 자유에는 언제나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자신의 가능성 앞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단순한 방종이 아닌 떼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과도 같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종착지는 인간에게 공포를 부여한다. 결국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선택한 본질에 따르는 실존에 책임을 지

9) J. P. Sartre, 변광배 편역, 『존재와 무』, 파주: 살림출판사, 2005, pp.88-89.

10) Ibid, p.169.

11) 정은영, 「사르트르 자유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초등도덕교육전문 석사학위논문, 2007. pp.8-9.

는 존재인 셈이다.¹²⁾

4. 반항의 자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은 자유를 부여받았기에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인간은 두렵고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그 스스로는 실존주의자가 아님을 선언하였지만, 실존주의와 큰 맥락을 같이 하는 카뮈는 ‘반항’을 두려움과 부조리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보았다. 그는 단순한 낙관적인 희망이나 비관적인 자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희망은 삶 자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와 삶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살은 자신이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반항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강조하였다.¹³⁾

“반항은 인간과 그 자신의 어둠과의 끊임없는 대면이다.…… 반항에는 희망이 없다. 반항은 짓눌러오는 운명의 확인이다.”¹⁴⁾는 카뮈가 주장하는 반항의 의미를 명시하는 문장이다. 여기에서 ‘반항’은 칸트의 ‘반사회성’과는 구별된다. 칸트가 말하는 반사회성은 이기적 본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 간의 갈등이 인간과 사회의 고차원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개념이다. 반면에 카뮈에게 반항이란 타인과의 갈등이나 사회의 발전과 관계없이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 카뮈는 인간이 단순한 절망이나 희망으로 삶에서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항과 열정으로 삶과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세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다. 세계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¹⁵⁾

인간은 반항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삶의 부조리를 직시한 이후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다. 그리고 죽음 아래의 자유를 만끽하며 저마다의 삶에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열정을 남김없이 활용하겠다는 태도로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것을 창조해내며 자신을 발견하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반항의 자유를 통해 스스로 삶의 본질을 창조한다.¹⁶⁾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살피고 실존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세계와 자신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물음표

12) Ibid, pp.51-53.

13) 조해진, 「니체와 카뮈 사유에서 실존의 의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리교육전문 석사학위논문, 2012. p.36.

14) Albert Camus, 김화영 역, 『시지프 신화』, 서울: 책세상, 1997, pp.83-85.

15) 이만희, 「부조리의 인식과 반항 -카를로스 슬로르사노의 『신의 손』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집, 2009, pp.401-403.

16) 조해진, 앞의 논문, pp.37-39.

를 던짐으로 삶은 생기를 얻어간다. 이로써 인간은 세계와 나를 잇고 인간의 현실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즉, 자유에서 오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삶의 원동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인간 실존에 있어 자유는 매 순간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며 미래의 자신을 구성해나감을 뜻한다. 이는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세계를 선택해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피할 수 없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이뤄내고 세계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그 자신의 환경 세계를 택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은 개별적인 의식 활동과 실천으로 개개인의 생을 만들어간다.¹⁷⁾ 이로써 인간은 자유의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개인의 자기소외를 극복하고 삶에서의 자기 존재를 창출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고 인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함으로써 개인의 가치를 재확인한다.¹⁸⁾

Ⅲ. 결론

칸트는 몇 가지의 명제들로 인간을 규정하고 본질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선 논의로 알 수 있듯 이는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자유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 실존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인간은 죽음으로 향해가는 길에서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을 만들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목적이 아닌 개별적이고 능동적인 목적을 이루어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실존주의가 19세기 자유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해 타인을 배제하는 인식적 독단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¹⁹⁾ 이에 대해 실존주의가 비판점과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분명 현대 사회에 큰 영향력과 의미를 선사한다.

실존주의를 다시 돌아보는 행위는 인간을 다시 한 번 ‘나’라는 존재에 몰두하게 한다. ‘유’속에서 획일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에 열중하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합리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개인의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수단화를 행하며 비인간화를 야기한다. 사회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합리성과 목적의식이 필수적인 요소임은 분명하다.²⁰⁾ 그러나 인간은 하

17) 정은영, 앞의 논문, pp.47-48.

18) Ibid, pp.52-53.

19) 홍덕선, 「아이리스 머독의 실존주의 비판: 전후 자유주의의 새 방향을 찾아」, 『현대영미소설』 제11집, 2004, pp.7-8.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언제나 유념해야 한다. 개인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확립하고 반항을 통한 자유를 느끼며 개인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 자신과 마주하고 자각적인 실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실존에 대한 사유는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의 밝은 길이다.

[참고 문헌]

- 박필배, 「칸트의 목적론에서 합목적성 개념 -유기체와 자연 전체의 체계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제58집, 2015.
- 윤태원, 「헤르더의 역사철학의 인간성 개념을 통한 역사발전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82집, 2018.
- 이만희, 「부조리의 인식과 반항 -카를로스 슐로르사노의 『신의 손』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집, 2009.
- 정은영, 「사르트르 자유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초등도덕교육전문 석사학위논문, 2007.
- 조혜진, 「니체와 까뮈 사유에서 실존의 의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리교육전문 석사학위논문, 2012.
- 홍덕선, 「아이리스 머독의 실존주의 비판: 전후 자유주의의 새 방향을 찾아」, 『현대영미소설』 제11집, 2004.
- Albert Camus, 김화영 역, 『시지프 신화』, 서울: 책세상, 1997.
- J. P. Sartre, 변광배 편역, 『존재와 무』, 파주: 살림출판사, 2005.
- I. Kant, 이한구 편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20) 정은영, 앞의 논문, p.54.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

『구운몽』에서 찾는 진정한 ‘나’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문정현

I. 서론

II. 본론

1. '매트릭스'적 구조, 이어진 꿈과 현실의 세계
2. 양소유와 성진, 무엇이 진짜인가.
3. 삶은 변화하기에 가치가 있다.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나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나 생각해본 적 있지만, 누구라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질문일 것이다.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람들에게 만약 “너는 누구야?” 라고 질문한다면, 보통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따라, 아니면 자신의 성별이나 성격에 따라 “나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평범한 성격의 남자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소개한 자신을 정말로 영원불변한 ‘자신’ 그 자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설’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금의 자신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정체성을 지니며, 그러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학생이자 봉사단체의 일원이라 한다면, 학생으로써의 정체성과 봉사단체 일원의 정체성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정체성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도 달라진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고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필연적인 일이며, 정체성의 생성과 소멸은 속한 단체, 사회, 국가 등의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체성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소멸이 절대로 혼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연생기’ 라는 것은 즉 모든 인연이 이어져있고 정해져있다는 진리이다.¹⁾ 만약 내가 그 누구와의 관계도 없이 혼자 생성되었다면, 나는 과연 ‘학생’ 이자 ‘봉사단체’의 일원에 속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또한 끊임없이 생성되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속 첫 페이지이다.

II. 본론

1. '매트릭스'적 구조, 이어진 꿈과 현실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라는 방대한 이야기의 향해는 매트릭스(Matrix)에서 시작한다. 매트릭스

1) [연기]: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392&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19.11.25.)

(Matrix)란 일반적으로 사회나 개인이 성장하는 모체 혹은 체계적으로 얽혀있는 ‘망’을 의미한다.²⁾ 보통 매트릭스라고 하면 동명의 영화를 많이 생각할 텐데, 이 역시 『구운몽』을 관통하는 환몽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 매트릭스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해커로 활동하며 자신이 사는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토마스 앤더슨, 그리고 불가에 귀의했지만 환생 후 속세의 향락에 적응한 양소유(성진) 모두 ‘가상현실’과 ‘실제’라는 구조 속에서 얽혀있고, 또 자신이 있는 곳에 따라 성격이나 모습이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한다.

작중에서는 가상현실(꿈)의 ‘나’와 현실의 ‘내’가 나를 구분된 것처럼 보인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묘사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가상현실(꿈)의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매트릭스>와 『구운몽』을 모두 본 사람이라면, 사실 그 어느 쪽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시를 들어보자. 토머스 앤더슨이 만약 가상현실에 완벽히 적응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그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끔찍한 현실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또 양소유가 속세에 환멸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렇다면 성진으로 다시 되돌아 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양소유는 자신이 사는 속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족하면서 여생을 보냈을 수도 있다. 토머스 앤더슨과 양소유는 충분히 자신이 원래 살았던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불친절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운몽』 작중의 꿈과 현실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망(Matrix)처럼 연결되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양소유와 성진은 하나의 거대한 ‘나’ 안에 있는 어느 부분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양소유는 작중에서 본질적으로 성진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마치 원래의 ‘성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독자들 역시 어느새 성진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양소유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

『구운몽』의 의도 또한 그러하다. 성진은 재가자로서 벌을 받아 속세로 내려와 양소유가

2) [Matrix]: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2543332e656c44f29e419c945d6b8046> (검색일자 2019.11.15.)

3) 매트릭스는 1999년 워쇼스키 형제에 의해 제작된 SF 블록버스터 영화이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성실한 회사원으로 밌에는 네오라는 이름의 해커로 활동한다. 현실의 진짜 본질에 관한 그의 데카르트적 회의는 아름답고 신비한 트리니티(캐리 앤 모스)를 통해 건설적인 해커 모피어스(로렌스 피쉬번)를 만난 후 확증된다. 정신과 두뇌를 열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각오한 네오는 이전에 그가 ‘존재했던’ 세계는 오래 전 인류가 만든 인공지능컴퓨터들이 통제하는 가상현실프로그램이 만들어 낸 것임을 알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그 기계들은 모든 인류를—극소수의 반란자들과 지하도시 한 곳을 제외하고—영원한 환각상태에 가두어놓았다. [매트릭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2793&cid=42619&categoryId=42619> (검색일자 2019.11.25.)

되었지만, 그의 삶은 작중에서 결코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오히려 영웅스러운 모습이나 사랑을 지키는 모습이 묘사되는 등 성진의 삶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자세하게 그려졌다. 또 용궁에서 벌어진 일들과 같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액자식의 구성, 그리고 장장 몇 백 페이지에 이어서 그려진 양소유의 모든 것이 한낱 꿈에 불과했다는 허무한 결말은 과연 내가 보는 것이 성진의 이야기인지 양소유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2. 양소유와 성진, 무엇이 진짜인가.

이 시점에서, 『구운몽』을 읽은 독자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법 하다. 성진이 양소유로 살며 속세의 무상함을 깨닫고 불가에 귀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부분 결말에서 양소유와 성진은 이어져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독자의 시점은 불가에 귀의하고 해탈한 ‘성진’에게 맞춰져있기에, “성진과 소유가 누가 꿈이며 누가 꿈이 아니뇨?”⁴⁾라는 말과 같이 양소유와 성진 중 누가 진짜인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구운몽』의 뒷맛은 다소 짝짝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양소유와 성진, 과연 무엇을 진짜라고 볼 수 있는가? 사실, 그 해답은 『구운몽』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구운몽』 속에서의 시공간은 결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잘 구분되지 않게끔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구운몽』을 읽는데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작중 시공간이 모호하여 어느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벌어진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예시로, 책의 시작에서는 성진이 주인공이었지만 어느새 성진은 양소유로 변하여 책의 주인공이 순식간에 뒤바뀌게 된다. 또 양소유로 변한 이후에도, 피난하던 도중 신선을 따라갔더니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나있다가, 전장에서 냇물은 마실 수 없고, 적들은 사방에서 포위한 상태에서 잠깐 용궁의 꿈을 꾸었더니 현실의 냇물이 맑아지고 적들이 항복하는 등 환상이나 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현실에도 그대로 일어난다.⁵⁾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예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행세한 양소유가 사실은 성진이라는 반전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꿈(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더욱 더 모호하게 만들며, 성진과 양소유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양소유가 있던 곳은 꿈이었는데 현실이었는데 헷갈리게 한다.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되니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짜이지

4) 김만중, 송성욱 옮김, 『구운몽』, 민음사, 2019, p.231.

5) 김하나, 『『구운몽』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 양상 연구』, 강원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10, p.49.

분변하지 못했다.”⁶⁾

이는 『구운몽』에서 언급된 장자의 ‘호접지몽’이다. 나비가 된 꿈을 꾸 장자는 그 꿈이 매우 생생하여 자신이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⁷⁾ 이렇게 장자가 나비와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처럼, 『구운몽』에서 역시 성진이 꿈에서 깨었을 때, 그 꿈이 자신이 마치 진짜 양소유가 된 것만 같이 생생하여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성진과 양소유가 있었던 꿈의 경계는 단지 ‘인식’ 하나만으로도 허물어지는, 하나의 모호한 경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불교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작중에서 주어진 상황들은 양소유가 진짜일 수도 있고, 성진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존재가 진짜인지는 결코 판단할 수 없게끔 책의 구성은 치밀하게 이러한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 역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또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 모습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⁸⁾ 그렇기에 나는 나의 ‘역할’, 즉 존재의의가 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존재의의가 생겨날 때 비로소 다시 생겨난다.

3. 삶은 변화하기에 가치가 있다.

성진은 육관대사로부터 벌을 받도록 결정될 때,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습니다.”라며 성진 자신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네가 갈 곳이라.”⁹⁾ 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든 그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나’이며, 변화하는 나 자체가 하나의 ‘존재 의미’이다. 따라서 나는 항상 어느 곳에서든 존재해왔고, 나를 끊임없이 변화

6) 김만중, 송성욱 옮김, 『구운몽』, 민음사, 2019, p.231.

7) [호접지몽]: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011&cid=40942&categoryId=32972> (검색일자 2019.12.03.)

8) [제법무아]: 원불교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3857&cid=50765&categoryId=50778> (검색일자 2019.11.25.)

9) 김만중, 송성욱 옮김, 『구운몽』, 민음사, 2019, p.18.

시키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진리이다.¹⁰⁾

제행무상은 얼핏 보기에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기에 ‘나’의 존재 의미마저 없다고 해석되기 쉽다. 하지만, 오히려 제행무상에서 말하는 것은 정반대이다. 『구운몽』에서 성진과 양소유가 꿈(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보여지는 ‘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진이나 양소유가 결코 ‘나’라는 상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진과 양소유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진은 재가자로서 수행하며 도를 닦거나, 양소유는 속세에 있는 자로써 사랑을 하고 입신양명을 이루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였고, 그들 자체로서의 존재의의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성진과 양소유는 마치 “홍을 타고 갔다가 홍이 다하면 돌아온다.”¹¹⁾ 는 육관대사의 말처럼,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성진이 되지만, 마음가짐이 변한다면 또 다른 성진인 ‘양소유’가 된다. 즉 애초에 양소유와 성진 중 어느 한 쪽이 고정되어있지 않았으며, 생각과 삶의 목적 등에 영향을 받아 둘은 언제라도 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흔히 우리의 존재 의미 또한 무의미하다고 의식하기 쉽다. 우리는 흔히 거울로 보는 내 모습에 익숙해져 남이 찍어준 사진 속의 나를 보고 이상하다 느끼기도 하고,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해지고는 ‘이건 진짜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곧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외면의, 혹은 내면의 진정한 ‘나’에 집착한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곧 셀프 카메라로 찍은 자신과 후면카메라로 찍은 자신을 비교하는 것과도 같다. 두 가지 카메라로 찍은 나의 사진은 분명 서로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임에 틀림없다. 또 당연하지만, 이 둘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의 나에게 전혀 영향이 가지 않을뿐더러, 의미도 없는 일이다. 가끔 자신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어떤 때는 또 특별해 보이지만, 이러한 인식은 곧 자신의 마음속 변화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라는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찾아온 자신의 변화에 낙담하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인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며, 이러한 변화에도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체는 곧 하나의 가치가 된다.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조금 더 솔직

10) [제행무상]: 원불교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3870&cid=50765&categoryId=50778> (검색일자 2019.11.25.)

11) 김만중, 송성욱 옮김, 『구운몽』, 민음사, 2019, p.231.

해질 필요가 있다. 나라는 정체성은 언어, 종교, 가족과 같이 생각보다 사소한 계기로 쉽게 바뀐다. 변화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행위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계기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삶은 변화하기에 그 가치가 더 두드러진다.

Ⅲ. 결론

‘나’는 ‘나’의 인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실패를 겪고, 그러한 자신이 고정불변할 것이라 믿으며 쉽게 낙담하고는 한다. 하지만,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라는 존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나에 따라서 눈앞의 상황은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나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이다. 나는 변화하는 존재이고, 또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과 함께 즐겁게 어울리며 변화하며, 자신만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노력할 때 변화한다. 양소유가 다시 성진으로 변하며 수행자로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이루듯이, 끊임없는 변화는 우리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킨다. 변화는 마치 구름 속에 싸인 모호한 길과도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며 더욱 더 자신을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 것이다.

[참고문헌]

김만중, 송성욱 옮김, 『구운몽』, 민음사, 2019.

김하나, 「《구운몽》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 양상 연구」, 강원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10.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392&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19.11.2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2793&cid=42619&categoryId=42619> (검색일자 2019.11.25.)

원불교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3857&cid=50765&categoryId=50778> (검색일자 2019.11.25.)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

불교경제학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산업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이해현

- I. 불교경제학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산업의 출현
- II. 불교경제학의 의미와 특징
 - 1. 불교경제학의 등장 배경
 - 2. 불교적 정신의 특징
- III. 불교경제학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산업 실태
 - 1. 수익 창출 및 노동 구조
 - 2. 자극적 콘텐츠
 - 3. 획일적 콘텐츠
- VI. 1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 제고

[참고문헌]

I. 불교경제학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산업의 출현

최근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신문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가 수행 하던 역할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가 분담하게 되었다. 뉴미디어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교환 및 전달이 생산자와 수용자 간 쌍방향으로 일어나며, 생산자는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며 적극적 자기표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휴대용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시·공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이 도래하였다. 누구나 디지털 미디어를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기존 미디어에서 벗어나 이제 개인이 수익구조를 담당하는 1인 미디어가 사회 구조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거대주의라는 우상숭배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그러므로 작은 것의 미덕을 고집하는 게 필요하다.”¹⁾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집단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규모 단위의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절화된 구조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²⁾라며 불교경제학은 거대주의의 병리에서 벗어날 방안을 규모에서 찾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뉴미디어는 거대주의로부터 파생된 현대의 일면이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도래에 따른 1인 미디어의 출현은 소규모 내에서 개인의 창의적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고, 수용자와의 쌍방향적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 간 긴밀한 소통을 추구한다. 1인 미디어 산업이 거대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불교경제학과 상응함을 알 수 있다.

불교경제학은 “요즘처럼 새로운 경제 시대에 기술적인 진보를 성취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결정과 수시로 번뜩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그런 특별한 심리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³⁾라며 불교적 수행을 통해 창조성을 지니는 것이 새로운 경제 시대에서의 자산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1인 미디어 산업은 개인의 개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교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창조성을 함양하는데 상응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 1인 미디어 산업의 현실은 불교경제학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구조의

1) 에른스트 슈마허,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p.86.

2) 에른스트 슈마허,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p.98.

3)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지북, 2000, p.98.

병리 현상을 해결하는 돌파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산업은 가속화되어 현대 사회에 더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불교경제학의 관점에서 1인 미디어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올바른 행복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불교경제학의 방식을 바탕으로 1인 미디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Ⅱ. 불교경제학의 의미와 특징

1. 불교경제학의 등장 배경

현대 사회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상생의 불교 경영학』의 “오직 돈만 벌겠다는 강박관념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야 만다.”⁴⁾라는 저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추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의 원천인 인간의 노동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다. 슈마허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주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근대 경제학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해야 하는 필요악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인간 소외가 발생했고 물질주의가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사람보다 재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연민 없는 악행이다.”⁵⁾라는 내용을 통해 물질이 인간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불교적 정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으로 대표되는 이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행복한 사회를 이끈다는 불교의 기대에 따라, 불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불교경제학이 등장하였다.

2. 불교적 정신의 특징

불교경제학은 이윤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욕망이 극대화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도 정신적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적 세계관 및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불교에서는 이기심으로 상징되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집과 작은 인간이 자신만을

4)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지북, 2000, p.14.

5) 에른스트 슈마허,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p.77.

위해 어떤 한 가지를 과도하게 좋아하는 경향으로서 종종 타인이나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행위이다. 더욱이 무한한 존재와의 관계성을 존중하는 전체적 우주관을 함양한 불교적 세계관에 따라, 불교에서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상호의존적이며 사물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갖는 성향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마지막으로 불교는 중도적 정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붓다는 금욕주의와 욕망에 탐닉하는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물질과 정신 양 극단에서 절제된 관점에서 중도를 추구한다.⁷⁾

이를 바탕으로 불교경제학은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복지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며 소박함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불교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 즉 물질 자체를 부정한 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채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Ⅲ. 불교경제학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산업 실태

1. 수익 창출 및 노동 구조

1인 방송 플랫폼 등 다양한 개인의 창작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개발되면서 1인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를 전문적으로 노동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의 투자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화 된 기존의 대규모적 운영 산업과는 달리, 1인 미디어 산업에서는 생산자 개인의 단독적 능력만이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투자와 지원이 제한적이다.⁹⁾ 따라서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은 오로지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경제적 평가를 받게 되며, 이것이 유일한 경쟁 요소가 된다. 1인 방송 콘텐츠의 구독자 수가 증가할수록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1인 미디어 산업에서 생산자의 역할이 자아 실현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생산자 자신도 구독자, 즉

6)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지북, 2000, pp.20-23.

7)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지북, 2000, p.91.

8) 에른스트 슈마허,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p.76.

9) 이용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 영향요인 분석 : 소득창출 및 경력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SBS, 2019, pp.44-45.

이윤에 집착하다 보니 자신을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다.

그러나 불교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이는 비효율적이며 올바르지 못한 양상이다. 『상생의 불교 경영학』에서 저자는 “불교경제학의 근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교경제학의 원초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것이며, 이윤은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부산물인 것이다.¹⁰⁾”라며 이윤 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두어서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더라도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있더라도 전적으로 행복과는 상관없는 상태이므로, 욕망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가 곧 행복이다.¹¹⁾

또한 “사람이 삶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은 불교식 사고방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붓다는 이것을 가리켜 정업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불교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팔정도의 한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다.”¹²⁾라며, 불교경제학은 이러한 정업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기계화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2. 자극적 콘텐츠

이윤 추구를 위해 경쟁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현대 1인 미디어 산업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였다. 1인 미디어 산업 중 가장 주목받는 1인 방송 플랫폼에서 ‘먹방’은 꾸준히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ANG SIFAN(2019)에 따르면 아프리카 TV를 통해 처음 등장한 1인 먹방은 개인 방송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았는데, 생산자들은 주로 음식을 ‘많이’, ‘빨리’, ‘맛있게’ 먹는 방송 방향을 추구했다. 최근에는 음식점에 찾아가 무리한 양이나 맛의 식사를 게임식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도전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수용자의 활발한 반응을 이끌고 있다.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1인 콘텐츠인 ‘브이로그’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명품을 소비하는 과정 및 명품 개봉기를 담은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명품 하울 콘텐츠는 제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오락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제목과 내용에서는 높은 금액을 언급하여 시청자의 시선을 끌고 썸네일에서는 눈에 띄는 컬러와 자극적인 자막을 활용해 전

10)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자북, 2000, p.110.

11)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자북, 2000, pp.111-112.

12)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자북, 2000, p.141.

형적으로 수용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상을 보인다.¹³⁾

그러나 불교경제학에서는 “일에 대한 불교식 동기는 자신과 타인 둘 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⁴⁾라며 개인적 이윤 추구를 위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라고 본다.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끼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타인의 1차원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데에만 집중한 1인 미디어의 자극적 콘텐츠는 올바른 방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불교경제학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지구에 끼친 모든 해악들을 깊이 반성하고 미안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지구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¹⁵⁾라며 환경을 존중하는 경제 활동을 추구한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무리한 양의 식사를 하거나 쾌락적 동기로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1인 콘텐츠의 내용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불교경제학과 괴리된다.

3. 획일적 콘텐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프레임에 얽매인 1인 미디어 산업은 경쟁을 위한 획일성을 띠게 되었다. 생산자는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타 생산자와 자신의 콘텐츠를 비교하며 경쟁의식을 느끼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을 모방하고 유행에 집착하게 된다. 더욱이 창의적 노동에 대한 보상 수준과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생산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창의성을 콘텐츠에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다.¹⁶⁾ 정보 교환과 소통이라는 미디어의 목적은 완전히 잃은 채, 개인 미디어를 수단으로 여기고 영리를 추구할 목적만이 남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불교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행복한 경영과는 괴리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슈마하는 모두가 거대한 규모의 경제만을 숭배하는 현대 사회는 스스로 작은 것과 큰 것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본다. 불균형적 사회에서는 성공이 성공을 낳고, 실패가 실패를 낳는다. 약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¹⁷⁾ 불교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거대주의라는 우상숭배 주의에 빠져 뿌리 뽑힌 존재가 되어가는 현대 인간은 자율성을 회복하여 올바른 경

13) 하유선, 「패션 명품 하울 콘텐츠의 시청자 반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pp.63-64.

14)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자북, 2000, p.107.

15)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자북, 2000, p.116.

16) 이용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 영향요인 분석 : 소득창출 및 경력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SBS, 2019, p.65.

17) 에른스트 슈마허,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p.95.

제 활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획일적 이념에 인간이 종속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도 가치를 창출하며 인간 스스로 균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병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자율성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불교경제학은 경제 체제가 명상을 통해 수양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경쟁력을 안겨주는 방안이라고 본다. 직관적 마음인 정심을 통해 창조성을 함양하는 것이 불교적 명상을 통해 올바른 정보화 및 서비스업 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이다. 획일적 논리로 흐트러지는 이 세상에서 정심과 같은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 태도라고 주장한다.

Ⅵ. 1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 제고

단기적으로는 1인 미디어 산업에서 자극적이고 획일적인 콘텐츠 등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불교경제학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병리 현상을 낳고 행복한 사회로의 이행을 저지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양상이다.

우선 1인 미디어 산업은 생산자는 자유롭게 이윤을 창출하되 이윤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용자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상생의 불교 경영학』을 통해 사업가가 소비자를 제일로 삼을 때 열정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따라서 생산자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 수용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아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는 남겨진 이윤의 일부를 수용자가 질 좋은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콘텐츠에 재투자하거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불교경제학이 추구하는 행복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과도한 식사량의 먹방보다는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나눔을, 사치스러운 소비 하울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남겨진 수익을 모두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그 방법을 공개하며 공공 이익을 추구한 『상생의 불교 경영학』 속 ‘마루타’ 회장의 성공적인 경영 사례를 통해, 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과 세계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자북, 2000, p.135.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는 환경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주의 일부인 인간은 환경을 잠시 빌린 것뿐이며 우리는 다시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이념과 더불어, 미래의 환경 파괴를 복구하는 데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이 행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불교경제학을 통해 알 수 있다. 1인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는 환경이 희생되어 콘텐츠의 내용을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당연히 필요 이상의 환경 파괴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생산과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1인 미디어 산업은 발전해야 한다.

[참고문헌]

- 에른스트 슈마허,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 이노우에 신이치, 이은래 역, 『상생의 불교 경영학』, 이지북, 2000.
- 이용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 영향요인 분석 : 소득창출 및 경력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SBS, 2019.
- YANG SIFAN,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인터넷 1인 먹방 이용과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9.
- 허유선, 「패션 명품 하울 콘텐츠의 시청자 반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학업기초 글쓰기

한국 동물원의 종 보전 실태

이과대학 수학과 우상우

I. 머리말

II. 부실한 동물 관리

1. 동물 혈통 관리

- 1) 이종 간, 아종 간 교잡
- 2) 근친교배

2. 사육 환경

- 1) 방사장과 무리 구성
- 2) 수준 낮은 관람문화
- 3) 비좁은 내실

3. 감시의 사각지대, 소규모 동물원

- 1) 먹이 주기와 동물 체험
- 2) 대형 동물과 희귀형질 도입

III.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동물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귀족들의 즐거움을 위한 전시 시설이었다. 초기의 동물원은 귀족들이 진귀한 동물들을 가둬 전시함으로써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¹⁾ 그런 의도로 세워진 동물원에서 동물의 복지 같은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²⁾ 미네저리의 동물들은 좁고 황량한 우리 속에 갇혀 본연의 습성 대신 누워 있는 걸모습만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근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지금처럼 여가생활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외국의 관광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었던 시절, 이국의 신기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열광했기 때문이다. 그 동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동물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 동물원은 초창기와 다른 반응을 마주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아프리카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동물원이 아니어도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사람들은 더는 가만히 있는 동물에 열광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동물의 전시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는 힘들다. 야생동물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동물원이 존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원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동물원 운영진은 그 답을 내놓았다. 종 보전, 연구, 교육, 위락. 이 네 가지가 현대 사회에서 동물원의 순기능이다.

여기서는 한국 동물원들이 종 보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루려고 한다. 그 이유는 상술한 4가지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종 보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멸종에 따른 종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지금, 동물원의 존재의미를 말할 때 종 보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동물원이 그런 역할을 한 사례도 여럿 있다. 한때 사냥으로 멸종됐던 유럽들소와 사불상은 동물원에 남아있던 개체들의 후손들이 야생으로 돌아가 수를 불리고 있다. 국내의 예를 들자면 서울동물원이 반달가슴곰과 붉은여우 복원에 참여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에세이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사례보다는 부정적인 사례에 좀 더 집중하려 한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의 동물원들은 종 보전에 관한 관심이 적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물원들이 종 보전을 제대로

1) 두산백과 '동물원' 항목 참고.

2) 이런 전시 시설을 미네저리(menagerie)라 한다.

수행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 동물원들의 종 보전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Ⅱ. 부실한 동물 관리

1. 동물 혈통 관리

종 보전은 단순히 멸종위기종을 사육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의 외형과 습성은 주변 환경에 맞춰 진화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 해당 종의 외형과 습성을 온전히 갖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게 유전자, 혈통 관리다. 동물의 외형과 습성은 그 동물의 유전자가 발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동물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 소홀했고, 그 결과 한국 동물원에는 종 보전 가치가 전혀 없는 동물들이 많다.

1) 이종 간, 아종 간 교잡

동물들이 겉보기에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꼭 같은 종인 것은 아니다. 같은 종이라 해도 같은 아종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종, 아종 분화는 동물이 지역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종이 다른 동물을 교배해 태어난 자손 개체, 아종이 다른 동물을 교배해 태어난 자손 개체는 종 보전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한국 동물원에서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는 기린과 호랑이가 있겠다.

대부분의 한국 동물원 운영진은 자신들이 사육하는 기린이 그물무늬기린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방사장에 나온 기린의 모습을 보면 그물무늬기린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물무늬기린은 흰색의 좁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짙은 갈색의 매끈한 다각형이 온몸을 덮고 있어, 마치 갈색 바탕에 그물을 씌워 놓은 것 같다. 반면 한국 동물원의 기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각형을 찢어 놓은 것 같은, 톱날 모양 무늬가 몸을 덮고 있다. 이런 외형은 마사이기린의 특징이다. 즉, 한국 동물원의 기린은 전부 그물무늬기린과 마사이기린의 잡종이다. 동물원 측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내 모든 기린이 아종 간 교잡종이라 순종 기린이 없는 점, 구역제 문제로 타국에서 순종 기린을 도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기존 기린들을 특별한 조치 없이 번식시키고 있다.

호랑이 역시 교잡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동물원에서 한국호랑이라고 부르는 호랑이는 시베리아호랑이 아종이다. 한국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시베리아호랑이의 혈통은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두 계통이 벵골호랑이 아종과 교배된 계통이다. 호랑이 도입 당시 해당 호랑이들은 국제 시베리아호랑이 혈통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순혈 시베리아호랑이로 여겨졌으나, 그들의 자손에서 여러 차례 백호가 태어나며 순혈이 아님이 밝혀졌다.³⁾ 현재 국제 호랑이 혈통 대장에는 이들의 부모 개체부터 교잡종임이 명시되어 있다.⁴⁾ 이 경우에는 혈통 대장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원 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서울동물원 정도를 제외하면 시베리아호랑이의 번식을 제한하는 동물원은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동물원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⁵⁾ 남아시아의 정글에 사는 벵골호랑이와 동북아시아의 숲에 사는 시베리아호랑이는 특성이 다른데, 이 둘의 교잡종에 유전적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근친교배(후술) 때문에 국내 시베리아호랑이의 유전자 풀은 꽤 심각한 상황이다.

2) 근친교배

이종 간, 아종 간 교잡 외에도 동물의 유전적 가치를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근친교배다. 동물이 번식할 때 부 개체와 모 개체의 염색체가 반씩 자식에게 유전되며, 이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부모 개체가 친척 관계, 남매 관계, 또는 부모 관계라면 부 개체와 모 개체의 유전자가 비슷하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며, 열성인자 발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두세 세대가 근친교배로 번식을 계속하게 되면 그 자손 개체에는 높은 확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⁶⁾ 국내 동물원의 여러 맹수(사자, 호랑이 등)를 관찰하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시베리아호랑이, 그리고 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동물원의 시베리아호랑이 사육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가 여러 마리를 도입하며 시작되었는데, 오랫동안 개체를 새로 도입하지 않고 처음 도입한 개체들과 그 자손들로만 번식을 계속하다 보니 근친교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호랑이들이 여럿 태어났다. 사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온 소

3) 백호는 호랑이의 아종 중 벵골호랑이에서 발현되는 열성 유전형질이다. 다른 아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 Kathy T. Holzer, 『North American Regional Amur Tiger Studbook』, Minnesota Zoo & IUCN SSC CBSG, 2013.

5) 서울동물원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 교잡 개체들의 번식을 막고, 새로 도입한 순종 개체들만 번식시키고 있다.

6)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김영사, 2011.

수의 개체로 번식을 계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더구나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 두 곳이 국내 동물원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이다 보니 두 동물원의 맹수들은 동물이 필요했던 다른 동물원에 도입되었고, 국내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 대부분이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의 근친교배 혈통과 엮이게 되었다. 이 개체들은 여러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고, 그중 몇몇은 번식도 하고 있다.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와 사자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몇몇 개체의 눈이 사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사육 환경

엄격한 혈통 관리로 동물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한다 해서 끝이 아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넓이 차이를 생각하면 동물원에서 아무리 넓은 방사장을 준다 해도 야생과 비교하면 비좁은 공간일 뿐이다. 또한, 야생과 달리 수많은 사람과 대면하며, 관람객들이 내는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동물은 야생에서와 다른,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형행동이라 한다.⁷⁾ 환경을 개선해 동물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면 정형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동물의 고유한 습성이 나타나며 번식도 활발히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육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동물원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며 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1) 방사장과 무리 구성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 동물원, 특히 지방 동물원의 방사장 환경은 동물의 고유한 습성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 소형 식육목 동물들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콘크리트 바닥과 철장 구조의 작은 방사장에서는 굴을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예로, 영장류는 지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만족시켜주려면 복잡한 구조물을 갖춘 환경을 제공하고, 끊임 없이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수의 동물원이 이들에게 단조로운 구조물과 좁은 방사장을 제공하고 있다.

동물의 사회성을 무시 영장류는 대규모 무리를 지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지만 많은 동물원에서는 종마다 두세 마리 정도 사육하며, 심하면 단 한 마리만 사육하는 곳도 있다. 무리를

7) 로브 레이들로,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책공장더불어, 2012.

짓는 동물을 한 마리만 방사하는 것은 동물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너구리처럼 홀로 사는 동물을 한 우리에 여러 마리 방사하는 사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종들을 같은 우리에 방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면 개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동물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동물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수준 낮은 관람문화

관람객의 태도도 큰 문제다. 철창 틈새나 담장 너머로 먹이를 던져 주는 관람객들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권의 한 동물원에 갔을 때, 원숭이 우리 앞에 10분 정도 서 있는 동안 세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자와 바나나를 동물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물원 곳곳에 있는 먹이 금지 팻말은 이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동물원의 동물들은 사육사들로부터 적정량의 먹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외에 관람객들이 주는 과자, 빵, 과일도 동물들을 비만으로 만들거나 병에 걸리게 할 뿐이다. 또한, 관람객들이 자꾸 먹이를 주면 동물들은 우리 안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대신 관람로 가까운 곳에 앉아 먹이만 기다리게 된다.

또한, 우리를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는 관람객 역시 동물에게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관람객들은 돈을 냈으니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동물들에게는 소음일 뿐이다. 소음은 동물들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누적되어 동물이 폐사할 수도 있다.⁸⁾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물원들이 먹이 자판기를 없애고 곳곳에 안내 팻말을 붙이고 있지만 갈 길이 요원하다. 관람객들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동물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비좁은 내실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 중 상당수는 온대 지방 동물이라 겨울에는 내실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내실이 좁고 단조로워 동물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 내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동물 중 대형 동물인 사자, 하이에나, 영양 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심하면

8) 신수빈, 「췌, 동물원 동물들은 '어린이날'이 더욱 무섭습니다.», 동아사이언스, 2017. 5. 5.

열 마리가 넘는 사자 무리가 평생 하나와 몇 가지 도구만 있는 좁은 내실에 누워서 자야 할 때도 있다. 깨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몇 걸음이 전부인 내실을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이런 생활을 몇 달간 계속하는 것이 동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은 무리 내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내실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툼에서 밀렸을 때 도망칠 곳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좁은 내실은 한국 동물원 전체의 문제이다.

3. 감시의 사각지대, 소형 동물원

지금까지 말한 사례는 모두 야외 방사장을 갖춘 대형동물원의 사례이다. 그런데 이들보다 문제가 심한데 주목은 덜 받는 곳이 있다. 바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동물원을 비롯한 소형 동물원이다. 규모가 큰 동물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나가며, 사고라도 한 번 일어나면 큰 화제가 되지만 소형 동물원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감시의 눈길이 덜 하다. 이 틈을 타 실내 동물원은 그 세를 확장했는데, 대형동물원들이 문제점을 깨닫고 그만 둔 것을 이들은 아직도 하고 있다.

1) 먹이 주기와 동물 체험

이런 소형 동물원들은 백이면 백 체험형 동물원을 표방한다. 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연과 인간의 동화’, ‘인간과 동물의 교감’ 등 그럴싸한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동화, 교감은 무엇일까? 실상은 동화나 교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먹이 주기와 동물 체험이다.

많은 소형 동물원은 입구에서 당근이나 닭고기를 먹이로 판다. 돈 앞에서 동물의 건강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동물원 운영진의 만행은 먹이 판매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교감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이 동물을 직접 만져보고, 몸에 올리게 한다. 교감이라고 하지만 그저 아이의 일방적인 손길일 뿐이다. 보통 가축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인간과의 접촉에서 만족을 느끼지는 않는다. 동물에게 있어서 그것은 교감이 아닌 스트레스 요인이다. 동물의 입장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잘 꾸며낸 자연과 인간의 교감은 아이와 부모에게 잠깐의 만족을, 체험형 동물원 운영진에게는 돈과 입소문을 선사한다. 이것은 교감을 가장한 사기행각일 뿐이다.

2) 대형 동물과 희귀형질 도입

체험으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고객으로 끌어모은 소형 동물원은 관람객을 늘릴 궁리를

하던 끝에 기존의 소형동물에 대형 동물까지 추가할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형 동물원은 대부분 실내에 있고, 그 규모는 협소하다. 미어캣이나 프레리독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동물원이 악어나 긴팔원숭이, 어떤 곳은 사자나 호랑이를 들여왔으니 그 환경이 어떨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면적만 겨우 맞춘 면적에 물그릇, 통나무 한 개 정도가 다다. 이 환경에서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앉아 있는 것,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말 그대로 살아 있기만 할 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이런 환경에 내버려 두는 것은 종 보전의 기능을 거스르는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소형 동물원이 백사자나 백호를 반입했다는 사실이다. 백사자와 백호는 각각 사자와 호랑이의 특정 아종에서만 나타나는 열성 유전 형질이다.⁹⁾ 생산 과정에서 근친교배와 아종 간 교배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ZA)가 회원들의 백사자, 백호 번식을 금지하는 등 동물원 업계에서 백호와 백사자를 전시하지 않는 움직임은 계속 커져 왔다.¹⁰⁾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 예전과 달리 백호를 번식시키려 들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형 동물원에 전시된 백호, 백사자가 다시금 아이들의 호응을 얻는다면 백호와 백사자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이는 지난 세월을 교훈 삼은 동물원의 자정작용에 반하는 것이다.

Ⅲ. 맺음말

세계적인 동물원과 비교해 보면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구시대적 방사장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 관람객들의 태도나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짙어진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들이 근친교배로 얼룩진, 장애를 안고 사는 동물이란 사실은 한국 동물원이 직시해야 할 오점이다. 다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부정적인 점에 주목했지만, 동물원들은 단점을 고쳐 나가고 있다. 국내 동물원 중 최대 규모인 서울대공원이 그 선두에 서 있고, 그것을 본 지방 동물원들도 차례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만 살펴봐도 서울대공원에서 늑대와 제3아프리카관의 환경을 개선했고, 우치동물원, 전주동물원에서는 중대형 식육목 동물들의 방사장을 넓히고 환경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동물 방사장이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이는

9) 각각 트란스발사자와 뱅글호랑이.

10) 최혁준, 『고등학생의 동물원 평가 보고서』, 책공장더불어, 2014.

동물원의 운영진이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 글을 쓰기 한 달쯤 전, 그간의 개선에 힘입어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가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ZA)의 회원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것이 한국 동물원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두산백과 홈페이지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김영사, 2011.

최혁준, 『고등학생의 동물원 평가 보고서』, 책공장더불어, 2014.

Holzer, Kathy T. , 『North American Regional Amur Tiger Studbook』, Minnesota Zoo& IUCN SSC CBSG, 2013.

로브 레이들로 ,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책공장더불어, 2012.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최우수상

학업기초 글쓰기

우리나라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정하연

I. 머리말

II. 동성결혼 반대 주장의 분석과 비판

III.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

1. 현실적 가치의 측면
2. 사회적 가치의 측면
3. 개인적 가치의 측면
4.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IV. 법제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혼인 대체제도 도입의 필요성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V.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애인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와 경조금 신청을 승인받은 레즈비언 김규진 씨의 이야기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남들 다 받는 신혼여행 휴가를 받은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가 싶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다."¹⁾라고 말했다. 본인의 결혼 준비 과정이 알려진 후 김 씨는 현재 블로그와 트위터에 결혼을 원하는 성 소수자들을 위해 정보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커플은 있지만, 혼인신고를 통한 법적 부부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김 씨의 사례처럼 결혼 사실을 알리고 제도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 갤럽이 2019년 5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5%는 우리나라의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했으나 56%는 반대했다. 20대는 찬성이 62%로 반대를 앞서며 30대는 찬반 비율이 비슷했다. 60대 이상은 77%가 반대에 연령 별 차이가 컸다.²⁾ 과거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꾸준히 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즉 앞으로 더욱 찬성 비율이 높아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동성결혼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성경에 따르면, 근대화 이후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변화했으나 동성결혼에 관한 것은 제외되고 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도 동성 커플은 존재한다.³⁾ 동성결혼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법률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대비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분석하며 비판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앞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했거나 혼인 대체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혼인 대체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심윤지, 「나? 남다른 것 없는 한국에 사는 '유부녀 레즈비언」, 『경향신문』, 2019.09.21
[https://news.v.daum.net/v/20190921060156690\(2019.10.16\)](https://news.v.daum.net/v/20190921060156690(2019.10.16))

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동성결혼, 동성애, 서울퀴어문화축제(5월 통합)」, 『데일리 오피니언 제356호(2019년 5월 5주)」, 2019.05.3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17\(2019.10.16\)](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17(2019.10.16))

3) 최성경,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민사법학』 제5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327쪽.

II. 동성결혼 반대 주장의 분석과 비판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부정적인 인식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이러한 오해는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다. 미래에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하여 지금 동성결혼을 둘러싼 잘못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주요 주장 몇 가지를 예시로 살펴보고, 각 주장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여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동성애는 심한 중독성이 있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동성애자의 수가 증가하여 이성애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정신의학회(AMA)는 1973년에 이미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성 소수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졌을 뿐이다. 또한, 대다수가 이성 결혼을 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지 않듯이, 동성결혼 법제화로 인해 갑자기 동성애자가 증가하진 않는다. 법제화 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 소수자가 많아질 수는 있으나 이는 본래 이성애자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성애와 동성애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동성결혼을 ‘비정상’적인 결혼으로 생각하는 건 차별이다.

둘째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결혼의 정의를 두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한정된 것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채윤에 따르면 결혼이 남녀 간의 일부일처였던 것은 근대 서구사회의 일일 뿐, 인류 전반에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다.⁴⁾ 다른 시대나 문화권을 보면 다양한 결혼과 가족의 형태를 볼 수 있다.⁵⁾ 전통 가족 형태라는 개념도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혼의 정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동성결혼도 결혼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결혼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해서 기존 결혼제도가 붕괴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4) 한채윤, 「연속기획-대안을 찾아서-동성애-결혼과 가족의 확립성 깨기」, 『사회비평』 제33호, 나눔출판사, 2002, 291쪽.

5)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시간적 축과 아프리카, 폴리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히말라야, 아메리카 대륙 등 공간적 축의 사이에선 일부일처제가 아닌 일처다부혼, 망령결혼, 여성 혹은 남성끼리의 동성혼과 같은 다양한 결혼형태들을 볼 수 있다.”(한채윤, 위의 논문, 291쪽.)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는 근친혼이 성행하고 조선시대에는 축첩제도가 자연스럽게 행해지 등 다양한 결혼의 형태가 존재했었다.

셋째로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종족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의무라는 논리이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힘을 얻는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듯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는 생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자나 노인의 결혼은 반대하지 않는 모순도 있다.

넷째로 “동성 부모를 둔 아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이다.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이 허용될 경우 동성 부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의 성적 지향은 자녀 양육 전반에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2014년 호주에서 390쌍의 동성 커플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동성 커플 가정의 아이들과 이성 커플 가정의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평소의 행동 양상, 활동성, 정신건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 커플 가정 아이들은 이성 커플 가정 아이들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런 편견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아이의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동성 부모를 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동성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성적 지향과 부모의 역할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이성애자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이다. 성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성애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긴 위해선 각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각각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보호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성결혼의 법제화는 다수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은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며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는 하지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7년 4월에 열린 제23차 촛불집회에서 행동하는 성 소수자 인권연대의 남용 활동기는 “시기상조의 20년 동안 성 소수자는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생존했다. 그동안 정부와

6) 지능농, 「동성커플의 자녀, 가정에서 행복감 느낄까」, 『동아사이언스』, 2016.05.1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025> (2019.11.17.)

대통령, 정치인들은 합의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나. 막연한 나중을 약속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요구를 들으십시오”라고 발언했다.⁷⁾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시기는 저절로 다가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성 소수자의 인권과 동성결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섯 개의 반대 주장을 살펴보았다. 주장 대부분에 성 소수자 자체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존재했다. 기존 이성에 사회의 붕괴와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들이다. 우리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지워야만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식 개선을 위해 개인적 측면에선 주변에 성 소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연대해주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선 다양한 정체성과 지향성의 존재와 차별에 대해 교육하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현존하는 제도적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을 금지해야 한다. 여러 방면의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동성결혼 법제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Ⅲ.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

동성결혼은 ‘왜’ 법제화해야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동성 커플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이성 부부와 동등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제화를 통해 성 소수자와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현실적 가치의 측면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동성 커플은 이성 부부보다 법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강승욱에 따르면 상속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며, 가족법상의 권리 의무에서 배제되고, 조세 제도상 각종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병원 치료 시 면회권이나 입원, 수술 등에 동

7) 김수정, 『아직도 성소수자 권리는 ‘시기상조’입니까』, 『노컷뉴스』, 2017.04.30.
<https://www.nocutnews.co.kr/news/4777012> (2019.11.17.)

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우자 사망 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주택 입주나 직장 내 가족수당 지급 등에서도 사회적 불이익이 있다.⁸⁾ 자녀 입양과 양육에도 제약이 있다. 동성 커플은 자녀 공동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다. 자녀를 기르고 싶어도 두 사람이 함께 법적 부모가 될 수는 없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동성 커플이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일부 또는 전체 재정 자원을 합치는 것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적 계약”⁹⁾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제도적 권리가 재산과 자녀 문제 등의 현실적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된다면 동성 부부의 혜택과 권리 보장에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과 이성 부부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줄어들고, 평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2. 사회적 가치의 측면

동성결혼 법제화는 성 소수자가 당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예로부터 결혼은 사회적 인정의 의미가 컸다. 동성 결혼 또한 마찬가지다. 결혼을 통해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알리고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동성 커플에게도 중요하다. 본인의 성 정체성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이성애자와 달리, 성 소수자는 커밍아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소수자의 결혼을 지지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인정을 넘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 약자로서 소외당하던 성 소수자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지니기도 한다. 2013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는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결혼을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김승환 씨는 자신들의 결혼식이 ‘결혼 평등과 파트너십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 쟁점을 전달하는 공적 행사라고 하였다.¹⁰⁾ 우리나라에도 동성결혼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공개 결혼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이와는 다른 사례로, 전통적인 이성애 가부장적 결혼에 대항하는 의미로 동성 결혼을 한 동성애자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이들은 결혼제도 자체에 반대했지만, 자신의 결혼을 통해 동성애자의 결혼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는

8) 강승욱,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9호, 한양법학회, 2018. 287~288쪽.

9) 리 배지트 저, 김현경, 한빛나 옮김,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6. 174쪽.

10) 리 배지트 저, 김현경, 한빛나 옮김, 위의 책. 14~15쪽.

것을 깨달아 파트너와의 결혼을 결심하였다.¹¹⁾ 이처럼 동성 결혼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성 소수자 집단의 영향력을 넓힐 수도 있다.

3. 개인적 가치의 측면

결혼은 연애 관계보다 더 큰 결속력을 갖는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가족이 되어 함께 살게 된다.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위기를 극복한다. 새로운 가정은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애인과 배우자가 되는 것을 맹세하고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 결혼하기도 한다.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결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연인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깊게 유지될 수 있다. 성 소수자에게도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는 의미가 있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동성 커플의 사랑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4.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한채윤에 따르면 우리 사회엔 이미 다양한 가족이 등장했으나 이런 변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권리존중의 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성 커플은 물론이고 동거 부부, 편부모 부부, 소년·소녀 가장 가구, 선택에 따른 독신 가구, 무자녀 가구, 제도 밖 공동체 가구, 미혼모 가구, 재혼, 입양 가정 등이 혈연 중심, 남성 중심, 부모 중심적인 가족 제도 아래에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¹²⁾ 그러나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며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 또한 많지 않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소수 가족 형태의 하나를 인정하여, 다른 형태의 가구들도 더 많은 제도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각자의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해주는 ‘확장’의 개념”¹³⁾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11) 리 베지트 저, 김현경, 한빛나 옮김, 위의 책, 57쪽.

12) 한 채윤, 앞의 논문, 297쪽.

13) 한 채윤, 앞의 논문, 297쪽.

IV. 법제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혼인 대체 제도 도입의 필요성-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동성결혼 법제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단 법을 제정한 후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십 제도 등의 혼인 대체제도를 먼저 적용한 후 법제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전자는 제도와 인식 변화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반발로 법제화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 대부분은 후자의 방법을 사용했다.

혼인 대체제이란 동성 커플에게 기존의 결혼제도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김선화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면 이러한 대체제도를 일단 도입할 수 있다. 혼인 대체제도를 채택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제도들이 혼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라고 판단하여 동성혼 제도를 마련하였다.¹⁴⁾ 우리나라도 성 소수자와 동성 결혼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나, 아직 사회 전반은 이들에 대해 부정적이다. 따라서 혼인 대체제도를 먼저 도입한 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동성 결혼 법제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보인다. 외국의 혼인 대체제도 도입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알맞은 제도를 고민해보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2000년대 초중반에 혼인 대체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이름은 각각 시민 동반자법, 시민 연대계약, 생활 파트너십법이다. 영국과 독일은 동성 결합 관계만을 당사자로 규정했으나 프랑스는 이성 결합 관계도 포함했다. 각 제도는 혼인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했으나 혼인과는 차이가 있었다. 김선화에 따라 독일을 예시로 들면, 생활 파트너십법은 서로 간에 인생 동반자 관계가 성립하고 부양의무와 공동생활 책임이 있었으며 공동의 성(姓)과 가족을 인정했다. 재산 관계 계약과 상속권도 존재했다. 단독으로 또는 서로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공동 입양은 불가능했다.¹⁵⁾ 가족의 책임이나 재산 관리 면에서는 결혼과 유사하지만, 자녀 문제에서 제약이 있었다. 세 나라는 혼인 대체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법제화 이후 대체제도의 처리에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현재 ‘모든 사람을 위한 혼인’이라는 명목하에 현재 이성 혼인, 동성 혼인, 시민연대계약, 사실혼의 네 가지 결합 형태가 있지만 독일은 법제화 이후 생활 파트너십 제도

14)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54쪽.

15) 김선화, 앞의 논문, 52쪽.

를 폐지하고 기존 생활 파트너십 관계자만 이 지위를 유지하거나 혼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¹⁶⁾ 영국, 프랑스, 독일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행되어 혼인과 비슷한 결합 관계를 허용한 후 국민의 요구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법제화가 실현된 사례이다. 이러한 법제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걸맞은 제도가 시행된 국가에서 적합하다.

미국은 동성결혼 또는 동성 파트너십제의 도입이 주마다 차이가 있었다. 제도의 도입 시기 도 제각각이었으며 아예 동성 간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주도 존재했다. 그러나 201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되었다. 대만도 지역적으로 동성 반려 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2017년 사법원의 판결로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허용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동성 결합 관련 제도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통일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는 국가 전반에 성 소수자와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야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파트너십 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강승욱에 따르면 크게 시부야 방식과 세타가야 방식으로 나뉜다. 시부야 방식은 조례에 따라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조례지만, 파트너십 증명은 동성 커플만 취득할 수 있다. 서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생활에 대한 계약을 공증증서로 체결한다. 구내 직장에서의 대응 개선과 입주 편의를 보호받을 수 있다. 세타가야 방식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정해지는 요강이다. 동성 결합 관계에 대한 파트너십을 인정한다. 시부야구 외엔 전부 세타가야 방식이다.¹⁷⁾ 이러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취약하고 보장되는 권리가 많지 않다. 그러나 차별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선 의미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본이 먼저 동성결혼을 법제화한다면 우리나라의 입법에도 중요한 예시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에 의하면 국가별로 혼인 대체제도의 세부사항은 달랐지만, 대체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혼인과 대체제도 사이의 차이를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인 대체제도는 결혼과 유사하지만 동등하진 않은,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6) 강승욱, 앞의 논문, 295-296쪽.

17) 강승욱, 앞의 논문, 303-305쪽.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혼인 대체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선 동성결혼 자체에 관련된 법률은 아니나, 다양한 생활 공동체의 출현과 향후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된 적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자는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지닌다. 해소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가족관계가 발생한 경우 등엔 동반자 관계가 해소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소되었을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 또한 인정한다.¹⁸⁾ 이 법안은 통과되진 못했으나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려 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 동반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정 시도는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결혼제도가 외면했던 관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생활 동반자법을 혼인 대체제도의 초석으로 삼아, 동성 커플에게 가족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에 동성 결합 관계에 관한 어떠한 제도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혼인 대체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일깨우고 이들을 서서히 제도 안으로 편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대체제도 적용에서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혼인 대체제도의 도입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요 주장 여섯 가지를 비판하고 동성결혼이 필요한 이유를 현실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혼인 대체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함을 밝히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예상해보았다.

다만 이 글에서 법제화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의 동성결혼 법제화 사례가 없으며, 아시아 최초 법제화 국가인 대만도 입법 이후 겨우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 훗

18) 장서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설명 및 입법의 효과」,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2014, 15~19쪽.

날 대한민국과 비슷한 문화권의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반응과 입양 등 관련 제도를 더 깊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될 때 동성결혼이라는 형태는 인지되지 않았고, 동성 커플은 혼인이라는 권리 보장에서 외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성 소수자와 인권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동성결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성 소수자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합법적인 요구이다. 이제는 온 사회가 동성결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편견으로 가로막혔던 인식을 바꿀 때이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적

리 배지트 저, 김현경, 한빛나 옮김,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6

논문

강승욱,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9호, 한양법학회, 2018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장서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설명 및 입법의 효과」,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2014

최성경,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민사법학』 제5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한채윤, 「연속기획-대안을 찾아서-동성애-결혼과 가족의 획일성 깨기」, 『사회비평』 제33호, 나남출판사, 2002

기사

김수정, 「‘아직도’ 성소수자 권리는 ‘시기상조’입니까」, 『노컷뉴스』, 2017.04.30.
<https://www.nocutnews.co.kr/news/4777012> (2019.11.17.)

심윤지, 「나? 남다를 것 없는 한국에 사는 '유부녀 레즈비언」, 『경향신문』, 2019. 09. 21
<https://news.v.daum.net/v/20190921060156690> (2019.10.16)

지농농, 「동성커플의 자녀, 가정에서 행복감 느낄까」, 『동아사이언스』, 2016.05.1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025> (2019.11.17.)

기타 자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동성결혼, 동성애, 서울퀴어문화축제(5월 통합)」, 『데일리 오피니언 제356호(2019년 5월 5주)」, 2019.05.3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17>(2019.10.16)

2019년
에세이경진대회
심사평

글쓰기 부문

김윤경 | 다르마칼리지

명작 세미나 부문

박진희 | 다르마칼리지

Dharma College

글쓰기 부문

심사평 : 김윤경 교수(다르마칼리지)

에세이경진대회의 글쓰기 부문은 <자기표현글쓰기>, <실용글쓰기>, <학업기초글쓰기> 3개 영역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다. 각 영역별로 글쓰기 목적에 따른 기준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성적인 화제의 선택 및 글쓴이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주제화 과정, 구성의 체계성과 명확한 표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글쓰기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담화공동체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글쓰기의 형식적내용적 요건’이다.

<자기표현글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삶의 서사화를 통한 자기정체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이다. 이 영역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편화 된 자신의 경험을 선별하여 하나의 의미로 구성하는 구성력, 실존적 경험에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는 주제화 능력,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가능케 하는 표현력이다. 이 영역의 우수에세이는 고유진 학생의 <달의 노래>, 김서현 학생의 <무취의 살냄새>가 선정되었다. 두 글 모두 가족과의 일화를 소재로 한 것으로 <무취의 살냄새>는 성장과정에서 함께한 조부모와의 시간과 두 분의 죽음을 경험한 과정을 후각적 감각 묘사로써 인상적으로 기술한 글이다. <달의 노래>는 가정주부로서만 살아온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과정을 딸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작성한 글이다. 두 글 모두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글이었는데 <달의 노래>가 글쓴이의 감정변화와 타인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잘 표현된 글이라 최우수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실용글쓰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로, 문제제기의 타당성과 해결방안의 실현가능성, 명료하고 개성적인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경수반권서한김소아박효주 학생이 제출한 <따릉이와 함께 하는 서울 여행>은 서울시의 따릉이에 관광로드맵 기능을 추가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따릉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울 여행을 경험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해결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의 타당성이 잘 드러났으며 가독성과 개성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편집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장동화 학생의 <대형서점과 지역서점 양립의 필요성>은 대형서점 위주의 출판시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한 점이 인상적이나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가 포괄적 진술에 그치고 있어 다소 아쉬웠다. 김해인안혜자이솔아이태건 학생의 <동대신문 활성화 방안 제안>

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종이신문 배포장소 제안 등 해결방안의 모색이 다소 한정적인 범주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학업기초글쓰기〉는 보편적인 학술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이 명료하게 표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우 학생의 〈한국 동물원의 종 보전 실태〉는 참신한 주제를 선택하여 기존 동물원의 종 보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희귀형질의 도입 등 기존 동물원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 비판적 문제의식과 주장·근거의 타당성이 잘 드러났다. 정하연 학생의 〈우리나라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은 익숙한 주제를 선택했으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방안의 제시가 돋보이는 글이다. 두 글 모두 학술적글쓰기의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었으나 주제의 참신성을 고려하여 이상우 학생의 글을 최우수작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명작 세미나 부문

심사평 : 박진희 교수(다르마칼리지)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야생동물에서 비롯되었다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 경제,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인종 차별 문제가 다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징후들이 빈번해지면서 10억의 동물 죽음을 초래한 호주 산불이 야기되기도 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장기 가뭄이 지속되기도 한다. 글로벌 현대 사회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을 찾아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층 복잡해진 문제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동국대학교의 명작 세미나는 바로 이런 문제 해결 능력과 관점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이다. 에세이 경진대회는 강좌를 통해 길러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글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에세이경진대회에 출품된 명작 세미나 영역 심사위원으로서 이번 심사는 출품 에세이들에서 이런 새로운 관점, 새롭게 문제 이해하기 등이 잘 드러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글들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정 도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지정 도서를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 의식을 표현하고자 한 시도들이 많았고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영역에서는 도서 이외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글쓰기 시도들도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해석한 수상작이나 세월호 이후 변화된 한국 사회상의 반영으로서 “기생충”과 “괴물” 영화를 분석한 글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수상작에 드러난 저자들의 관점이 다양해졌음은 또한 “공간”에 주목한 글들에서도 알 수 있다.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상반되는 저택의 묘사를 통해 사회 계층상이 어떻게 공간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표현한 에세이, 영화 괴물에 나오는 한강변 묘사에서 권력자의 공간 통제를 읽어낸 에세이가 이에 해당한다. 주인공의 사고나 행위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인 공간에 대한 글이 출현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점이 폭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불교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1인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진단한 글도 독창적이었다.

수상작들 전반적으로 글쓰기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특정

도서들이 여전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주제 영역이 아주 넓어졌다고는 할 수 없었다. 명작 세미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영역의 특성상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수상작이 많이 나오고 자연과 기술 영역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영역별 차이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연과 기술 주제를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여기고 관련 에세이들 출품작이 적다 보니 이런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연과 기술 관련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이다. 이는 앞으로 명작 세미나가 해결할 과제로 보인다.